

2021 인문대학 학술제

제12회 문예창작 공모전집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시 부문>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틈 (최우수상)	9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레시피 (우수상)	10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바다가 비에 젖을지라도 (우수상)	11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무꽃 (장려상)	12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이상한 세계 (장려상)	13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너라는 존재 (신입생특별상)	14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여행	15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	16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마음	17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그대가 있는 하늘이 아름다워 보여서	19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내 돌아가는 그날	20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머언 발치	21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선샤인	22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향기	23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박하사탕	24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달은 알아	25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하늘	26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비행	27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하루살이	28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위로	29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상주실	30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외사랑	31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어떤 눈물	32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망월(렘 12:7-13)	33
[영어영문학과 20211224 오하영] 내일	34
[영어영문학과 20211224 오하영] 북두칠성	35
[영어영문학과 20211224 오하영] 가을바람	36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운] 12월	37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운] 시간의 꼭두각시	39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운] 무중력	41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위대한 시인에게	42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어떤 증오	43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구원	44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발자국	45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봄	46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편지	47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그 별	48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빛바랜 사진	49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행복을 잊어버린 그대에게	50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선인장	51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항성(恒星)	52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무제(無題)	53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사랑 : 네온사인	54
[철학전공 20181104 조은지] 環. 1	55
[철학전공 20181104 조은지] 그해 겨울	56
[철학전공 20181104 조은지] 산책	57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물때	58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미소	59

<소설 부문>

[인문학부 20211088 정수민] 비오는 날 (최우수상)	61
[사회학과 20212221 안선우] A의 세계 (우수상)	66
[철학전공 20161002 강병교] 사자는 밤에 운다 (우수상)	74
[인문학부 20211087 정민이] 별판 (장려상)	81
[의과학융합전공 20206523 정수연] 몽중몽(夢中夢) (장려상)	90
[심리학과 20182118 서현성] 화목제물	97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운] 사이코패스	105
[일본학과 20171635 정주연] 한가을 밤의 꿈	112

<비평 부문>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비 오는 날」에 대한 새로운 고찰 (우수상)	121
--	-----

<시나리오 부문>

[경제학과 20163031 이윤희] 제목: 고장난 우산 (우수상)	127
--	-----

공모전 심사평	136
---------------	-----

<시 부문>

[시 부문 최우수상]

틈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너무 소중한데 꼭 쥐면
사라질 것만 같아 움켜쥐지 못했다.
그 틈 사이로 넌 빠져나갔고
결국 내 손엔 공허함만 가득했다.

[시 부문 우수상]

레시피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녹두는 하루 전에 불려서 껍질을 벗겨내라
믹서기에 갈되 너무 묽게 갈지 마라
파랑 김치는 종종 넣고 소금 간해라
(김장김치 아니면 맛없다)
두툽한 돼지비계로 기름을 내고 달궂진 판에 바삭하게 부쳐라
...이러면 된다고 했는데
김장김치가 아니라서 그런가
녹두를 잘 못 샀나. 아니
할머니 손이 아니라 그렇네. 아니
정성이 없어서 그렇네.
그리움으론 채워지지 않는 맛
기억이 잡아주고 받은 사랑이 덮는다

[시 부문 우수상]

바다가 비에 젖을지라도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빗줄기에 결코 잠길 리 없는
바다가 끝내
비에 젖을지라도
평생 무언가에 닿아본 적 없는
바다는 끝내
행복했을 것이라고
영영 누군가와 유영하는
그 순간만 기다렸을 것이라는
그런 얇은 생각에
한참을 잠겨버렸다

[시 부문 장려상]

무꽃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그 옛날 옛 동산에 들러보았소
우리가 함께 걷던 살랑이는 무꽃 길은 사라지고
묵묵히 서 있는 소나무 길이 생기었소

이따금 우리가 걷던 무꽃 길에 들러보오
노랗게 수놓아진 그 길 위에 아직도 그대가 선명하오
그렇게 무꽃 길에 어우러져 살랑이던 그대가 선명하오

그 옛날 옛 동산
우리가 함께 걷던 무꽃 길에 그대를 수놓으려 하오
꽃처럼 수놓으려 하오

그 옛날 옛 동산에 들러보았소
그대가 수놓아진 그 길에
나도 이제 당신 옆에 수놓아볼까 하오
소나무가 될까 하오

[시 부문 장려상]

이상한 세계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얘기야
야옹

바닥을 툭툭 치면 종종 달려온다
그러고선 다시
야옹

엉덩이를 툭툭
이번엔 길게
야옹

하다가 털썩
배를 만지면 깨물다가 핥아주는

나의 이상한 세계
이상한 고양이

[시 부문 신입생특별상]

너라는 존재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밤하늘의 별
연못 위의 연꽃
바닷가의 조개
사막의 오아시스
이 세상의 너
모든 드넓은 곳엔 하나의 소중한 것이 있다.

여행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안개가 짙은 아침
바람에 휩쓸려 길을 나선다

매일 마주하는 길
스쳐지나가는 새로운 무언가들

새로 생겨난 쓰레기
새로운 쓰레기를 치우는 어제와 같은 사람

처음 만들어진 반찬
새로운 식사를 하는 어제와 같은

변하지 않은 도로
어제와 같은 버스 기사

그리고
어딘가 내려앉으면
사라질 꽃잎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가끔, 그리고 또 자주
내 숨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라본다

어느



쓰러지듯 누운 몸이
더러운 것을 모두 없애겠다는 듯 뱉어내는
큰 숨을

또 어떤



열은 불빛에 숨어
느린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천천히 내쉬는 숨을

많은



끝나지 않은 오늘을 뒤로한 채

애써 잠을 청하는
느릿한 숨과
미련과 안도가 섞인
작은 숨을



오늘보다 가볍길 바라며

마음

국어국문학전공
20201004 구민영

온통 하얗다
아니 마냥 하얗지는 않다
아침 안개 같기도 하고
담배 연기 같기도 하고
빛바랜 종이 같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하얗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붉은 삼각형이 흘러내린다
무엇이든 찢르고 상처를 낼,
이미 상처를 낸 것인지도 모른다

검은 선
곧게 뻗어있다
방향은
? ? ??

밑에는 얼룩이 가득하다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흐리고
비 온 뒤 발견한 지렁이마냥 구불대고
밥알 사이 완두콩처럼 동그랗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같이 일렁이고
무언가의 덩어리같고

전부 비슷해보이다가도
전부 다른 모양의 흔적

다시
동그랗고도 가시돋친 무언가가
얼룩을
멍울을 받친다
막는 것인가
?

아래는 더 많은 선
곧지 않다

그대가 있는 하늘이 아름다워 보여서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하늘이 참 좋소
내 여지껏 그대만 기다리다
이리 예쁜 하늘을 보지 못하였소

하늘이 당신만치 예쁜 것을 이제 알았소
내 당신을 괜히 기다린 듯싶소
오지도 않을 당신을 기다리다 하늘이라도 한 번 볼 걸 그랬소

무심한 하늘이 당신만을 보게 했소
무심한 하늘이 예쁜 당신만을 보라고
이리도 나를 기다리게 한 것 같소

내 이제야 하늘을 보오
당신이 있는 하늘을 이제야 보오
당신이 있는 곳이기에 당신만치 예쁜 하늘이 된 것 같소

내 이제야 그 하늘을 보오

내 돌아가는 그날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왜 지금 왔냐고
묻지 마시오

왜 이리 왔냐고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내 차디찬 곳에 담겨
나 그대에게 왔으니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소
미안하오 이 말도 직접할 수 없이
내 이리 왔소

묻지 마시오
왜 이리 늦게 왔냐고
어디 있다가 왔냐고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미안하오
나 이제 당신 마음 속에 묻힐테니

머언 발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함께 걸던 길을 혼자 걸었소
그대가 있던 자리에
향기만 남아

그대가 있던 내 손에
그리움만 묻어
그대를 기다리오

내 잡을 수 없어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어
그대에 머언 발치에서
향기를 날리오

선샤인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5 이준선

일년을 밟다 하시더니
이제야 예쁘다 하십니다
일년을 보지 아니하시더니
이제야 봐주십니다

이제와서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 곁을 떠난 저 젊은 여인은
상처만 보따리에 이고 갔습니다

일년만 더 빨리 예쁘다 하시며
일년만 더 빨리 봐주시면
안 되었습니까

이제야 해주십니다 야속하게

향기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내게 와서
좋은 향기를 내 코끝에서
이쪽으로, 다시 저쪽으로 풍겼다.

알뜰기도 하지
그 향기를 따라가 보면
너는 없고
오직 그 향기만 내 주위를 감싸는데

내게 모습을 보여다오
네 모습이 없을지라도
난 그 향기를 영원히 쫓으며 사랑할 거야

박하사탕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난 어릴 때 박하사탕이 너무 매워서
어른이 되면 잘 먹으리라 생각했었다
내 주위 모든 어른은
내가 좋아하는 딸기 맛, 오렌지 맛, 포도 맛 대신에
항상 박하 맛 사탕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어른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박하사탕이 너무 맵다.
박하사탕이 더 이상 맵지 않으면
그 맛을 즐길 수 있으면
난 어른이 되는 것일까

달은 알아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달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나를 봤을 때
내가 널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겠지
매일 달을 보며
너를 생각했으니

하늘

인문학부

20211052 오희주

어찌 그렇게 파랗고
어찌 그렇게 넓기도 하나
나는 그대를 닮고 싶어
나의 손을 뻗어본 시간 속에도
그대는 여전히 파랗고
그대는 여전히 넓었다.

비행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동박새의 복은 얼마나 되길래
겨울에 하늘을 가르는 은총을 가졌나
나도 찌꺼기를 해찰하는 흑심 없이
애타가는 동백꽃의 손을 잡고
이슬빛 약속을 속삭일 수 있으려나

희망의 가치를 감히 누가 정하겠느냐마는
내게는 불확실성만 확고하여
뜬 구름만 어썩죽지에 감아본다
동박새가 파아란 공중을 질주하면
떠오르는 커다란 비행기도 초라해진다
비행은 오직 「일상적 날갯짓의 향연」

날갯짓하기 상서로운 눈의 오후
어느샌가 나 또한
천사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
새라는 몽상에서
오랫동안 비행하고 있었음을

하루살이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나의 우울은 하루살이가 아니오
달의 요동(搖動)처럼 도망칠 수 없으니
낮선 이처럼 내칠 수도 없고
겁을 주기보다 휘청거리야
세상의 우울은 하루살이가 되오
반드시 오늘 죽어야
내일이 올 수 없지만
나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오
겁 없이 달의 요동(搖動)에서 휘청거리면
우울은 내게서 도망칠 수 없고
비로소 내일을 바라게 되지 않겠소
그러니 나의 우울은 고작 하루살이오

위로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구더기가 이 몸을 위로하네
이 하찮은 신체를 공경(恭敬)하여
뒤꿈치부터 기어와 낮을 살피고
심장의 동태(動態)를 친히 어루만지네

낮은 핏줄 보러오는 발걸음 하나 없는데
이 빈털터리인 내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몸 다 바쳐 영혼(靈魂)을 위로할까

자 나와 함께 환상의 파리로 가서
남들 머리 위로
활활 날자꾸나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파리의 날개로 함께 떠나자

남의 낮이 후회해도 자리에는
위로의 노래만 흐릿하게 남고
그 위로는
처량한 밥알만 떠다니네

상주실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몸이 검정색 실로 도배되는 날
실체가 국화로 상실되는 시
빛 나간 단 하나의 전등과
빛진 듯 달려오는 봉투들
상 주실 이의 실재는 무한한가요
십자가 초점이 빛나가 불신이

끔빱끔빱 딸깍딸깍

오 거룩한 밤 거룩한 이별

이 별은 실상 어디에 상주하는 것이며
주가 상실하는 주검의 차이는
천사들의 노래는 몇 번인가요

끔빱끔빱

향을 피우지 않아 눈물 없는 상

딸깍딸깍

우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검정과 감정이 뒤섞인 상정
죽은 자는 영생을
산 자는 죽음을 원하는
아이러니를 기꺼이 믿을 수 있나요

단지 하나의 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별이 되게 해주소서

오 거룩한 밤 거룩한 이별

외사랑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쉬이 식지 않는 새벽의 기운을 빌려
이렇게 고백하여 본다

어렴풋이 비쳐오는 너의 그림자 하나만으로
내 마음은 길을 잃어 방황하였다

갈 곳 몰라 헤매는 나의 눈동자는
그 와중에도 너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아름답고도 차가운 그 계절에
나는 너를 감히 사랑하였고

따뜻한 봄이었던 너는
그렇게 나에게 올 줄 몰랐다

나는 오늘도 널 위해 뿌린 눈물 한 줌으로
하루를 거두어 낸다

어떤 눈물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몸 안에 바다가 담겨
정수리 끝까지 차오른다

눈구멍을 열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새어
넘쳐흐른다

그래도 바다이기 때문에,
나를 가득 채운 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는 줄지 않는다

울컥거리며 쏟아지는 바다가 짜다

바다는 그 명이 다할 때까지
파도를 멈추지 않고 밀어낸다
바다의 명은 다할 리 없기에
그냥 그렇게 끝없이 철벽이고야 만다

나는 그저,
눈꺼풀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다

망월(렘 12:7-13)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잡아도 잡히지 않는
본래의 형체조차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붙잡고
주저앉아 운다
하염없이 운다
되돌아갈 길이 없어
지워진 채로
어느 방향으로 호선을 그려야 할지
알려주는 이 없는 공허를 향해
황망한 맘 그려쥐며 그저 운다
하염없이 운다

끝없이 긴 밤은
모든 별을 꾸역대며 삼켰으나
도로 토해낼 줄 모른다
욕심 많은 밤의 횡포에
그 어느 별 하나 빛을 내지 못하고
그저 잔다

내일

영어영문학과
20211224 오하영

내 두 눈을 뜰 때면
바다 같은 하늘과
황혼 같은 빛이
나를 감싸주길

멈출 것만 같았던
시곱바늘이
또 다른 나를 가리키며
다시 움직여주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내 심장이
따스한 손길 한 번에
붉은색으로 덮여주길

작은 씨앗을 품은 체
오늘을 버틴 나는
내일은 피어나길 바라며
눈을 감아본다

북두칠성

영어영문학과
20211224 오하영

너도 기억하니
하늘이 까맣게 변하면
서로의 등에 기대어
두 손을 꼭 잡고
별을 세던 그날을

너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보면
일곱 개의 별들이
반짝거리고
미소로 가득 찬 너의 얼굴을

너는 말했었지
내가 길을 잃을 때면
가장 빛나는 별이
내 눈을 밝혀주고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것을

만약 나의 무지함이
조금이라도 덜했더라면
너의 말들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울렸을까

너를 그리워하는 내 눈물이
너의 별을 가리킬 때면
그제서야 깨닫지
내 눈이 되어주고
내 발이 되어준 가장 빛나는 별을

가을바람

영어영문학과
20211224 오하영

청량한 하늘과 끈적임이 공존하던
여름의 끝이 다가오고
푸르던 잎들이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살랑이던
바람들이 거칠어지고
바닥에선 낙엽들이
소음 같은 노래로
귀에 울리는 계절

그 많던 낙엽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리저리 휩쓸리게 하는
폭풍 같은 소리에
저 멀리 날아가고 묻혔네

슬퍼할 새도 없이
눈물은 점점 단단해지고
한껏 뿔내던 나무들은
부끄러운 생각에
발가벗었네

그러나 아무리 차가운 마음도
열기는 남아있고
바람이 머물다 간
빈자리엔
새 생명이 또다시 피어나네

12월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운

코 끝에 몸을 비집는다

부비부비
쉽없는 파도가
이파리들이 떠민다

이리 저리 휘젓고 다니다

바람이 쓸고
그 물기를 가득 먹는다

사랑하는 나무는
스치고 휩쓸린다
저를 잃지 않는다

온전히
버티고 서있을 뿐

단풍으로 붉게
바람을 물들인다
그뿐이었다
그뿐이었다

한숨의 선내를
한가득
사랑한 거였다

오늘도 한 겹 한 겹 떨어진다

보듬어주는 그는
바람에 쇠어간다

비쩍 말라간다

나뭇가지에서
미끄럼탄다

시간의 꼭두각시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운

시간조차 지나간다

전애인은
항상 곁에 있어줬다

데칼코마니
시간이 억제된 구역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열심히 일한다

조금이라도 붙잡으려는
다급한 외침

어디에나 침투해 있다
살결이나 그런 데

밀쳐낸 것은 나다

혼자 할 수 있을 줄 믿었다

시간과 같은 속도로 발맞추기

영광의 흔적을 버린
나그네로 떠나야했다

활을 쏘듯 세밀한 눈초리
바늘 구멍에 몸을 넣는다

길고양이 영혼으로
으스스한 공간을 돌아다닌다

날 두고 떠나려 하고
다른 선물을 가져다 준다

시간은 거세게 뿔어진다
인연을 다 버린다
오로지 벗으로 삼는다

신발끈을 묶는다
날 기다린다

일직선이 아닌
흐르는 물결이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 없다

마음을 연다

시간을 사랑한다

시간의 꼭두각시다

무중력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윤

땅이 없음
지푸라기를 잡는다

발바닥을
누워서 다리 굽혀
침대에 댄다

감촉을 이젠 믿지 못한다

꼭 끌어안고
비집고 헤집고
물고 뜯어도
얇은 밧줄

툭

가장 위험한 일

낭떠러지에 기대
안전하다 느끼는 일

위대한 시인에게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어린 시인이 위대한 시인의 무덤에 찾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당신처럼 위대한 시를 쓰고 싶었으나
위대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까닭에
도통 시 쓰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덤은 대답이 없었다)

절절한 시를 쓰기 위해
가난을 흠치고 설움을 흠치고 불행을 흠쳐보았으나
나오는 것은 알팍한 시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덤은 대답이 없었다)

저의 알팍한 시는
저의 알팍한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러나 무덤은)

안락한 삶을 누린 것이 죄입니까?
행복하게 살아 너무도 불행합니다

(대답이 없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대답이 없었다)

어떤 증오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길을 가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 있길래
흠씬 두들겨 패주었다

고 녀석의 머리스타일이며 걸음걸이며
표정이며 하는 말이며
몽땅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 처맞았으면 다시는 그런 행색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으리라
흡족해하며 찌르르 아파오는 두 손을 털었을 때

사방에 널린 건 유리조각뿐이었다

구원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그 위대하신 신조차
전인류의 종교를 통합하지 못했고

그 위대하신 신의 말씀조차 잊어버리기에
경전들이 차고 넘치며

그 위대하신 신이 창조해낸 세상은
이리도 혼탁해지고 말았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갱생하겠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바꿔주겠다는 것

그게 얼마나 분수에 넘치는 일인지

발자국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너와 함께 걸을 때면 늘 너는 앞서 걸었다.
뒷모습만 보여주는 너의 발자국까지도 잃기 싫어
보고 또 보며 걸었다.

문득 앞을 보니 결국 넌 뒷모습만 보여주며 저만치 가버렸다.

봄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마음에 감정 한 줌 뿌렸더니
겁도 없이 사랑이 돌아왔다.
아, 우린 지금 그 위에 서있나보다

편지

미디어스쿨
20192546 박희주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중엔 내가 없겠지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당신입니다.
이렇게라도 제 일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주는 당신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비록 제 하루의 색이 우울이더라도 당신이 칠해줬기에 행복할 뿐입니다.

그 별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어둡기만한 밤 사이로
하나의 별이 나에게 닿는다

그 어떠한 별보다도 아름다운 그 별은
왜인지 눈물처럼 보인다

나의 슬픔을 받아준 그 별은
어쩌면 나의 마음을 보듬어줄 것 같다

별아,
너는 어찌 슬픈 것이냐

눈물을 머금은 그 별은
소리없이 나의 마음에
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별의 말에 답하듯
두손모아 빌었다

별아,
내일 태양이 뜨면 너도 사라지니
가는 길에
내 슬픔도 가져가주오

빛바랜 사진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어머니의 가게부 속
노오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어머니는
해맑게 웃고 있다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의 행복은
사라져버린 과거의 추억

빛바랜 사진,
빛바랜 어머니의 꿈,
빛바랜 어머니의 웃음,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꼬옥 잡은 채
안아드렸다

어머니의 빛바랜 웃음을
사진 속에서 꺼내
어머니의 마음에 넣어드렸다

행복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코로나로 힘든 지난날
어쩌면 당연해진 어두운 날들

그대에 어깨에는
어둡고 무겁기만한 고통을 메고

오늘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 사이로
하루를 시작한다

방긋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그대는 어디있는가

행복을 잃어버린
그대여

오늘은 이 위로가
그대의
마음에 따뜻한 손길이 되길

행복을 잊지마오
그대여

행복은 잠시 쉬는 것일뿐
그대의 마음 속에
잠시 숨어버린 것이니

행복할 날들이 기다리는
그대여
웃음을 잃지마오

선인장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가시를 돋치게 했지

난, 그 가시로
세상을 보고, 듣고
세상에 맞선다

온 마음이 가시투성이인 날

누가
좋아해 줄까

나는 누군가의 관심도
바라지 않기에

관심을 과하게 받으면
초록별로 가버릴까
언제나 사람을 피하는 날

누가
사랑해줄까

항성(恒星)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난 네 주위를 도는 떠돌이별
네게 다가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네 주위를 맴돌며 너를 지켜보는 일

넌 내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지만
난 네게 다가갈 수 없어

왜냐면—

찬란히 빛나는 네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날개를 잃은 이카로스처럼
난 너를 탐한 죄로 타들어 가며
끝내 추락하고 말 거야

찬란히 빛나는 네가
내게 가까워지는 날
난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타버리고
넌 끝내 죽음을 맞이하겠지

그래서 너와 난
가까워질 수 없어

영원히—.

무제(無題)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그 말에

명을 다해버린 그대가
혹시나 별이 되어있을까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명 다한 타인들의 그대가
너무 많아

밤을 새워서
별을 다 헤이더라도
나의 그대를 못 찾을 거 같아
눈물만 흘린다

사랑 : 네온사인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유리관에 넣는 기체마다
색이 달라지는
네온사인—

내 마음에 네 마음을 불어넣으면
네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내 마음의 빛깔

네 마음에 내 마음을 불어넣으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네 마음의 빛깔

각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발하는
우리의 네온사인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무너지면
을씨년스럽게
'지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져 꺾이는
도시의 네온사인같이

우리의 네온사인도 명멸하며
너, 나 서로의 마음이
폐허처럼 황량해지겠지.

環. 1

철학전공
20181104 조은지

고불고불한 선 아래
곱게 드리운 퍼런 놀

고쳐 잡은 그리움 너머
뽕그랑 기꺼이 쌓이는 말의 더께

올려다 본 불그스름한 온점 곁에
오래도록 머물 초록 빛.
다음 생에 만나요, 우리

밭은 걸 땅아 총총 수놓은
둥그런 숨, 반.
저편에서 기다릴게
괘도 따라 가만히 끌어안은 고리, 하나

그해 겨울

철학전공
20181104 조은지

날이 쌀쌀해지면
넌 꼭 여름 옷을 가져다주곤 했지
검정 브로치가 달린 반팔 카라티부터 구멍이 숭숭 뚫린 빛바랜 청바지, 꾸깃꾸깃 구겨져 버스럭 거리는 얇은 점퍼, 챙이 넓은 밀짚 모자까지...
어디서 촌시런 것들을 잘도 구해왔다, 구박하면
너는 두손을 꼬옥 맞잡으며 말했어
겨울은 밤이 길어 싫고 여름은 쓸쓸해서 싫다며
그래도 계절옷 맞춰 입는 건 좋아하잖아
우스운 것도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 옷을 때마다 실은 알고 있었어
가만가만 서로의 그늘을 마주 안을 때마다
고요히 속삭인 그 울음을
다음 해 그때까진 꼭 살아 있으라고
계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살자고

산책

철학전공

20181104 조은지

빙빙 돌아 기어코 여까지 왔구나
한 마을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런 날도 있지
변진 기억 곳곳이 후회가 흐트러진 곳
아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영금영금 붙드는 그곳에

물때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잠깐 잊은 사이에
자주 들여다보지 않은 만큼
고이고 고여
생긴 저 얼룩은 언제 사라지나
모른 척해 봐도 눈 감아봐도
벗겨낼 수 없는 내 안의 눈물자국은 누가 지워주나
뒹아내도 뒤돌면 생기는 신비는 마법인가 마음인가

미소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환하게 웃어보세요!”
웃는 게 뭐였지
아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거
입술의 주름들이 퍼질 정도로
(핑...터지는 셔터)
“부족해요. 눈까지 웃어요.”
눈은 어떻게 웃지
반달로
광대와 눈 끝이 닿을 정도로 눈꼬리가 휘어지게
행복해 보이냐
거짓된 웃음 알아차릴
단 한 사람
수십 억 인구 중 나만 아는 비밀
같은 사실

<소설 부문>

비오는 날

인문학부

20211088 정수민

반 책상에 엎드려서 미동도 없이 조용히 자던 나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식은땀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벌써 모든 수업이 다 끝난 시간. 반 친구들이 모두 각자 집으로 가 적막한 교실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 뼈근해진 몸을 우두둑 스트레칭을 했다. 굳었던 허리를 돌리며 공허한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언제나 친구들의 말소리로 북적거리던 공간. 나는 교실에 혼자 남아있는 건 처음이라 왠지 모를 어색함에 크흠 헛기침했다.

‘너 하도 안 일어나길래 나 먼저 갈게. 일어나면 꼭 연락하고.’

내 짝꿍이자 제일 친한 친구 혜연이의 메모였다.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을 뜯어 뭉툭한 연필로 눌러쓰고 있는 혜연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다.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친구. 내가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 친구. 책상 위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곱게 접어 교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주르륵. 갑자기 흐려진 하늘을 뚫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거세진 빗줄기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음침하게 만들었다. 나는 책상에 볼품없이 놓여있는 가방 속을 뒤졌다. 오늘 아침에 우산을 챙겼었나. 빈 교실에 다급하게 가방 지퍼를 여닫는 소리가 가득 찼다.

“제길, 없잖아.”

나는 신발장 옆 우산꽃이에 그대로 꽂혀있던 노란색 우산을 생각해냈다. 열심히 가방을 뒤지던 손을 멈추고 창문 밖 하염없이 떨어지는 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창문을 열어 빗줄기 속으로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움푹 파인 손금으로 모여 웅덩이를 만들었고, 또다시 바닥을 향해 주르륵 흘러 내려갔다.

‘띠리리리링’

한참을 멍때린 채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요란하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물기가 가득한 손은 대충 옷으로 슬쩍 닦아내고 가방 옆 주머니에서 진동과 함께 울리던 핸드폰을 재빠르게 꺼내 발신자를 확인했다. 혜연이었다. 아 맞다. 일어나면 연락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잊고 있었다. 여전히 울리고 있는 그녀의 전화를 빠르게 받았다.

“미안. 아까 깰었는데 깜박하고 전화를 못 했네.. 하하....”

“흠 아직도 빈 교실에서 자는 줄 알았잖아.”

“미안 미안 이제 갈 준비 중이야.”

“응 조심히 들어가!”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당당한 혜연이는 항상 부러운 친구였다. 나는 어릴 적 받은 충격으로 쉽게 맘을 열지 못하는 마음이 닫힌 아이였다. 그런 나와 다르게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친구가 바로 혜연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청소 시간에 나는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었다. 요란하게 쏟아져 나오는 수도물에 조심스럽게 대걸레를 빨던 도중에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이거 봐 이쁘지? 엄마가 사주셨다.~”

엄마. 이 두 글자를 입에 올린 지 몇 년이 되었을까. 푸른 잔디로 가득 찬 공원을 힘차게 뛰어다니던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못 봤으니까. 아니, 볼 수 없었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엄마와 함께 만든 김밥 도시락을 챙기고 집 근처 공원에 소풍을 나왔었다. 김밥 안에 오동통한 소시지도 넣고 냄새가 기가 막히는 소고기도 넣었기에 더욱 즐거운 소풍이 될 것 같아 잔뜩 기대한 상태였다. 한 손에는 노란 도시락통을, 남은 한 손에는 부드러운 엄마 손을 잡고 달처럼 둥글게 웃었다.

바람에 산들거리는 풀도 보고, 양 볼 가득히 김밥도 맛있게 먹으며 영원할 줄만 알았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뿐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비가 쏟아졌다. 돗자리 위에 점점 물웅덩이가 생기고 엄마와 나는 헐레벌떡 짐을 챙겼다. 들떴던 마음에 일기예보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흠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주변 소리까지 먹어버렸다. 우산도 없이 물에 빠진 생쥐 꼴로 엄마의 뒤를 졸졸 따라갈 뿐이었다. 왜 이날따라 비가 많이 온 건지, 도로에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들도 위태롭게 버둥거렸다. 신호를 기다리던 엄마와 나는 파란불이 되자마자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넜다. 대구루루. 도시락과 함께 챙겼던 동그란 사과가 엄마의 손에서 미끈거리며 떨어졌다. 나를 먼저 반대편 인도로 보내고 굴러가는 사과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반짝거리는 빛과 함께 달려온 차를 보지도 못한 채로.

멍때리며 대걸레를 빨고 나는 한숨을 푹푹 쉬며 교실 바닥을 힘없이 닦았다. 순간 왼쪽 볼이 따갑도록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3명의 친구는 손에 빗자루 대신 핸드폰을 들고 은근슬쩍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3명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지만 애써 그 시선을 피했다. 콧방귀 소리가 커지면서 나를 향한 비웃음처럼 들렸지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한 채로 내가 맡은 임무에 집중했다.

“야, 너 엄마 없다며.”

심장이 쿵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눈동자에 초점이 희미해지고 대걸레를 잡고 있던 손가락의 힘이 풀렸다. 미세하게 떨며 그 목소리를 향해서 쳐다보았다. 악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광대로 올라간 입꼬리가 이렇게나 소름이 끼칠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안 걸까. 분명히 내게는 잘못이 없다. 근데 왜 이리 두려운 건지. 그 아이는 별별 떨고 있는 나를 보며 픽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한 발짝 두 발짝. 어느새 내 앞까지 다가왔다. 두려움 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다.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당장이라도 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너의 약점을 알아버렸다는 거야 큼.”

어떻게 약점이라고 말을 하는 건가. 정신적으로 버티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내 아픔을 이렇게나 들쑤시다니. 온몸에 뜨거운 무언가가 샘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눈동자에 눈물이 차올랐다. 눈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물방울에 괜히 더 마음이 아팠다.

“남의 아픔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순간에 들려온 말. 혜연이었다. 그녀의 짧지만 당찬 말에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었지만, 나의 울적함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었다. 그녀의 말에 주동자 3명은 사나운 눈빛을 지닌 채 뭐라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입술을 짓누르며 우물쭈물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주눅이 든 개처럼 보였다. 혜연이는 비틀거리고 있던 나를 붙잡았다.

“괜찮아?”

“..”

“끼어든 건 미안해. 편이 되어주고 싶어서...”

“동정하지 마.”

여전히 맺혀있던 눈물을 손으로 빠르게 훔쳐내고 내 남아빠진 실내화를 질질 끌며 교실에서 벗어났다. 끝이 없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나와 상관없이 들리는 대화들을 뒤로한 채 서글픈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우르르 쿵쿵. 거대한 천둥소리와 함께 비가 세차게 내렸다. 계속해서 쌓아온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하듯이,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다. 나약한 인간이 되서는 안 되었기에.

속으로는 사실 고마웠다. 순식간에 휘몰아치는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었던 내게 유일한 빛처럼 보였다. 그녀가 별 생각 없이 나를 도와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슬픈 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나는 비 오는 날이 싫었다. 비가 오면 유독 힘이 들고,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겼다. 그저 기분 탓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 기분이 참 더러웠다. 태양이 하늘 높게 뜨고 아주 화창했던 날씨가 한순간에 빗줄기로 가득 차면 행복함을 불행이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것 같았다. 물론 내가 겪기도 했고.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나는 치마 옆 주머니에 있던 이어폰을 꺼내 귀를 틀어막았다. 한쪽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이어폰으로 애써 귀를 막아보았다.

“무슨 노래 들어?”

굳게 막혀있던 귀에서 이어폰이 뚝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허전한 왼쪽 귀를 만지며 쳐다보니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혜연이가 있었다. 나에게서 가져간 이어폰을 자신의 귀에 꽂았다. 잠시 감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에이~ 안 듣고 있었네.”

혜연이 다시 이어폰을 나에게 돌려주곤 말했다.

“동정하는 거 아니야.”

나와 마주친 혜연이의 눈동자는 누구보다 굳건하고 단단했다. 말 없는 눈 마주침과 함께 그녀는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너무 힘들었던 탓에 혜연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질질 끌려다닌 지 몇 분이 흘렀을까 빈 교실 문을 연 그녀는 빈 책상에 살짝 걸터앉은 후, 헛기침과 함께 입을 열었다. 혜연이는 할머니와 살고 있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항상 들었던 말이 “힘든 친구가 있으면 돕고 베풀어라.”라고 했고, 뇌에 박힐 정도로 매일같이 들어온 말이라서 그녀 또한 당연하게 수행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나를 도와준 이유이기도 했다. 그저 자신의 진심을 전해주고 싶어 속에서 꺼낸 이야기였다.

“슬프면 울어.”

“그렇지만...”

“아까부터 눈물 대롱대롱 매달고 참기만 할래~?”

순간 눈에 맺혀있기만 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정말 슬펐다. 평소에 나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에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혜연이는 미세하게 떨리는 내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처음이었다. 엄마가 떠난 이후에 이렇게 서글픈 감정을 외부로 표현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속 응어리를 해치는 것처럼 조금 후련함이 들었다. 내 울음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혜연이에게도 정말 고마웠다.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다.

“고마워 진심으로.”

“위로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미소를 짓는 혜연이의 모습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마음에 품고 있던 한 마디를 고민하다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는 말했다.

“내 친구가 되어줄래?”

혜연은 자신을 향해 뻗어진 내 손을 맞잡고 답했다.

“그래!”

그렇게 나와 혜연이의 우정이 시작되었고 점차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이 공부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이이다.

혜연과의 통화로 추억을 회상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비가 오고 있는 창문 밖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는 한숨을 훅 내쉬었다. 비는 도저히 그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냥 맞고 가자.”

책 가득 든 가방을 메고 우산 없이 빗속으로 들어갔다. 머리로 옷도 가방도 신발도 점점 축축해졌다. 혜연이의 쪽지는 이미 맥 없이 너털너털해졌지만 더 이상 젖지 않도록 애써 쪽지를 넣어둔 주머니를 손으로 감쌌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끊임없이 내렸다. 나는 묵묵히 비를 맞으며 생각했다. 나는 비 오는 날에 엄마를 잃었다. 나는 비 오는 날에 친구를 얻었다. 우정으로 아픈 마음을 치유하려 했으나 그래도 아픔은 남아있었다. 가족에 대한 아픔을 친구로 채울 순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리고 있는 비를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툭툭 빗방울이 손바닥을 때렸다. 따뜻한 물방울이.

A의 세계

사회학과
20212221 안선우

1.

이 세계는 으레 그랬다. 사람들은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마구잡이로 쑤여 정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파일처럼 얹히고설킨 관계를 건디지 못했다. 남은 것은 잘 버려진 칼끝에 맏히는 불빛처럼 번들거리는 욕망뿐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매끄럽게 덜컹거리며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지하철 속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했다. 스마트폰, 그리고 그 속의 웹툰, 쇼핑몰, 시답잖은 수다를 떨기 위한 문자, 삶의 빛나는 부분을 톡 떼어 모아둔 SNS. 목적은커녕 방향조차 없었으나 과시와 물욕으로 점철되어 번득이는 눈빛을 할 뿐이다. A는 그 모든 풍경이 지독하리만큼 익숙했다.

이번 역은 봉의, 봉의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으로, 봉의 시장으로 가시는 승객분들은 1번 출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This station is Bongui……. 건조함이 살점을 저미는 것 같아 진저리를 칠 때 즈음이 되어서야 A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흐린 날이다. 녹진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겨울의 찬 바람이 아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점을 저몄다. A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헛구역질을 옥여넣으며 시장으로 향했다. 그가 장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에 익숙해지더라도, 이 세상의 시장만큼은 평생토록 익숙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눈 팝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눈이 한 쌍에 단돈 만 원!”

“식도부터 소장까지 떨어입니다, 떨어~!”

“체육 고등학교 학생 뒹다릿살이 아주 싱싱해요!”

“이봐, 거기 청년! 장 보러 왔어? 싸게 해줄게, 응?”

장사치와 눈이 마주친 A는 억지로 웃었다. 감정적인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연민은 사치요 도덕은 무가치인 세상이다. 모두가 미친 세상 속이라면 정상인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하던가. A는 돌출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이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만 했다.

“혹시 돼지는 없나요? 뒹다리로요. 김치찌개에 넣으려고요.”

“뒹다릿살이면 사람이 더 싼데? 요즘 사람 김치찌개가 인기가 많아, 기름이 나와도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단나?”

장사치가 플라스틱 용기 위에 가지런히 잘려 랩으로 둘둘 싼 고깃덩어리를 내민다. 바코드와 함께 붙은 가격표에는 어김없이 사람의 신상이 적혔다. 스물둘, 남성, AB형, 178cm에 82kg, A+. A는 멋대로 남자 하나를 상상한다. 고기 등급을 몸에 찍고 공장 안에 들어가 토막 나는 남자를. 속이 메스거린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삶이라며 인간의 본성을 이성으로 포장하는 세상이 역겨웠다.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게 헛구역질한 A는 머쓱하게 웃으며 뭐라도 돌려대긴 하지만, 장사치는 이질감을 낚아챈 지 오래다.

“하하, 아뇨… 제 입맛이 싸구려인지 돼지가 더 맛있어서요.”

“에잉, 자네도 무슨 인권 운동… 그런 거 하나? 돈 앞에선 장사 없어, 어차피 다 같은 고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장사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돼지고기 두 근을 봉지에 철벽 넣어 매듭을 묶어 건넨다. 완전히 빠지지 않

은 핏물이 봉지 아래에 맺힌다. A는 검은 봉지를 들고 지하철에 다시 몸을 맡긴다.

2.

청량한 알람음이 귓가를 때렸다. 더듬더듬 머리맡에서 울리는 알람을 손가락을 밀어 끄자 이번에는 매미우는 소리가 A를 괴롭혔다. 한여름의 매미는 언젠가 어스름한 새벽녘부터 울기 시작했다. 왜더라. 지구를 점점 덮히고 있는 열기 때문이라고 떠들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A는 귀를 틀어막아 소음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쥐었던 베개를 침대 한구석에 박아넣듯이 던졌다.

달라진 점은 없을지도 모른다. 으스스한 서울 한구석 달동네에 맞게 사람 하나 겨우 몸을 의탁하고 있는 행한 방도, 임용고시에 합격했는데도 갈 만한 학교—굳이 따지자면 능력의 문제였지만—가 없어 이사장에게 값비싼 차를 한 대 뽑아주곤 겨우 한 자리 차지하게 된 윤리 선생 자리도, 비루하다 못해 당장이라도 고독사한다 한들 아무도 찾지 않을 것만 같은 무력감도. 부스스한 머리를 대강 정리한 A는 소분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돼지고기를 꺼냈다. 살얼음이 봉지 겉에서 바스락거리며 액화한다. 해동 전의 고기는 질기지 않아 써는 맛이 있었다. 주방 모서리 타일에 식칼을 두어 번 그어 날을 버린 다음 쫄쫄 흐르는 물에 행궜다. 방금 꺼낸 고기는 얼음처럼 딱딱했지만 곧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알았다.

아니, 멸절한 돼지고기를 두고 무슨 사람을 먹어, 사람을? 자고 일어났더니 세계 모든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 세상에서 눈을 뜬 것도 벌써 한 달째다. 아직도 이런 거지 같은 세계에서 눈을 뜬 첫날을 잊지 못한다. 여느 때처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덜컹거리는 버스 속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스쳤던 사람 고기 세일 행사 포스터. 그때까지는 무슨 이벤트라도 하는 줄 알았다. 아! 뭐야, 베일 뻘했네. A는 한 줄로 길게 썬 돼지고기를 반 바퀴 돌려 조각낸다. 상온의 온도에 불박여 걸만 흐물거리는 고기가 도마 위에서 치덕거린다. 썰어낸 고기를 도마 한쪽으로 밀어낸 뒤 김치를 꺼내 썬다. 그래, 스멜스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던 건 역시 1교시 수업을 들어가기 전이었다. 그날 A의 수업 계획은 피터 싱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으나 교과서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부분이 모조리 사라져버린 것이다! 칸트, 아퀴나스, 스피노자, 아우구스티누스, 벤담, 밀. 모두 멸절한데 피터 싱어만 없잖아. 이게 뭐야? 분명 평화의 윤리 부분에서 로크와 함께 나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더군다나 그 자리를 식민주의가 꿰차고 있으니 이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는가.

“김 선생님, 혹시 제 교과서 만지셨어요?”

“뭘데요?”

“표지는 같은데 내용이 이상해서요. 식민주의의 역사, 고기에 대한 윤리적 책임… 만우절 장난…은 아닐 테고. 학생들 제 자리에 온 적 있나요?”

“A 쌤, 저번에 거기 수행평가 범위라고 시험지도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제가 메일 깜빡하고 안 보냈다고 장난치시는 거죠, 안 믿어요. 이제 종 칠 시간이니까 미리 가 볼게요? 2반 수업인데 애들한테 공지할 것도 있어서.”

그때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다. A는 김치국물 묻은 손으로 두 눈을 꺾꺾 누르려다 멈춘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곤 김치를 볶다가 한숨을 푹 쉬었다. 붉은 김치를 보자 A의 반 반장이 입었던 붉은 옷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반장, 오늘 3반 애들한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보충 시간에 보자고 전해줄래?”

“네? 쌤, 저희 애들 지금 다 생운 공부 중이에요! 안 오셔서 모시러 온 건데요.”

“내가 저번에 애들한테 뭐라고 했지? 오늘 3교시에 수행이라고?”

“네... 빨리 끝내자고 난리예요.”

“그래, 알겠어. 먼저 가 있을래? 학습지 가지고 갈 테니까.”

분명 학습지를 만든 기억도 없고, 수행평가 공지의 기억도 없었다. 기억이 뚝 떨어져 나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책상 위에는 프린트한 수행평가 학습지가 있었다. 그래, 이건 꿈속이 틀림없다. 자아가 구속되어 일어나는 물지각적 재앙인 꿈. 학습지를 집어 들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임을 눈으로는 알아챌 수 있어도 머리로 받아들이긴 어려웠다. 그야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었으니까!

[생활과 윤리 1차 수행평가]

1) 식민주의는 먼 과거부터 부족한 동물 고기를 대체하여 영양소를 보충하는 수단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식량난과 인구 과다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모범 답안] O

2) 식인을 위한 고기 거래가 예외적으로 금지될 때 적용되는 법률의 기반을 처음 제안한 사상가의 주장과 해당 법률에 관해 서술하시오.

[모범 답안] 식인을 위한 고기 유통 및 관리에 대한 법률. 해당 법률은 인간을 사육장에 가둬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법률은 인간에게는 천부인권이 있어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존 도우의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당사자의 동의 외에는 동물의 도축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식인을 위한 고기 도축 세부 규정을 서술하시오.

[모범 답안] 첫째, 당사자와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계류 시설은 인원당 적정 밀도를 충족하고, 적절한 수의 인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식이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도축해서는 안 된다. ... (중략) ... 여섯째, 모든 절차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A는 작게 욕지거리를 내뿔었다. 언젠가 깎 지독한 악몽일 줄 알았는데 주방에서 김치찌개나 끓이고 있는 모습이라니. 결국 그 빌어먹을 학습지를 가지고 가서 수행평가를 친 것까지 구역질이 났다.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도, 그리고 그 세상에 순응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도. 기름과 김치가 뒤섞여 군침도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나서야 흥미하던 정신을 다잡는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취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만둘 순 없다. 서서히 응고되는 의지는 A를 움직인다. 냄비에 물을 부어 끓이고, 목표 없는 원망이라도 하듯 고기를 신경질적으로 냄비에 집어넣는다. 냄비 속의 파동이 끊임없이 A의 박탈감을 건드리던 때에도 고기는 멈추지 않고 바글바글 끓어올랐다. A는 이 세계가 참임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니, 삶을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를 증명했으므로.

3.

“네, 어머님. 그러니까… 아이를 판매하고 싶으시다고요.”

A는 안경을 올려 눈두덩이를 괜히 꺾꺾 눌렀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일 년에 한두 번은 있다던 학생 판매가 하필 제게 일어날 일일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A는 책상 구석에 놓인 팸플릿을 펼친다. 「학생 판매 방법」. 복잡하지 않은 절차와 단순 서류만이 요구되는, 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정책. A의 앞에 앉은 여성이 의아하다는 듯 말한다.

“예, 아 동의도 받았으니 된 거 아닙니까?”

“여기 팸플릿에도 나와 있듯 일단 담임인 저랑 아이가 면담을 마쳐야 하고요…… 혹시 목적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 작성 시에 필요해서요.”

“뭐 중요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내 이 한 몸 먹고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마 아까지 둘이나 있으니까 죽겠어서 그러합니다.”

“그럼 생활비 때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적으쇼. 손상님 편한 대로 하고 값만 잘 쳐주면 내 소원이 없으께.”

젠장, 젠장! 돈이 없어 자식까지 팔아먹는 게 말이 되는가. 며칠 전 김 선생의 말을 들었는데 목적조차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단다.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인신매매라니. A는 다시금 눈을 꺾꺾 누르다가 타자기에 손을 올렸다. 학부모가 다시 A를 부른다.

“혹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들어보니 뇌도 비싸게 팔린다카던데…”

“뇌요?”

“거 종이에 뭐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부위가 뇌 아니라?”

“잠깐만요…”

A가 마우스를 딸각이며 서류를 컴퓨터 화면에 띄운다.

“뇌, 뇌… 아. 비싸게 팔리긴 하는데…”

꼭 자식을 그렇게까지 팔고 싶으신가요? 하는 물음이 목젢까지 튀어나왔다. 흐려진 말끝은 쉽게 뚜렷해지지 않았다. 교무실을 어색한 침묵이 가득 채운다.

“요즘 뇌 공급량이 워낙에 많아져서 웬만한 품질로는 안 팔리는 부위일 텐데… A쌤, 그 학생 등급 확인해 봐요. 어머님도 알 건 아셔야죠. 아님 A쌤 요즘 정신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맡아서 해드려요?”

김 선생이 암전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끼어들었다. 눈을 반짝거리며 A의 곁으로 다가온다. 보나마나 또 실적이라도 쌓으려는 거겠지. A는 생각한다. 어차피 학생을 살릴 수는 없다. 실재와 유리된 존재는 출처조차 되지 못하므로. 그렇다면 어차피 다난한 인생,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럼 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자료 좀 바로 보내주시고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설명 필요하시죠?”

“잘해주는 거 맞죠? 내 쌤들만 믿어요, 살기가 힘들어 죽겠어.”

“당연하죠. 이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요.”

눈을 감고 등받이에 등을 기댄다. 중고로 구매한 탓에 녹슬어 있던 등받이가 끼익 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울어진다. 김 선생이 그 소리를 들곤 A쌤, 자료요. 하고 작게 말한다. A는 퍼뜩 눈을 뜨곤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신체검사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전달한다. 김 선생은 모니터에 눈을 붙박곤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A쌤이 보내주신 자료거든요, 이게. 근데 학생 종합 등급이 C라서 뇌는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입

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A등급부터 받거든요. 쿠루병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규제가 심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높으신 분들은 더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럼 다른 부위는 다 해서 얼마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예.”

“저번 신체검사에서 유연성이 높게 나온 걸 보니... 이걸 활용하면 삼천은 될 것 같아요.”

“저 옆 학교 다른 아는 오천이라던데 어떻게 조금만 더 안됩니까?”

이건 인신매매가 아니다, 이건 인신매매가 아니다. 속으로 속삭인다. 김 선생님은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어머니.”

입을 떼는 모습이 대학 입학 상담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을 팔아넘기면서 최선을 이야기한다. 간결성과 단순성, 욕망과 돈, 그런데도 분명한 죽음. A는 자신이 모두가 기피하는 부유물이 된 것만 같다고 느꼈다. A는 그 학부모가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그런 것임을 알고 있었을까. 학부모는 돈을 보태 용자를 갖고 새집으로 이사할 날만을 고대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A가 진실을 알아낼 방법은 없다. 사실을 알더라도 금일 A가 화장실에서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일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4.

학생 하나를 팔았다. 신상만을 아는 것이 아닌, 얼굴도, 목소리도, 성격도 알고 있는 학생을.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곧 죽겠다는데 막지 못했다. A는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찾았다. 본가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가졌던 유일한 취미가 TV를 보며 빈둥거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의식을 맡기고 목적 없이 무질서의 바다 아래 침전하면 가졌던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빼적거리는 매트리스가 올라간 침대와 그나마 번듯한 책상, 귀퉁이 냄새가 나는 옷장을 비롯하여 필요한 것들을 모두 쫓겨 나가 버린 방은 무언가를 더 들일 여력이 없었다. 그래, 인정하도록 하자. 아무리 달동네의 낡아빠진 아파트라고 해도 TV 하나를 들일 자리는 있었으나, A는 쓸만한 TV를 들일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력감을 달래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들어 둔 수다 방에나 들어간다.

[야 니네 뭐함? 많이 바쁨? ㅋㅋㅋㅋ]

[야 니]

[]

[애들아 주말에]

[애들아 너희 많이 바빠?]

[]

메시지 입력 창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는 것이 몇 번, A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던진다. 다들 내세운 프로필 사진이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찍은 것이기 때문이다. 투명한 케이스를 씌워 둔 휴대폰은 멀리 가지 않아 뭉툭한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부딪힌다. 흰 의자를 끌어다가 앉는다. 책상 위에 어중간하게 닫힐락 말락 한 개인용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켜자 조용한 방 속 쿨러 돌아가는 소리가 부산하다. A는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의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켜다. 웃음이 약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동영상을 찾아보며 웃었다.

한참을 웃으며 다음 동영상 고르려던 차례였다. 추천 동영상에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가 보였다. 맛있겠네. A는 흘린 듯이 동영상을 클릭했다. 재료가 20만 원이 든 고급 스테이크라는 제목이 꽤 자극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기 요리하는 인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장에서 요청이 많았던 보디빌더 허벅지를 공수해왔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죠? 후기까지 야무지게 남겨보겠습니다!”

평범한 고기 이야기인 줄 알았으나 다음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하지만 랩에 잘 싸진 고기는 돼지와 다름없었다. 고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니 동영상은 이미 경매장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바글바글한 사람과 잘 포장된 고기들. 인간의 형상을 하기보다는 소와 돼지처럼 불긋하였으며 마블링이 강조되었다. 경매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몇 조각 잘려 스티로폼 팩 위에 포장된 고기 한 팩을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아이스박스 위에 있었던 탕에 얼음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자~ 다음은 허벅지살입니다! 봉공근과 대퇴사두근이 적은 지방과 잘 어우러져 담백합니다! 여기 마블링 보이시죠? 오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경매장 영상은 몇 배속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고기를 사서 집에 도착한 영상 속 사람은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뿌리곤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버터와 허브를 잔뜩 끼얹은 고기는 다른 스테이크와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었다. A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학교 식단표를 빠르게 확인했다. 사람, 사람…. 어제 먹은 탕수육 이름에 사람이 적혀있는 것을 봤다. A는 헛구역질했다. 몇 번이고 헛구역질했지만 먹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절망적이다. 도망치고 싶었다. 살았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걱정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선생님, 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인간으로 살겠어요?”

“어차피 전 삼천일 거예요. 평생. 그럴 바에는 도움이라도 되는 게 나올 거라고요.”

상담했을 적의 학생의 목소리가 귓가를 들린다. 나지막한 목소리는 비난으로 변한다.

“선생님이 절 죽인 거예요.”

“선생님만 없었으면 살 수도 있었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다고. 정말요? 그럼, 정말. 정말이야. 이러려던 게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제발 믿어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니? 선생님도 똑같이 느껴 보세요. 제 심정을요. 용서해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건 너도 알잖아? 나는 인간이야…… 인간이란 말이야……. A가 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 날 아침 학교에 퇴사 연락을 한 뒤였다.

5.

길거리에 나올 때마다 의수와 의족을 한 사람들이 보였다. 안대를 쓴 사람도 많았다. 다리 하나를 통째로 의족으로 바꾼 사람도 있었다. 소개팅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가 얼마에 팔렸는지 어필해야 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고기 영상을 본 이후로 연관 동영상에는 늘 고기와 관련된 영상이 보였다. 손 모델이 자신의 손에 어떻게 값이 매겨졌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는 거친 발을 돈으로써 뿔뿔했다. A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던 중 팔 한쪽이 완전히 의수로 교체된 사람과 눈이 마주치곤 시선을 피했다.

딸랑,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 면접 보러 오신 A씨신가요? 안녕하세요, 이 식당 매니저입니다.”

“네, A라고 합니다. 이력서부터 드릴까요?”

매니저는 A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 훑곤 이력서를 받았다.

“손이나 발 가격이… 공란이네요? 가격 검증 안 받으셨나 봐요?”

“아, 네…….”

“받을 생각은 없고요?”

하하, A가 머쓱하게 대답을 피한다. 매니저가 덧붙인다. 죄송하지만 저흰 굳이 팔지 않으시더라도 검증 받은 분들 중에서 뽑거든요. 왜냐면… 진짜 ‘장애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가짜가 아니라. 의수도 의족도 진짜들이 쓸 때보다 저희가 쓰기 시작하니 좋은 품질이 된 건 부정 못 하잖아요. 그만큼 저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A가 머리를 굴적이다가 꾸벅 인사한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다. 매니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A를 바라보았으나 다시 카운터에 집중한다. 아뇨, 미리 고지하지 않아서 저희가 더 죄송하죠.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오고 딸랑, 문 위의 방울 소리가 놀리듯 귓가에 꽂힌다. 남은 돈이 얼마였더라. 다음 월세를 내고 나면 월 사 먹을 돈도 없을 테다. 삼각김밥이라도 사서 들어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경력을 내세우면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 근처의 편의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딸랑, 편의점 냉장고 근처의 냉기가 열띤 피부를 식혔다.

“앵? 저거 A 쌤 아냐?”

“대박, 진짜 쌤인데? 쌤!! 학교 왜 관뒀어요?”

학생 두 명이 가방을 메곤 A에게 달려온다. A는 익숙한 목소리에 반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한 학생의 왼손이 어색했다. 멀뚱한 손가락과 피부처럼 보였지만 이질감이 들었다. 마치 부유물처럼.

“너, 손이…”

A가 그 손을 잡았다. 딱딱했다. 피부와 비슷한 감촉이었으나 진짜 피부가 될 수는 없는 감촉이다. 멍하니 딱딱하고 차가운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다른 학생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쌤, 재 삼천이예요! 어병한 표정으로 학생을 바라본다. 삼천이라고? 뭐가? 그야 당연히 쌤이 잡은 그 손이죠. 전 에이쁠이구요. 찼죠? 네? 자신의 신체에 값을 매겨놓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은 누구보다 자랑스럽다는 듯 이야기했다. 당장이라도 신발과 양말을 벗고 제 발을 보여주려는 모습에 A는 학생을 말렸다.

“뻘이잖아, 그래도. 잘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쌤, 왜 에이쁠인지 안 궁금하세요? 저 무용 하는 건 아시죠? 근데 무용하는 발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갔더니 발이 예쁜 편이라고 비싸게 팔릴 수 있다는 거 있죠!”

학생이 눈을 반짝거리며 A를 바라본다. A는 학생의 눈을 멍하니 응시한다. 그 눈에는 열망이 담겼다. 돈을 향한 열망. 높은 가격이 자신을 증명한다는 자부심이.

“근데요, 쌤. 쌤은 가격 매겼어요? 아직 아니죠? 그럼 혹시 저희한테 팔지 않으실래요?”

“맞아, 맞아! 저희가 요즘에 고기를 즐겨 먹는데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팔아서 고민이에요. 이게 은근히 중독되는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싸구려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없고…. 가격 안 매겼으면 취직도 못 하잖아요. 저희가 가격 좀 세게 쳐 드릴게요. 네? 네?”

A는 여느 때처럼 머쓱하게 웃는다. 손을 팔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발을 팔 생각? 그딴 것도 없다. 글썄,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가려던 A의 손을 왼손이 없는 학생이 덥석 잡았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다.

“선생님~. 제발요~.”

“쌤은 지금까지 손이랑 발 아무것도 안 파셨으니까 높게 쳐 드릴게요. 네? 그럼 반년 정도 살 생활비는 나을 거잖아요~.”

A는 이 상황을 더 견딜 수가 없었다. 학생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곤 편의점을 뛰쳐나온다. 하염없이 뛰는 A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훑는다. 더 뛰지 못해 숨을 고르는 모습을 다른 이들이 뚫어져라 쳐다본다.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본다고보다는 A의 몸뚱아리를 본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설익은 죽음이 범람하여 넘실거리는 세계는 비정상인가? 이곳은 다른 세계가 아니다. 이상하지도, 기괴하지도 않은, 자신의 가치만을 증명하는 세계다. 이곳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세계는 정상이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일 테다. 사람들이 멈춘 A에게 슬며시 다가온다. A의 손을 잡는다. 그리곤 물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이냐고. 당신의 등급은 무엇이냐고.

이 세계는 오래 그랬다. 사람들은 진실을 살았으나 영속하는 껍데기만을 닳도록 찬양했다. 빛바랜 세계 속에서 일렁이는 거대한 의지를 개인이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겠는가. 정밀하고 촘촘한 매개한 하늘 속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파아란 빛을 뿜내던 하늘은 어느새 단풍이 들 듯 물든다. 잔물결이 치는 듯한 구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A씨, 형사입니다! 도축 대상인 학생을 도난 및 섭취한 죄로 체포합니다!”

그래, 이곳은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조차 흐려진 A의 세계. 진실과 거짓은 의미 없는 삶이다. 새들은 노을진 하늘을 흔적 하나 없이 비행한다.

사자는 밤에 운다

철학전공

20161002 강병교

TV 다큐멘터리에서 사자의 생태를 본 일이 있다. 수사자의 황금빛 갈기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몸집을 거대하게 보이게 한다. 야생에서 큰 몸집은 곧 강인함이다. 갈기의 크기가 권력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또한 갈기는 역시 크기에 따라, 암컷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태생적으로 큰 갈기를 지닌 수사자는 우월한 위치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암사자들의 구애를 받고, 다른 사자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매력이 권력이자, 동시에 폭력인 것이다. 거대한 갈기를 가진 수사자를 빈약한 갈기를 지닌 다른 수사자가 부러운 듯 바라본다. 난 생각했다. 매력적인 갈기를 본 초라한 수사자가 느꼈을 감정은, 부러움이었을까, 열등감이었을까, 혹은, 서글픔이었을까.

정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서서히 쌀쌀해지는 가을 무렵이었다. 자취방에서 컴퓨터로 테트리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테트리스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곤 했다. 테트리스란 게임은 자폐적이었다. 게임의 끝은 없다. 그저 블록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쌓이고, 소멸한다. 결국 사각의 틀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쌓고 싶지만 소멸된다. 그 기형적인 게임의 구도가 마음에 들어 하루종일 테트리스를 하곤 했다. 그렇게 테트리스에 몰두하면 하루는 쉽게 죽어버렸다. 정인의 전화는 그러한 틀을 전복시킬 색다른 블록처럼 느껴졌다.

- 여보세요.

- 어, 상수야, 나야.

정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 응, 무슨 일이야?

왠지 나 역시 차분해야 할 것 같았다.

- 나 지금 아영이랑 술 마시고 있는데 너도 올래? 지금 막 시작했어.

아영이랑? 가벼운 전율이 스쳤다. 아영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학교 후배였다. 너무 좋다는 식의 반응을 내비치고 싶지는 않았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애써 별일 아니라는 듯, 알았다고 대답했다. 컴퓨터 전원을 끄고, 외출준비에 착수했다. 코코넛 향의 바디워시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떡 진 머리를 감았다. 난 항상 진한 향의 바디워시만 사용한다. 반지하 특유의 쿼퀴한 냄새를 감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향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비싼데다, 향수를 뿌린다는 행위는 내게 심하게 치장하는, 과장된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몸을 말린 뒤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세웠다. 아영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늘 그렇게 머리를 세우곤 했다. 뽀뽀히 세운 머리와 함께 자신감도 함께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처져있고 침잠한 나에게, 세운 머리는 유일한 자부심 비슷한 것이었다. 옷걸이에서 흰색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다. 잘 입지 않아 구김 없이 뽀뽀했다. 역시 아영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입는 옷이었다. 딱 맞는 옷이 좋은 긴장감을 유발했다. 전신거울에 좁은 어깨에 딱 맞춰진 와이셔츠가 보였다. 깃 위로 좁게 빨린 턱, 그 위로 낮은 코, 그보다 더 위로는 이끼가 낀 듯 축축하게 처진 눈이 보였다. 늘 보는 모습이지만, 초라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집 밖을 나섰다.

떨리는 마음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술집까지 가는 거리가 매우 짧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머릿속에서는 아영을 만났을 때 어떤 인사가 가장 자연스러울지를 고르고 있었다. 술집은 예전에도 한 번 왔었던 적이 있는 곳이었다. 난 아직도 아영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의 테이블을 기억하고 있었다. 초저녁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붉은 앞치마를 두른 키가 큰 알바생이 몇 분이나고 물었다. 일행이 있다, 어물쩍 대답하며 자리를 찾았다. 창가 쪽의 자리가 그녀들이 앉은 자리인 듯했다. 화장실을 갔는지 둘 다 보이지 않았다. 창가 쪽 사각 나무 테이블에 앉자, 붉은빛 조명이 흔들리며 맞은편 자리를 선명히 비쳤다. 저쪽에 아영이 앉는다면,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출 것이었다. 은은히 드리우는 붉은빛 조명은 묘하게 에로틱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자 불경한 생각이라는 듯, 목이 뒹다. 테이블에 시선을 옮기자, 중앙에 격자 무늬의 그림자가 쳐 있었다. 전구 주위를 덮은 격자무늬 망 때문이었다. 그물 같은 그림자는 테이블 중앙 근처에서 서서히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덮을 처 덮어버릴 함정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념들에 잠겨 있을 때, 아영과 정인이 걸어왔다. 그녀들은 내게 밝게 인사를 하고 난 뒤, 내가 오기 전부터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했다.

- 그래서 개가 그랬다니까요.....

- 나쁜 새끼네 그거.

난 알 수 없는 대화의 내용이었다. 나와는 관련 없는 세계의 드라마를 중간부터 보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이내 정인이 내 뺨뽀함을 느꼈는지, 금방 왔다고 말을 붙이며 테이블의 벨을 눌러 어묵탕과 소주를 주문했다. 다시 내 시선은 맞은편의 아영에게로 향했다. 늘 그렇듯 잘 정리된 눈썹 아래 검은 눈동자를 빛내고 있었다. 새하얀 피부 위에 걸친 검은 원피스와 눈동자가 잘 어울리는 듯했다. 아영이 입을 떼며 손을 움직이자, 가는 손목 위에 보라색 팔찌가 흔들거렸다.

- 근데 저희 셋이 이렇게 모인 게 신기해요.

아영이 나와 정인을 번갈아보며 얘기했다.

- 왜 신기한데?

정인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 대학 와서 언니 오빠들을 알게 돼서 신기해요.

아영이 입을 가리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셋은 우연히 엮여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겠지.

아영을 처음 본 것은 올해 개강총회 때였다. 봄이 서서히 마음을 간지럽히는 때 즈음. 1학년 때 참가하지 않아 어물쩍 참석하게 된 올해의 개강총회가 내겐 모임이란 것의 처음이었다. 그때, 맞은편의 아영을 처음 보았다. 지금처럼 검은 눈동자를 빛내며 내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여성의 살가운 인사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나에게, 그것은 빛이자 덮이었다. 그 순간, 난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 후 전공 수업에서 운 좋게 그녀와 같은 조가 되었다. 그때부터는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했다. 여유 있는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오로지 아영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비루한 얼굴에 가면을 덕지덕지 바를 때마다, 같은 조인 정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마치 '너 그런 놈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래도 무심한 듯 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격의 정인 덕분에, 난 아영과 그나마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아영이 말했던 우연은, 사실 진한 필연 위에 덮어씌운 구색이었다. 아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정인이 말했다.

- 저번 학기 때 같이 조별과제 했잖아.

- 맞아요! 그 때 되게 재밌었는데.

아영이 명랑하게 대답했다. 재미있었다고? 아영은 그때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뒷에 몸들 들어 밀려던 찰나, 아영이 물었다.

-그럼 언니도 그 때 오빠랑 친해지신 거예요?

정인이 나를 흘깃 보더니 대답했다.

-아니, 난 그 전부터.

아영을 처음 본 날, 정인도 나를 처음 봤을 것이다. 잘 마시지 못한 술을 깨려 잠시 시끄러운 술집을 나와 바람이나 쐬려는 참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당시 정인의 모습은 그녀가 무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모습 뿐이다. 자리를 피하기도 좀 뭉해서 옆에 우두커니 서 있던 나에게, 정인이 말을 붙여왔다. 그녀는 내게 예의 그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그냥 툭, 던지는 듯한. 마치 안부를 묻는 듯한 투로. 그 태도에 그녀가 선배인줄 알았던 나는 말을 높였다. 당시 난 그녀가 나와 동기라는 것도, 줄곧 술집 내 옆자리에서 내 모습을 봐왔던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정인은 황당하다는 투로, 아까 자기 소개할 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냐고 웃었다. 내 머릿속엔 아영이 건넨 인사와 그녀가 수줍게 자기 소개하는 이미지만이 교차하고 있었다. 대답을 못하는 나를 두고 정인은 대뜸 말을 던졌다.

-그렇게 목에 힘 안줘도 괜찮아.

그렇게 의문스러운 말을 던지고 정인은 담뱃재를 몇 번 털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의미일까.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난 다시 아영이 있는 맞은편 자리로 돌아왔다. 그 후 갑자기 정인은 술자리에서 나에게 말을 자주 붙였다. 밖에 있을 때와는 다른 활발한 말투로. 나와 정인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개강총회가 끝난 뒤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 받는 친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녀가 내게 대뜸 건넸던 말들은, 동정이나 연민같은 감정에서 촉발된 것처럼 보였다. 불쾌했다. 마치 테트리스에서 일부러 쉬운 블록들만 내려오는 것처럼.

그 후 정인과 함께 미술관에 간 적이 있다. 서양미술 과목 수업의 과제였다. 함께 간 미술관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인쇄해서 전시하는 테마였다. 거기서 <연인들>이라는 마그리트의 그림을 정인과 함께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았다. 얼굴을 흰 천으로 덮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덮어진 얼굴 안에 나와 아영의 얼굴을 오려 붙여 상상했다. 부끄럽지만 기분 좋은 상상이었다. 그러다 문득 나를 바라보는 정인의 시선을 느꼈다. 내 상상이 들킨 듯 나는 서둘러 다른 곳도 가보자고 말했다. 미술관 출구에는 마그리트와 관련한 상품들을 파는 상점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연인들>을 작은 크기로 인쇄한 사진을 구매했다. 액자에 넣어 그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고 자주 보았다. 천을 덮은 두 사람은 나와 아영이 되기도 하고, 빈약한 갈기의 숫사자나 그 옆에 어울리지 않는 암사자의 모습이 되기도 했다.

달과 밤이 짙어졌다. 술잔이 부딪치는 속도와 횡수가 빨라졌다. 어느새 아영과 나, 정인은 서서히 취하고 있었다. 안주로 시킨 어묵탕은 냄비 끓는 소리를 낸 지 오래였다. 정인이 새로운 안주를 시키자고 말했다. 그러자 아영이 들뜬 듯 소리쳤다.

- 우리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

아영은 혼자 뭐가 그리 신났는지 말을 계속 이었다.

- 전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정인이 그런 아영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더니, 테이블 끝에 벨을 눌러 떡볶이를 주문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서늘했다. 아영은 취기가 많이 올랐는지 빨개진 볼에 손바닥을 괴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

다. 그리고 문득,

- 언니 오빠들도 떡볶이 좋아해요?

게슴츠레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술이 다 깨는 느낌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떡볶이라. 난 떡볶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틀에 한 번,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유독 점심 메뉴로 떡볶이가 자주 나왔다. 툭툭 불은 떡볶이에 떡진 밥을 씹고 있으면, 어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했다. 이유는 많았다. 부모가 무능해서, 내가 무능해서. 혹은 세상이 그냥 그런 것이어서. 신나서 방긋방긋 웃는 아영을 보며 문득, 저 천진함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를 생각했다. 아영의 저 천진함이, 누군가가 애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애정한 누군가를, 무참히 살해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술을 들이켰다. 단숨에 쓴 맛이 머리와 가슴을 적셨다.

- 야, 천천히 마셔.

정인이 내게 말하며 물컵에 물을 채워주었다. 정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손은 나를 걱정하는 것일까, 동정하는 것일까. 이윽고 주문했던 떡볶이가 나왔다. 아직 채 떨어지지도 않은 냉동 떡이 조악하게 담겨있었다. 아영은 맛있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떡볶이 맛은 그냥 싸구려였다.

- 언니도 떡볶이 좋아하죠? 우린 참 공통점이 많네요.

아영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 우리 악수해요 악수.

그러면서 아영은 웃으며 정인의 투박한 손을 잡고 흔들었다. 아영은 그 천진한 얼굴로 내게도 손을 뻗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저 손을 잡으면, 잡으면 정말로 깊은 멧에 빠질 것 같았다. 아영의 손을 멧하니 바라보는 내 시선을 정인이 느꼈는지, 급히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 다들 설 때는 뭐해?

좀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정인도 꽤 취한 듯 했다.

- 저는 드라마 봐요, 드라마.

아영이 손을 내려놓고 신나서 대답했다. 그런데 손목의 보라색 팔찌는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걸까. 이번엔 내가 아영에게 물었다.

- 어떤 드라마?

- 주로 로맨스 드라마요.

아영이 검은색 눈을 빛내며 드라마를 보는 모습을 상상했다. 왠지 모르게 불쾌해지는 상상이었다.

- 연애하고 싶구나, 너.

정인이 툭 던지며 물었다.

- 네, 저도 연애해보고 싶어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전 눈도 안 높은데 남자애들이 저를 여자로 안 보나봐요.

아영이 떡볶이를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일말의 희망이 솟았다.

-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데?

정인이 내 들뜬 표정을 감지라도 한 듯, 슬며시 바라보았다. 아영이 수줍게, 그러나 명랑하게 대답했다.

-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일부러 방금 전에 들었던 나를 조롱하는 듯한 무참한 말이었다.

- 눈이 높은거 맞네, 하하.

내가 술잔을 들며 씩씩하게 말했다. 그러나 든 술잔을 그대로, 입에 털어넣어야 할지, 같이 마시자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그러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정인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아영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헤헤 웃고만 있었다. 그렇다. 아영은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고 있을 것이었다. 멋지고 화려한 곳에서 흰칠하고 세련되고 성격마저 배려심 넘치는, 사람과의 드라마 같은 연애를. 그러나 나는 현실을 살았고 현실의 테두리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었다. 키 크고 잘생긴. 그 두 가지 영역 중에 한군데도 속하지 못하는 나를 떠올렸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부모의 무능? 나의 무능? 아영이 저 천진한 표정을 짓는 것에는 그녀의 부모도 일조했을 것이다. 마치 드라마 같은. 예쁜 딸이 귀가하면 반겨주고, 저녁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요리를 먹으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혼자서 떡진 밥과 싸구려 떡볶이를 씹는 것이 아닌. 정인이 웃음을 거두고 말했다.

- 군대 갔다 온 남자랑 사귀어. 군대 갔다온 애.

그것은 후배에게 으레 조언해 주는 말이 아닌, 마치 나를 의식해서 하는 말 같았다. 난 군대를 전역하고 올해 복학한 신분이었다. 어쩌면 정인은 내가 아영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인은 눈치가 빠르니까. 정인도 아영도, 말없이 술잔을 응시했다.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정이 넘은 시각의 달만큼 술집 안은 밝았다. 테이블 곳곳에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차 있었다. 떡볶이가 담겨된 냄비는 떡이 늘어 붙은 채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나와 아영, 그리고 정인의 대화 주제는 시시각각 바뀌었다. 그러나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평이한 대화 주제들이 허공에서 부유했다. 어쩌면 가면을 쓴 건 나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는 얼마간 가벼웠고, 얼마간은 한없이 진지했다. 아영의 말은 그 얼마간의 진지함 중 한 줌이었다.

-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정인의 시선이 동시에 아영에게 쏠렸다. 그것은 어떤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닌, 화자가 입을 열 때 바라보는 반사적인 반응이었다. 잠시 침묵. 나와 정인은 아영이 입을 떼기를 기다렸다. 그 찰나의 시간이, 테트리스 게임의 끝을 알리는 블록이, 참을 수 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테이블을 비추던 전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불안함을 따라 전구의 망이 만들었던 그림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물은 서서히 내 쪽으로, 내 손등으로 펼쳐 덮여졌다. 곧 내 목을 죄일 듯한 그물 때문에 숨이 막혀 왔다. 그물을 잠시나마 건으려는 듯 정인은 짧게 한숨을 쉬고는,

- 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말하고 담배를 챙겨 일어났다. 아영은 그런 정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러나 난 아영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더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 듯이, 그물을 더 단단히 조이려는 듯이, 아영이 작은 입술을 뺏다.

- 저는 ~을 좋아해요.

나도 본 적이 있는 후배였다. 본 적이 있다, 그 말이 낯선 이물감을 느끼게 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쾌감을 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애써 잊기로 했다. 대신에 슬쩍 그 공백에 내 이름을 갈음해 보았다.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키가 크고 잘생긴 그. 신이 그와 나를 만들었다면, 그는 신의 완성품일 것이고 아마도 나는 전능한 신의 실패작이거나 지독한 농담일 것이다.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술에 취한, 늘 술에 취해있던 아버지는, 주제를 모른다고 비웃었다.

그때부터 내 ‘주제’는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몽롱한 표정으로 그녀는 말을 계속 이었다.

- 근데 개는 제가 좋아하는지도 모를거예요.

무슨 대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가면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공감하는 척 해야하나, 진심으로 공감해야 하나, 아니면 …… 내 이야기를 해야하나. 그녀는 내 대답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듯 계속 그 몽롱한 표정으로 말했다.

-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지금 뭐할까 궁금하고 …… 저 되게 바보 같죠?

이번엔 정말 무슨 말이던 해야 했다. 일그러진 얼굴 위의 가면을 내세워, 어떤 말이던 해야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내 머리는 문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 그러게.

되게 바보 같은 대답이었다.

정인이 담배의 잔향을 두르고 돌아왔다. 마치 상황을 모르듯이, 혹은 상황을 재차 확인이라도 하듯, 그녀를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물었다.

- 그냥, 언니도 아는 얘기.

그녀는 웃으며,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조금 씩씩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랬구나. 정인은 다 알고 있었구나. 술집에선 신나는 듯한 노래가 쿵쾅대며 울려댔다. 그녀와 나, 정인은 조용히 노래를 듣고 있었다. 이 작조된 듯한 어색함이 불편해서 내가 입을 열었다.

- 다들 어떤 노래 좋아해?

그러자 그녀는 요새 인기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밝고 신나는 노래가 좋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힙합이나 랩 음악은 싫다고 말했다.

- 좀 우울하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

사실 난 그 우울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노래들을 좋아했다. 노래 자체가 좋다고보다는, 왠지 난 밝은 노래를 좋아하면 안 될것 같았다. 그녀의 옆자리 공백에 내 이름을 채워넣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난 그녀의 의견에 동조했다. 뭘 기대하는 걸까. 더이상 그녀에게 너덜해진 가면에서 애정을 갈구하는 말들은 무의미했다. 그물을 더 옥죄이거나 뗏목에 발을 더욱 깊숙이 밀어넣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 나도 그래.

애써 웃으며 내가 대답하자, 그녀도 내게 웃어 보였다. 그러자 정인이 나를 보며 슬며시 웃었다. 의도를 담은 반응은 냄새를 풍기는 것일까.

술잔이 텅 없이 돌아가고 술병들이 쌓였다. 모두 취했다. 나는 그녀와 정인이 하는 이야기를 더이상 알아들을 수 없었을 정도로 취해갔다. 하긴, 그녀들도 모두 이야기를 하며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두가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무의미한 대화의 형해가 넘실거리며 부유했다. 그 사실을 감추기라도 하듯, 그녀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지 자홍색 앞치마를 두른 알바생이 다른 테이블을 행주로 훑치며 내 자리를 흘깃 보았다. 정인은 슬슬 일어나자고 말했고, 그녀는 많이 취했는지 정인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정인을 그녀를 부축하며 택시를 잡았다. 나에게 연락하라는 의례적인 말과 함께. 멀어져가는 택시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마도 그녀에게 더 이상 손을 흔들일이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을 깊이 주지하듯,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새벽이 깊은 듯했다. 휴대폰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휴대폰의 밝은 빛이 눈부셨다. 찡그리며 숫자를 읽어 보려 애썼으나 어지러웠다. 조각난 숫자들이 눈앞에서 부유했다. 푸, 푸. 침을 튀기며 취기가 잔뜩 썩인 발걸음을 땀다. 비틀비틀 걷는 발걸음과 몇 시 몇 분인지 모를 숫자, 그리고 몇 시간 전인지 모를 시각에 아영이 좋아한다 말했던 후배의 이름이 섞여 속에서 울렁거렸다. 그러나 몸에 익혀 왔던 대로 자연스레 몽롱한 걸음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 근처 좁은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 비틀대며 다가오는 사람이 보였다. 두꺼운 종이가 얇은 겹으로 나뉘지듯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도 여러 겹으로 나뉘어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도 나처럼 온몸에 그물을 두르고 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높은 계단을 간신히 올라 반지하 방 문을 열었다.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몸을 투신했다. 알코올의 잔향이 남은 입에선 계속, 푸, 푸. 입술을 떠는 소리를 냈다. 그러곤 생각한다. 오늘의 일들에 대해. 그녀들의 말들에 대해. 새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에 대해. 찰칵, 찰칵. 시침과 분침이 이빨을 맞부딪는 소리가 들린다.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 바퀴벌레의 발자국 소리일 것이다. 그 적갈색의 매끈한 몸통의 곤충은 밤새 내 주위를 맴돌 것이다. 그러나 난 벌레를 잡지 않을 것이다. 잡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점점 무언가를 또렷이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오직 여태 나의 몸을 두른 그물의 이미지만이 명멸한다. 그물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 결국 사각의 내 방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책상 위 액자 안의 연인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천장 벽을 멍하니 응시하던 나는 그리고, 조용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울었다.

벌판

인문학부

20211087 정민이

생각을 정리할 땐 아무것도 없는 벌판으로 떠난다. 벌판은 가까운 교외 지역에 펼쳐져 있다. 이곳은 완행열차를 타고 가야 한다.

도심 중앙역에서 3200원을 내고 차표를 구매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열차이고, 오래된 열차라 인터넷 예매로 표를 구할 수 없었다. 직접 역에 가서 구해야 한다.

고속철도가 등장해도 완행열차는 용케 살아남았다. 참고로 비둘기, 통일, 새마을, 무궁화와 같이 특별한 이름은 없다. ktx나 SRT, ITX처럼 멋들어진 영어 이름도 없다. 이 열차는 그저 완행열차에 그친다. 역무원조차 이 열차의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 기차의 일련번호만 알 뿐이다. 그런 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이 열차를 완행열차라고만 부른다.

기차가 3번 플랫폼에 정차했다. 완행열차를 타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객실의 의자는 대부분 비어있었다. 내가 실수로 다른 자리에 앉아도 알 수 없었다.

옛날 객실처럼 소파 형태의 좌석이였다. 맨 뒤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객실엔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다. 바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도 히터는 쉽게 안 나왔다. 나는 몸을 웅크려 몸속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했다.

출발할 시간이 지나도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퀴가 철도에 달라붙은 듯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기관장이 찢어지는 음질의 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을 했다.

“앞차와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오전 11시 57분 출발 예정인 N-9371호 열차, 기존 시간 보다 약 3분 늦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객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차만큼 스피커도 낡아 잘 들리지도 않았다. 기관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뭉개진 소리여도 마지막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정확히 들었다. 나는 콧방귀를 끼며 “진심 좀 담으시지 그래.”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행히 3분 뒤에 열차가 움직였다. 출발할 때 항상 낡은 스피커에서 철도공사의 로고 송이 나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었다. 경쾌한 멜로디지만 이 스피커에선 약간 기괴하게 들린다. AM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하다. 노래 반, 지직거리는 소리 반이다. 완행열차라 얼마 가지 않아 바로 다음 역에 정차했다. 역시 아무도 오르지 않았다. 이제부터 움직이고 멈추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완행열차란 그렇다. 다수를 위해 멈추는 급행열차와 달리 완행열차는 소수를 위해 간이역까지 모두 정차한다.

기차는 아직 도심을 빠져나가지 않았다. 물을 머금은 잿빛 구름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눈이 오는 건가. 유리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1분이 지났을까, 눈꽃이 차창에 달라붙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의 눈꽃을 검지 손톱으로 톡톡 두들겼다. 눈꽃은 바로 녹아 물이 되어 기차 아래로 내려갔다. 움직이는 기차라 조금씩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눈꽃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내리는 양도 많아졌다.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기관장은 다시 마이크를 들어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기존보다 속도를 조금 줄여서 운행한다고 말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반이라 뭐라고 하는지 전혀 들리진 않았다.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고 나서야 기관장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관장의 발음은 정확할지 몰라도 스피커가 낡아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아무것도 없이 시간을 보내기엔 좀 무료했다. 기차엔 무선 인터넷망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할만한 게 없었다. 오래된 열차의 큰 단점이다. 무선 이어폰은 배터리가 방전되어 음악도 감상할 수 없었다. 나에겐 그저 전화만 되는 통신기기에 그쳤다. 스마트폰은 1차원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냥 잠을 자기로 했다. 내가 가려는 곳은 종착역과 얼마 안 되는 역이라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필 필요는 없었다. 이 열차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알다시피 스피커 음질이 좋지 않아 잘 들리지 않는다. 역에 들어설 때, 창가 너머의 표지판을 잘 봐야 한다.

몸의 힘을 빼고 덜컥거리는 기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팔걸이에 오른손이 부딪혀도 상관하지 않았다. 주위 소리는 멀어지면서 그대로 나는 꿈속에 빠져들었다.

홀로 우주를 떠도는 몸처럼 나의 육체는 가벼웠다. 내 앞엔 여러 빛이 발광했다. 3초씩 속도가 느려지더니 색이 색으로 넘어갈 때, 마치 맑은 물에 물감이 묻은 붓을 담그듯 서서히 기존의 색을 다른 색으로 채워나갔다.

인화된 필름 사진이 현상되는 것처럼 내 앞에 펼쳐진 세계가 비추어졌다. 그러나 나는 꿈속에서 배제되었다. 옛 마당극의 변사나 영화 해설 프로그램의 진행자처럼 세계의 제3자가 되었다. 꿈속의 시기가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나저나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다. 자각몽도 다 꾸는구나.

익숙한 옛 골목에 사뿐히 착지했다. 언덕 위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거 내려왔다. 그 무리엔 나도 있었다. 혹여나 과거의 나와 마주칠까 재빨리 몸을 숨겼다. 꿈속이라도, 과거의 나와 직접 마주하는 건 참 곤란하다. 그 꿈이 현실과 혹시라도 이어지면 어쩌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곤 한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까 두렵다.

과거의 나는 몇몇 친구와 함께 시내로 내려가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총총걸음으로 그 뒤를 따라갔다. 아, 그 골목을 본 순간 머릿속에 한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저 좁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이다. 아찔한 청소년기의 과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일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저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던 걸까. 가장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고등학생인데 말이다. 나의 아찔한 과거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꿈의 세계는 나를 과거의 내가 있는 골목으로 보내 버렸다. 꿈속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종종 있다.

갑자기 나는 그 무리 곁으로 툭 떨어졌다.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더니 알 수 없는 형체가 나를 밀쳐냈다. 내 의지가 아니다. 나는 이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

다행히 그들은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정네 셋-나를 포함해-이서 뺨뺨뺨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아무리 나라도, 저 모습은 정말 추하다. 동그랗게 오므린 입술과 연기를 폐 속으로 가득 넣기 위해 턱을 아래로 길게 뺀 면상은 원숭이와 다름없었다. 다른 친구의 도넛 모양 연기를 보면서 과거의 나는 낄낄 웃었다. 제발 이곳에서 탈출해.... 목소리는 우물처럼 깊은 곳에 빠져 흔적도 없이 바닥에 가라앉았다. 악을 써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야, 우리 곧 있으면 고3인데, 대학 어느 정도는 생각해봤나?”

바가지 머리와 둥근 안경을 쓴 친구가 말했다.

“성적 맞춰서 적당히 가야지 뭐. 선생님도 그렇고 어른들 모두 우리한테 적성에 맞게 가라고 하지만, 내 적성이 맞는 학과다 싶으면 취업이 어찌고, 전망이 어찌고 하잖아. 그럴 얘기할 거면 애초에 적성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리고 누구는 취업이나 전망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최소한 대학에서만큼은 그런 사회적인 시선에 자유로워야지.”

과거의 내가 짚아진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려 운동화로 짓이겨 눌러 불을 껐다. 그 후 저렇게 일장 연설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현재의 나는 또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도 낭만은 나름 있었구나. 하지만 약간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다. 그 이유를 생각하려다가 그에 반응하는 대답이 바로 튀어나왔다. 우선 그 대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학과가 없다는 거야?”

5대 5 가르마를 탄 까무잡잡한 친구가 물어봤다.

“넌 내 말을 듣긴 한 거냐…”

과거의 나는 힘 빠진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았다.

‘네가 말을 어렵고 길게 늘어뜨려서 그렇지 뭐. 앞뒤도 생각해보면 좀 안 맞고.’

현재의 나는 생각했다.

“그거 아니야?”

“가고 싶은 학과야 있지. 다만 주위에서 무지하게 반대할 뿐이야.”

“그 학과를 그럼 성적 맞춰서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반대하잖아. 밥 벌어먹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내가 원하는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 멋있네. 그런 뚜렷한 미래도 있고. 무슨 과에 가게?”

안경 낀 친구가 말했다.

“문예창작학과.”

“너 작가 되려고? 아니면 시인? 시나리오 작가? 요새 웹 소설도 잘 나간다던데.”

가르마 탄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오래전 꿈이었어. 독서랑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놈이 담배를 뽕뽕 피우냐.”

안경 낀 친구가 탄지를 걸었다.

“세계적인 대문호들도 다 우리 나이 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어. 가령 모리크 핸드릭이나 레프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난 그들의 길을 걷기 위해 하는 거야. 다른 뜻 없어—실존하지 않은 가상 인물이다.—”

“대문호? 핸드릭?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린 피고 싶어서 피냐.”

가르마 탄 친구가 담뱃불을 끄며 말했다.

“책 좀 읽어라. 학교 추천도서에도 맨날 들어가는 작가들인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

‘모를 수도 있어 이 오만하고 건방진 놈아.’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때리는 듯한 시늉을 했다. 어차피 안 보이는 거 같던데 상관없었다.

“그래 너 잘나셨어요. 작가 선생. 됐고 빨리 학원이나 가자. 천하장사 기다린다.”

천하장사는 내가 다녔던 종합 입시 학원의 수학 강사 별명이었다. 덩치가 웬만한 씨름선수보다 커서 자연스레 그 별명이 만들어졌다. 나의 선배의 선배부터 퍼졌었던 유서 깊은 별명이었다. 그 이름을 들으니 추억의 향수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그 외에도 학원 강사들의 별명이 많았다. 틈날 때마다 나라 욕을 하던 영어 강사는 별명은 매국노였고, 목소리가 크고 톤이 높았던 국어 강사는 별명이 스피커였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던가. 그들의 뒤통무니를 쫓아갔다. 오랜만에 학원이라니 기분이 묘했다. 거기 아직도 있으려나.

그러나 눈앞에 아지랑이가 퍼지더니 땅 밑으로 쑥하고 내려갔다. 깜짝 놀라 일어나니 창밖에 눈의 고장

이 펼쳐졌다. 꿈속에서 있었던 일은 하얀 눈으로 틈도 없이 덮어 버렸다. 김이 서린 유리를 소매로 닦아 설경을 구경했다. 눈은 아까보다 적게 내렸다. 기차도 아까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도 내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하지 않았다. 다시 잠을 자기엔 정신이 맑아져서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억지로 자면 꿈도 못 꾸고, 어둠 속에서 살짝 비춰오는 빛 때문에 눈꺼풀의 붉은 피부와 실핏줄만 보다가 끝나 피로만 더 쌓일 것이다.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던졌다. 그래도 도심에선 빠져나왔는지 높은 건물보단 산이 주로 보였다. 하얀 눈에 덮인 설산이었다. 햇빛이 미약해서 반짝이는 설산의 작은 보석들은 보이지 않았다. 눈은 앙상한 나무에 겹겹이 올라 자리를 만들었다. 그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경치를 탄생해 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감상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우울의 새싹이 뿌리를 내리고 박차 올라왔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쉽게 기뻐할 수 없었고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움직이고 멈추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나는 처음 보는 별판을 발견했다. 여기서 열두 정거장 정도는 더 가야 하는 나의 목적지와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별판이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도심 교외 지역에 이런 명소가 있는 줄은 몰랐다. 눈에 덮여서 아름다운 건지, 원래 아름다운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이곳을 처음 발견했기에 눈이 내리기 전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어쨌면 하얀 눈으로 덮였기에 이 별판의 미(美)를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정착하는 간이역에서 내리기로 했다.

열차가 멈춰 섰다. 먼저 나는 좌석에서 일어났다. 객실엔 아무도 없었다. 나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나마져 내리면 이 열차는 빈 상태로 가는 걸까. 괜한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난 저곳에 가야 한다. 저 광활한 별판이 나를 부른다. 동정은 하얀 눈에 금방 덮였다.

세 번 힘을 줘서 객실 문을 열었다. 네모난 출입문을 통과해 완행열차에서 내렸다. 다행히 이걸 자동문이다. 이 열차의 장점이다. 내가 내리자마자 바로 문이 닫혔다. 덜컥,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기차는 간이역에서 빠져나갔다. 눈 덮인 철길 따라 하얀 지평선으로 기차는 마지막 꼬리 칸까지 남김없이 빨리 들어갔다. 나는 이 역에 홀로 남겨졌다. 개찰구도 없이, 오른쪽 철길로 내려가 오른쪽으로 나가면 끝이었다. 역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이나 사람 모이는 공간도 없는 정말 작은 역이었다. 역 이름이 뭔지 알아보려 했지만, 표지판은 녹슬었고, 역의 이름이 적힌 종이 포스터는 다 찢겨있었다. 여기도 완행열차처럼 그저 간이역에 그쳤다.

우선 나가보자. 눈이 그쳤다. 화창한 햇살이 눈덩이를 내리쬐었다.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내가 찾던 보석들이 여기 있었다.

뽕득, 뽕득, 눈 밟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내 뒤에는 오래된 나의 신발 모양에 맞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렇게 계속 눈이 안 올 시, 이 발자국을 따라 돌아가면 된다. 만일 눈이 또 내리면 나는 이 별판에 갇힌다. 그럴 땐 어찌해야 하나.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눈발에 벌러덩 누울 것 같다. 나에게 남은 건 없기에, 아쉽거나 특별한 미련조차도 먼저 한 톨 없이 비어있기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가늠할 수 없었으나 꽤 멀리 왔다. 걷는 거만큼은 자신 있다. 추위가 거세도 아직까진 문제없다.

간이역은 시선에서 떠난 지 오래다. 나무와 눈, 여러 잡초만이 내 곁에 있다.

짙은 구름이 별판 위에 모였다. 칙칙한 잿빛이었다. 다시 눈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아,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렵겠구나. 나는 긴 한숨을 내며 입김을 뿜었다. 모자를 뒤집어서 머리카락과 옷 속에 눈이 들어가

쌓이지 않도록 막았다.

별판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늘에 저녁노을이 스며들었다. 눈발에는 붉은빛이 돌아났다.

나는 저 별판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얼어 죽더라도 별판의 끝에는 가보고 죽어야지 깔끔하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죽음은 나 자신이 허락할 수 없다.

발목까지 쌓인 눈을 푹푹 밟아가며 눈구름의 꼬리와 해가 저무는 서쪽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몇몇 민가가 보이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이곳을 떠났는지 숨결조차 느끼기 어려웠다. 빈집만 가득했다. 이발소, 슈퍼마켓, 건어물 가게, 문방구 간판이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부닥쳤다. 덜컥대는 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이곳에 오래 있으면 눈보라를 이기지 못해 떨어지는 간판에 깔려 죽거나, 머리에 맞아 뇌진탕으로 죽어버릴 것 같았다. 죽더라도 품위 있게 죽어야 한다.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근데 여긴 도대체 어디지?

슈퍼마켓 앞에 신문지가 꽃힌 가판이 있었다. 날짜를 보니 2006년 5월 10일 신문이었다. 먼 과거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다. 눈발에 젖어 약한 바람에도 쉽게 찢어졌다. 그렇다면 이곳은 상당히 오래전에 버려졌다. 난 죽은 것과 다름없는 땅을 걷고 있다. 저 별판의 끝을 보기 위해 흑센 눈보라를 뚫고 나아간다.

흑시나 하고 안에 뭐 없나 둘러보았지만 모두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더는 들어갈 수 없었다. 애초에 빈 집이라도 남의 사유 공간에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추위에 지쳐 판단이 흐려진 것 같았다.

이럴 때 눈을 피할 그늘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몸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 갔다. 장갑이 없어 손을 주머니 밖으로 빼낼 수 없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찬바람은 그 틈새로 파고들어 땀에 젖은 내 두 손을 할퀴었다.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칠어졌다. 노을은 저물고 푸른 밤이 다가왔다.

이 광활한 별판을 나 홀로 횡단하고 있다. 이 근처에 축사라도 없을까. 나는 뭐가 되든 좋으니 눈보라를 피할 공간이 필요했다.

나의 염원이 이뤄진 걸까. 50M 정도 되는 거리 앞에 자그마한 오두막이 있었다. 정말 엉뚱한 곳에 자리 잡았다. 눈덩이에 가려져서 분간은 어려웠지만 분명 저곳은 논이었다. 오두막은 논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논이 있으면 분명히 사람이 살 것이다. 왜 사람이 없을까. 이곳은 버려진 땅인가? 기차까지 들어오는 지역이면 사람이 한 명쯤은 살 법한데. 여기는 특이하게 생명체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 짐승들마저 없다. 도시에서는 흔한 비둘기조차 날아다니지 않는다.

저 오두막이 변소는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거센 추위에 코가 얼어서 냄새를 맡기 어려웠다. 뭐가 되든 나는 눈만 피하면 됐다. 그게 축사던, 변소던 별 상관없었다. 생존 앞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관대해진다. 얼어가는 발목에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어 오두막까지 걸었다. 나무문 손잡이를 톡하고 잡았다. 거의 처음 느끼는 바깥의 추위를 접한 왼손에 한기가 파고 들어갔다. 순식간에 얼어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내 몸이 작아져 냉동고에 갇혀 떠도는 것 같았다. 문을 여니 다행히 변소는 아니었다. 농기구 자제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밀어내듯이 안쪽으로 몸을 던졌다. 빨리 문을 닫았다. 안에는 불빛이 없어 어두컴컴했다. 패딩 안주머니 있는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켜 불을 밝혔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 한 명 정도는 누울 수 있었다. 나는 바로 벌러덩 누웠다. 찬 바닥에 등을 맞대니 온몸에 소름이 짹 끼쳤다. 두꺼운 패딩을 날카롭게 뚫는 한기였다. 마른 풀냄새와 농기구의 쇠 냄새가 뒤섞여 차가운 공기와 맞물렸다. 나무문은 눈보라에 부딪히면서 덜컹거렸다. 후우, 한숨을 쉬니 입김이 가늘게 새어 나왔다. 눈을 피하긴 했지만, 바깥 온도와 별 차이는 없었다. 도심 중앙역에서 가기 전에 핫팩을 살 걸 그랬나. 이제는

돌아가기 어려운 그곳을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 집, 가족들은 이미 식사를 마쳤을 거다. 이 시간쯤이면 그렇다. 엄마는 설거지를, 아빠는 뉴스를 보며 빨래를 갈 것이다.

아, 내가 사랑했었던 그 사람은... 가족들을 생각하다가 옛 애인이 떠올랐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게 아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던 12월이었을 거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다.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눈이 질끈 감겼다. 아찔했던 청춘이었을까 아님,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기였을까. 나에게 청춘의 시기란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를 SNS 어플에서 처음 만났다. 자신의 숨겨진 이면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게시물이 그 어플 내에서 유행이었다. 마조히스트나 코스프레, 크로스 드래서 등, 일상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단어와 생활이 그곳엔 가득했다.

그런 것들에는 관심 없었다. 그리고 그 어플이 무조건 자극적인 요소만 있진 않았다. 건전하게 문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들어서 한 번 가입해 실제로 교류를 많이 했었다.

특별히 게시물을 자주 올리진 않았다. 기껏 해봐야 책이나 얼굴이 잘린 나의 옷 입은 몸 사진만 가끔 기분 좋을 때 올렸었다. 자극적인 게시물 속에서 나의 게시물은 색채가 없는 잡초에 불과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계정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처럼 찬 바람만 불었다.

12월 초, 어플 내 다이렉트 메시지 하나가 새벽에 도착했었다. 처음에는 자신과 잠자리를 가져달라는 변태로 생각했다. 실제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고, 어떨 땐 호기심에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 관심이 없다고 했지 그런 성적인 활동을 아예 부정하진 않는다. 굴러들어온 떡은 한 번쯤 집어서 먹어 볼 만한 법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자신을 사진 속에 가둬서 본래의 자신과 다른 자아를 그 어플 속에 박제한다.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과 실물 간의 괴리감이 심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도 없이 바로 도망갔다.

그들과 별 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도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잠자기 전, 메시지 창에 뜨는 숫자가 거슬렸다. 나는 그 숫자를 지우기 위해 그 사람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자신의 신체 사항과 나이, 사는 곳을 말하고 사진 2장과 함께 첨부했다. 하나는 얼굴이 담긴 사진, 하나는 자신의 알몸 사진이었다. 얼굴은 제법 잘 빠진 상이었다. 체형은 대체로 마른 몸이었다. 어깨가 좁았지만, 그에 비해 키는 컸다. 몸에 털도 별로 없었다. 왁싱했냐는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아니라는 대답이 빨리 돌아왔다. 이게 첫 대화였다.

다음 대화는 내 알몸을 보고 싶다고 했다. 서로 알몸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른 알몸 사진을 보내더니 지금 찍었다며 내 사진도 보고 싶다고 애교를 부리며 메시지를 보냈다. 선두를 쳐버렸으니 거절할 기회가 없었다. 처음으로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다 벗은 내 몸을 찍어서 보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위가 연두부처럼 흐물거렸다. 3분 정도 지나고 답장이 도착했다. 그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칭찬이다.

“예뻐요. 뒤에서 끌어안고 싶어.”

사진을 보내기 전에 느꼈던 감정은 절정에 오른 흥분이었다. 사진을 보낸 뒤, 그에게 칭찬을 받을 때 나의 성욕은 폭발했다. 나 혼자서 훌쩍 벗고 거울 앞에, 혹은 카메라 렌즈 앞에 서는 게 나의 위험한 취향이 되었다. 그는 여러 음란한 자세를 요구했다. 한번은 거절할 법도 하지만 내가 보낼 때마다 오는 그의 사진과 애교 섞인 칭찬에 눈이 멀어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의 노예가 되었다. 집 안 화장실, 내 방, 부엌, 공중화장실과 야산까지. 그는 내가 바깥에서 알몸 상태로 나도는 것을 특히나 좋아했

다.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난 더 위험해져야 했다.

2주 뒤에 드디어 그를 만났다. 돈이 없으며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관계를 맺었다. 사람이 얼마 없는 역이라 신음을 가늘게 내뿔어도 누구 하나 듣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첫 경험이었다. 그에게는 많은 경험 중 하나였을 거다. 관계가 끝나자 그는 차가운 얼굴을 보이며 나를 집으로 보냈다. 거의 쫓겨나듯이 지하철역을 떠났다. 초라한 첫 경험이 되었다.

1달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도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달이 바뀔 때마다 잘 지내냐,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그에게 남겼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내가 보낸 메시지만 대화창에 가득 쌓였다.

이대로 난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비뚤어지겠다는 심보로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다. 서로 이름도 모른 채, 몸과 몸의 대화만 나눴다. 그리고 인연은 관계가 끝난 순간 바로 끊어졌다.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대했다.

마치 고속도로 요금소처럼 많은 사람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는 돈을 주기도 했다. 그럴 때 나는 바로 다시 돌려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육체를 허락한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난 그렇게 속물이 아니다. 그가 보고 질투라도 하라고 허락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질투심 유발을 위해 육체를 한껏 더럽혔다. 입안에는 누군지 모를 입 냄새가 풍겼다. 그와의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끓아갔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을 게시글에 올렸을 때다. 그 사진을 봤을 때도 그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상심의 늪에 빠졌다. 몸부림할 틈도 없이 깊게 잠식되었다. 자그맣게나마 남았던 희망의 유리 조각이 허무하게 깨져버린 순간이었다.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 했다. 밥도 거르고 꿈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날을 보냈다. 현실을 피하고 싶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별판을 향해 떠났다. 그 당시는 여름이라 추위 걱정보단 더위 걱정이 우선이었다. 그곳엔 버려진 공사장이 있었다. 재개발 공사가 이뤄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각종 제한 정책과 건설사와 투자사의 부도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공사장의 커다란 쇠파이프 안에서 하루를 보낸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도 지금까지처럼 쉴 곳을 즉흥으로 찾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한 달이 지났다.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던 가을이었다. 접수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아 핸드폰을 확인할 틈조차 없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 정오가 될 즈음에 자기소개서 퇴고를 최종으로 마쳤다.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져 갔다. 머리를 식혔다. 제때 확인 못 한 알림이 떠올랐다. 취업 관련 문자인가? 핸드폰을 켜서 알림을 확인하니 다름 아닌 그의 문자였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리를 끈으로 꼭 조여 매듯 답답했다. 아, 어떻게 답장해야 하지. 나는 단호하게 그의 연락을 잘라내기로 했다. 그 늪처럼 깊었던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아픔이 계속되지 않았지만,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너랑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차단할게.”

“못 본 사이에 많이 까칠 해졌네. 그리고 언제부터 너라고 했지?”

“못 본 사이? 나를 일부러 안 본 건 아니고?”

“됐어. 그만해. 그나저나 다음 주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올래? 우리 집에서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랬잖아. 집 주소 알지? 너랑 오랜만 하고 싶네.”

“겨우 딱 치려고 연락한 거야? 하 시발. 너 진짜 더러워. 알아? 쓰레기인 걸 진즉에 알았어야 했는데.

화장실에서 내팽개치듯이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언제 집 주소를 알려줬어. 다른 사람이라ং 헛갈린 거 아냐?”

이대로 끝내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회심의 쌍욕을 보낸 뒤, 그의 계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차단했다.

“역겨운 개새끼.”

어플도 지워버렸다. 그와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도 전부 지웠다. 내 인생에서 그를 영구 퇴출했다. 마지막으로 그와 처음 교환했던 사진을 지우니, 내가 여태 걸었던 발자국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뒤를 돌아봐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앞이나 뒤나, 기준이 모호해졌다. 어느 쪽이든 내가 갈 길이 앞으로 지나간 길이 뒤가 된다. 상실보단 새로움을 얻은 기분이었다. 더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채워나갈 길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곳에 누워있는가?

오랫동안 그와의 아픈 추억을 떠올리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다. 나는 왜 여기 있나.

몸을 일으켰다. 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봤다. 바람은 멋있지만, 눈은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하늘은 밤과 새벽 사이에 머물렀다. 다시 나갈까. 아님 여기서 하루 자고 다음 날에 택시 불러서 집으로 돌아갈까. 아쉽게도 끝을 보진 못할 거 같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다.

“야, 너 어디야.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그나저나 들어왔어? 너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애들,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승합차랑 부딪혀서 죽었다고 하더라.”

꿈속에 나왔었던 그 애들이다. 그놈들, 요즘 배달한다고는 건너서 들었는데. 어째서, 그런 결말을.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미끄럽게 나무 바닥에 떨어졌다.

“아직 너한테는 소식이 안 갔구나. 그래도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사이인데. 조문이라도 가지 그러니. 그나저나 너 어제가 최종발표였는데 왜 말 안 했어?”

입술을 앙다물었다.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너 아까부터 왜 대답을 안 해? 떨어진 거야? 그런 거야?”

전화가 끊겼다. 아까부터 손전등 기능을 써서 배터리가 빠르게 닳고 있었다. 결국은 꼬르륵하고 꺼져버렸다. 내 의지로 끊은 게 아니었다. 택시는 부를 수 없게 되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우울과 상실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억억대며 막힌 소리가 울렸다. 몸을 제대로 거느릴 수 없었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수많은 기업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인격을 모독하는 압박 면접까지 봤지만 내가 출근할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고등학생 때의 희망대로 원하는 학과에 가 공부를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실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내에서 열린 문예 공모전에 내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뽑히고 지방신문의 신춘문예에 가작으로 등단 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다.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 그저 말뿐인 축하만 받았다. 내가 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아무도 안 했다. 부모님은 내가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되길 바랐다.

‘나를 반기는 세계는 없다.’

내 머릿속에 잠깐 스쳤던 문장이 가슴을 울렸다. 나를 버린 첫사랑과 내가 지원한 기업들, 안타깝게 떠난 그 친구들. 내 꿈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들. 내가 이 세계에 살아갈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에 새로 채워나갈 일만 남았다고 그랬나.

다시 시작하기엔 나는 너무 멀리 왔다.

왔던 길로 돌아가기보다 내가 가고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게 더 빨라 보인다. 이것도 새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의 끝.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끝을 향해 가는 마지막 장소라면, 난 이 폭설을 뚫고 끝을 향해 걸어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을 요구하더라도 돌아선 안 된다.

더 상실할 것도 없다. 정체성, 사랑, 믿음, 우정, 꿈... 이외에도 더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미련의 새싹이 트기 전에 이 나무문을 박차고 나간다. 복숭아뼈 위까지 쌓인 눈을 밟아가며 끝을 향해 걷는다.

별판을 가로막은 언덕을 오르고, 울창한 숲을 지나갔다. 언덕에서 내려오니 다시 별판이 펼쳐졌다. 달은 버려진 이 땅과 가까이 달은 듯하지만 구름에 가려져 제대로 된 형상을 볼 수 없었다. 대신 눈구름의 틈새로 빛을 쏘아서 눈밭에 달빛을 떨어뜨렸다. 눈덩이들은 그 빛을 그대로 머금었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뚝 끊긴 지평선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온다. 끝. 여기가 드디어 내가 가고자 했던 끝이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다. 방전 상태라 켜지지 않는 기계다. 왼손에 쥐어진 핸드폰을 뺀히 본 후, 바닥에 내리박았다. 발로 밟아 부숴다.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구름이 달 주위에서 멀어졌다. 눈이 그치는 줄 알았지만, 더 짙고 두꺼운 눈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저기가 끝이야. 이 세계를 마무리 짓는 모든 것의 끝. 세계의 끝이 저기 있어.

지평선을 향해 계속 걷는다.

눈 속에 파묻힌 돌부리를 인지하지 못했다. 바로 걸리면서 발가락에 부딪혔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려다가 실없는 웃음이 파하고 터졌다. 나는 대자로 벌러덩 누웠다. 육체에 눈이 차츰 쌓였다. 나도 쌓여버린 눈과 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다. 눈꽃은 여러 방향으로 내 몸에 내려와 앉았다. 여기 바로 이 모든 것의 끝에 다가갔다. 여기까지 오면서 남긴 발자국은 눈이 쌓이면서 지워졌다.

이 세계에서 나는 하얗게 사라진다. 끝을 넘어, 나는 또 다른 세계로 간다. 그곳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소설 부문 장려상]

몽중몽(夢中夢)

의과학융합전공
20206523 정수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창가에 기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뭐가 그리도 분주한지 서로에게 인사 한 번 건네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답답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깊게 숨을 빨아들이자 기침이 났다.

“콜록, 콜록!”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게 뭐가 좋다고 찾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기도를 타고 폐로 내려갈 뿐인데 말이다. 마치 살아있는 것을 내부에서부터 죽이는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다. 내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담뱃불을 끄지도 못하고 한참을 보고만 있었다. 툭툭.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현수야, 왜 카톡 안 보냐?”

인사도 없이 용건부터 꺼내는 친구에게 담뱃갑을 던졌다. 그는 냉큼 받으며 겨우 한 개비만 빈 걸 확인하고 싱글벙글 웃었다.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여전한 모습이었다.

“땡큐. 이거 주려고 톡 안 봤구나?”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제야 손에 들린 담배를 버리고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너머로 텅 빈 한글창이 열려 있었다.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다. 여전히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튼 연락 좀 보고 살아라.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남들 다 재택근무할 때 우리는 사무실 쓰는 거 아냐.”

“정이 안 가는 걸 어떡하냐. 1이 사라졌다고 좀 늦게 답장하면 읽씹이다 뭐다 하는 것도 짜증나고.”

“쫄, 그렇다고 아예 확인도 안 하냐.”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카톡 상단에 고정된 이름을 볼 때면 먹먹해서 확인도 못 한다는 변명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한심한, 혹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게 뻘했으니까.

“아무튼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왔다. 신작 계획 있으면 그쪽하고 계약하자는데?”

“없다고 해.”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잖아.”

“어차피 돈 되는 글 원하는 거 아냐. 자신 없어.”

민호가 한숨을 내뿜었다. 내 대답이 답답한지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것 좀 쓰면 어때서? 우리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너 필력 좋고, 스토리 구성도 괜찮고, 게다가 팬층도 두텁잖아. 모두가 좋아하는 글 좀 쓰는 게 뭐가 나빠.”

“어떤 거? 값싼 사랑놀이 좀 하고, 섹스하고, 어려운 일 한 번 겪지 않고 행복해지는 글? 아니면 주인공이 의미 없이 주변을 때려 부수고 영웅 되는 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대중성 좀 챙기자는 거지.”

나는 말 없이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아까까지 머뭇거리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쉬지 않고 손가락이 움

직였다. 타닥타닥. 경쾌하게 타자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뒤에서 내가 쓰는 글을 읽더니 말없이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난 후에야 나는 손을 뗐다.

“시놉시스랑 초반부 메일로 보냈다.”

그는 씨익 웃었다. 메일을 읽을 필요도 없다는 반응이었다.

“봐바, 역시 우리 작가님. 하면 다 되잖아.”

민호는 내 어깨를 톡톡 치고 자리를 나섰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퍽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나는 무력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말이다. 현실과 타협하고, 자본을 쫓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가 참 부러웠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게 즐거웠다. 작가가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세상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줄도 모르고. 창밖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고요하지 않았다. 자동차가 뱅뱅거리고 운전자가 앞의 차를 향해 욕지거리를 내뱉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소음으로 가득해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세상은 이런 생각마저도 거부하겠지. 자조 섞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사무실 불을 끄고 정처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가 담긴 봉지가 들려있었다. 어두운 집에 들어서며 익숙하게 스위치를 켰다. 자리에 풀썩 앉았다. 안주도 없이 맥주를 들이켰다. 입술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술이 쓰지만 달콤하게 느껴졌다.

“여보, 오늘도 술 마시는 거야?”

긋가로 사랑스러운 음성이 흘러들어왔다. 두 눈을 깜빡거리자 예쁘게만 보이는 여인이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이 호선을 그렸다.

“보고 싶었어, 자기야.”

“웬 동문서답이래. 그런다고 술 마시는 게 허락되는 줄 알아?”

“허락해줄 거잖아.”

“치이. 하여간 한 번을 안 저준다니까?”

그녀는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심장이 시끄럽게 뛰었다. 소음이 아니었다. 하나의 음악이고 분위기였다. 세상과 단절시켜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별걱별걱 술을 들이켰다. 한 캔, 두 캔, 기어코 편의점에서 샀던 술을 모두 비웠다. 온몸이 핫핫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마시는 거 아냐?”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글이 잘 안 써져?”

나는 피식 웃었다. 글이라면 너무 잘 써져서 문제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영영 글을 못 쓰게 되면 좋겠다. 아무도 내 글을 찾지 않으면 좋겠다. 누구도 읽지 않을 글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웃으며 그녀와 손각지를 낄 뿐이었다. 소영은 의아해하면서도 볼을 붉혔다. 내 손이 너무 뜨거운 까닭에 그녀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미안해, 자기야.”

“우리 사이에 미안해할 게 뭐 있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으이구. 이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건데. 여보는 항상 취하면 사과만 하더라?”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다. 울면서 웃으면서 나는 그녀의 무릎 위로 머리를 놓고 누웠다. 내가 바보 같다는 사실은 늘 알고 있었다. 고집이 있지만, 그 고집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

다. 그럼에도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그녀에게 미안했다. 덧없이 사랑스러운 그녀이기에 미안한 감정만 증폭됐다. 이대로 잠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면서 나는 잠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으으, 머리 아파.”

시끄럽게 알람이 울렸다.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스마트폰을 찾았다. 알람을 끄자 순식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방이 적막하게 느껴졌다. 돈이 있어도 굳이 이 집을 고수하는 내가 우스웠다. 맥주캔이 바닥에 어지러이 놓여있었다. 입맛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자 생수병 몇 개만 눈에 보여 그것으로 식사를 대신했다. 술기운이 조금은 가신 것도 같았다.

“차라리 계속 취한 상태면 좋을 텐데.”

스스로가 내뱉은 말이 우스웠다. 이미 한낮이었다. 왜 사무실에 없냐며 민호가 잔소리할 게 뻔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소통을 위해 카톡 어플을 눌렀다. 상단에 자리한 이름을 보자 다시 술기운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세 그대로 굳어서 이름만 응시했다.

“여보, 민호한테 연락해야하는 거 아냐?”

소영이가 장난스럽게 내 어깨 위에 턱을 올리며 물었다. ‘한소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카톡 상단에 당당하게 위치한 걸 보고 그녀는 뭐가 웃긴지 까르르 웃었다. 여전히 소녀 같았고, 귀여웠으며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연애 초기의 설렘 가득한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삼킬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독을 입에 머금은 것처럼 어설픈 웃음을 띠었다. 두 눈을 감았다가 뜨자 소영의 모습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내 눈에 보이는 그녀가 연애 초기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내 기억 속에 남은 건 그렇게 사랑스러운 시간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아무 곳이나 대충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사무실에 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어제 쓰던 글을 퇴고할 생각도 없어 막힘 없이 이어나갔다. 내 눈에 쓰레기를 담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나는 읽을 수 없는 글을 쓴 게 벌써 세 달이었다. 완결까지 꽤나 빠른 속도였다. 마지막을 장식하면 이 지긋지긋한 소설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썩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 완결이 가까워질수록 다 마신 맥주캔도 쌓여만 갔다. 세상은 나의 작품에 열광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나는 술을 찾았다. 누군가는 이 순간이 나의 전성기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게 꿈같은 순간일 것 같라며 질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말대로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전성기였고, 악몽이었다. 누군가 나를 깨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다. 언제나 나를 응원해줬던 소영에게서 축하한다는 연락 한 번 없는 것 또한 서글펐다. 글을 쓰고 싶다고 그녀를 내친 게 나라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크으, 글썄 형님. 그놈이 말입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또다시 소음이 귓가에 앵앵거렸다. 왁자지껄 떠들며 무의미한 쾌락에 빠진 그들이 역겨워 달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발을 옮겼다.

“엄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담탱이 진짜 짜증나지 않냐?”

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도, 어두컴컴한 골목길에도, 어느 학교 근처에도 사람이 없는 곳이 없었다. 소음이 없는 곳이 없었다. 마감을 독촉할 모양인지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스마트폰이 내지르는 벨소리가 시끄러웠다. 소음이었다. 소음이었다. 모두 다 소음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 던졌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만취한 기분이었다.

“아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미치광이처럼 웃음을 내뿜었다. 눈앞이 뿌옇다. 자본을 쫓는 삶도, 남들이 원하는 글을 쓰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소음 한가운데서 적막을 외치고 있었다. 춤을 추고 싶었고 이 순간까지도

글이 쓰고 싶었다. 미친 게 분명했다. 나는 미쳤다. 내 글이 내뿜는 소음에 잠겨서 익숙한 게 아니고서야 아직 할부가 남은 스마트폰을 내던지는 미친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충동적으로 산을 올랐다. 어느 산이든 상관없었다. 그냥 도시에 소음이 가득하다면 자연 속은 고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를 이끌 뿐이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흙을 밟는 소리가, 중간중간 낙엽을 지르밟는 소리가 울렸다. 웃음이 흘렀다. 소음이 아니었다. 저 멀리 등산객들이 서로에게 인사하고 물을 건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저런 모습을 원했던 거였나. 왈각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우연히 마주치는 인연에게 물 한 모금 건넬 수 있는 사회를 바랐던 거였을까. 높은 곳을 함께 손잡고 의지하며 걷길 원했던 거였을까. 도시 속 인사 한 번 건네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가 저들을 눈에 담으니까 뭉클했다.

“여보, 가끔은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좋지 않아?”

소영이 부드럽게 내 손을 잡으며 웃었다. 소박한 흰 원피스 아래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땅을 밟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내 손을 잡은 그녀에게선 온기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허공을 잡은 이 손에서 그녀를 느낄 수 있다면 충분했다.

“우리 자주 오자. 아니, 매일 같이 오자.”

“응!”

그녀는 해사하게 웃음을 피워냈다. 춤을 추는 것처럼 정상을 향해 총총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아름다웠다. 그제야 잊었던 것들이 떠올랐다. 나는 단순히 글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처음 글을 썼던 때처럼 내가 보는 세상을, 그녀를, 모든 것을 녹여내고 싶었다. 세상 속에 갇힌 내 세상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었다. 나는 소영이를 따라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졌다. 그녀처럼 춤을 추듯이 정상을 올라갔다. 고요했다. 더이상 소음은 없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밤이라고는 모르는 것처럼 반짝반짝 위태하게 빛을 냈다. 저 빛 하나하나가 시끄러웠다. 녹아내렸던 마음이 다시금 일렁이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시간이 다시 소음으로 가득 찼다. 내가 귀를 막고 눈을 막자 소영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안아줬다. 말없이 나를 토닥였다. 이건 내가 원하는 그녀의 모습일까, 함께 하기로 했다면 볼 수 있었을 그녀였을까. 의미 없는 질문만이 메아리쳤다.

“괜찮아, 다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왜 그녀가 내게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했을지도 몰랐다. 소영이의 눈에 나는 항상 고집불통이며 내 의지를 실천하려 힘쓰는 인간이었으니까. 그녀는 그런 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걸지도 몰랐다. 나는 더이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길을 잃었다. 시끄럽게 울리는 소음들 사이에서 내가 듣고 싶던 소리를 잃었다. 나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게 분명했다. 그렇기에 나는 미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소영아. 나는……. 나는 괜찮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영영 울었다. 무엇이 그리도 사무친 걸까. 네가 사무친 걸까, 아니면 나는 내가 사무친 걸까. 그녀를 잃은 날, 나는 나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독자가 소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됐다. 글 좀 잘 쓴다고, 세상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쓰는 재주가 있다고 우쭐해선 안 됐다. 나는 어리석었다. 이런 내가 뇌준 순간, 더이상 붙잡혀있지 않았던 그녀야말로 현명했다.

“소영아, 소영아. 내가 미안해. 제발.”

제발 돌아와줘. 그녀에게 닿지도 않을 말을 삼키고 그녀의 환상에게 안겨 한참을 울었다. 산을 내려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하산한 건 결국 나 또한 소음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까닭일지도 몰랐다. 술은 필요 없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집에 오자 민호가 현관 앞에 쭈구려 앉아있었다. 나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너는! 하아……. 말을 말자.”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그의 머리를 쓸어올렸다. 민호의 시선이 아무것도 신지 않아 엉망진창이 된 나의 발로 향했다.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너 미친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폰은 어디에 뒀어? 왜 그 모양으로 돌아다녀?”

“하나씩 말해.”

“하아, 너 사무실은 왜 안 와? 마감은?”

“집이 더 편해서. 마감은 거의 끝났고.”

민호는 말없이 한숨만 내뿔었다. 내게 욕이라도 한바탕 내뿔고 싶은 듯 보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는지 참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왠지 불안했다.

“소영씨 이야기는 들었어?”

“소영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새 결혼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한국을 떠난 걸까? 연인이라도 생겼을까? 혹시 어디 아픈 걸까? 온갖 질문들이 머릿속을 부유했다. 불길한 생각을 억지로 밀어넣느라 정신없었다. 차라리 민호의 입이 열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내게 진실을 던졌다.

“……장례식 치른다더라. 교통사고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속이 메스거렸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소영이 부모님 중 누가 사고사라도 당하셨어?”

“정신차려. 너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잖아.”

민호는 내 어깨를 붙들었다.

“소영이가 죽었다고.”

소음이었다.

“내가 네 신작 준비된다고 말해줬었는데 친구한테 자랑하러 가다가.”

소영이의 이름이, 나의 고요함이, 나의 유일한 독자가 소음으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너도 장례식장에는 찾아가야하는 거 아니냐.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본능적이었다. 나는 민호를 밀치고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가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은 채 숨을 죽였다. 그녀가 나를 보러 올 것이다. 그렇게 밤새 나는 다리가 저리지도 않는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영이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의 환상도, 나의 기억도 소음으로 뒤덮여 영영 그녀를 잃고 말았다. 본능적으로 술을 찾았다. 그녀를 찾았다. 글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게 오지 않았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숨이 가빠졌다. 눈물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아아, 나는 기어코 소음에 잡아먹힌 것이다. 나는 기어코 미쳐버린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트북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다. 여전히 소음이 세상을 집어삼킨 상태였다. 사람 한 명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세상이었다. 죽음은 그렇게 소음에 묻힐 뿐이었다. 근처 낡은 카페에서 쓰고 싶지 않던 글을 완결냈다.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글을 보며 실성해버렸다. 이런 것도 작품이라며 쓰고 있는 내가 우스웠다. 이런 걸 작품이라고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이 궁금했다. 모두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말을 짓고 나서야 카페를 나섰다. 편의점으로 향했다. 뿅. 뿅. 바코

드를 짚는 소리와 함께 담배 한 갑이 손에 쥐어졌다. 라이터를 빌려 불을 붙였다.

“.....”

저번처럼 기침을 하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담배 연기를 깊게 받아들였다. 멍하니 담배 한 개비가 사라지면 새로운 걸 입에 물 뿐이었다. 머릿속이 고요했다. 태풍의 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나, 둘 입에 물고 있던 게 사라지자 담뱃갑이 텅 비었다. 그러면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오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알바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

“쿨룩쿨룩.”

내 앞을 지나가던 한 소녀가 기침을 했다. 입과 코를 막으며 숨을 참는 모양새가 내 손에 들린 담배 때문인 듯했다. 그제야 나는 담배를 버렸다. 이미 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담배가 내 입술 위에서 타다가 사라졌지만, 그 사실을 잊은 것처럼 걸었다. 내 옷 위로 담배 냄새가 폴폴 풍겼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텅 빈 사무실에도 가봤다. 민호가 없어 적막했다. 창밖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눈에 담았다. 데스크탑을 켜 그동안 내가 썼던, 나만 봤던 글을 봤다. 남들이 봤던 글도 한 번 봤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냥 내가 신경 쓰던, 신경 쓰지 않던 모든 게 덧없게 느껴졌다. 나는 괜히 남들이 읽었던 글을 휴지통에 버렸다. 나만 읽던 글만 남겨뒀다. 그렇게 사무실을 벗어나려 했다.

“뭐야, 현수 너 괜찮냐?”

습관처럼 사무실을 찾아왔던 건지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살짝 안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냐, 너답지 않게.”

“그냥 가끔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쓴 웃음이 그림처럼 입가에 걸렸다.

“밥이나 먹을까? 힘없을 땐 뭘 좀 먹어줘야지.”

“아냐, 괜찮아.”

“아직도 소영씨 생각하냐?”

나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나지 않아 뭐라 대답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알아서 내 뜻을 곡해한 민호는 쓰게 웃었다. 이미 돈이 많은 걸 알면서도 그는 내게 지폐 몇 장을 쥐여줬다. 카드로 결제하면서도 곳곳이 지폐를 들고다니는 게 우스웠다.

“혼자서라도 맛있는 거 먹어라.”

“그래, 고맙다.”

나는 노트북을 소중한 것처럼 안고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민호가 준 돈을 갖고 택시를 탔다. 저번에 걸었던 강 위의 다리, 골목길, 학교 근처를 누비다가 산 근처에서 내렸다. 돈을 지불해야하는 드라이브에 민호가 줬던 지폐를 몽땅 맡기고 잔돈을 받지도 않았다. 그저 저번처럼 맨발로 산을 오를 뿐이었다.

“소영아, 너는 왜 내가 쓴 글을 좋아했어?”

나는 이젠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혼자 말을 걸었다.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날 보는 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 시선 속에 그녀의 시선이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 없었다.

“왜 글에 집중하고 싶다면 이별을 얘기했을 때 웃으면서 받아들였어?”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까?”

답이 들려오지 않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내뱉었다.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까닭에 숨이 가빠졌으나 나는 쉴 수 없었다. 고작 담배 조금 폼다고 호흡이 짧아진 것 같았다. 나란 사람은 이렇게 연약했다. 이상

을 좇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다. 오히려 소영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상을 좇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소영아,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 너랑 있을 때는 조용히 있어도 좋았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아.”

산도 더이상 내게 고요하지 않았다. 나는 점차 있을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 침묵의 아름다움을 아는 존재들이 있는 장소를 찾고 싶었다. 정상에 도착했다. 산 아래에서 빛을 내뿜는 도시는 이제 내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시끄럽고 시끄러워서 다른 소음들은 묻혀버렸다. 소영이가 소음에 휩싸인 순간부터 내겐 더는 그 무엇도 소음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고요함도 아니었다. 산 위에서 노트북을 켜다. 한글창을 열고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보고 싶다.’ 한 문장을 끄적거렸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스럽다는 듯이 노트북을 닫았다. 술이 마시고 싶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소영이가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제야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다. 나는 애써 미소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순순히 내게 안겨졌다. 다행이었다.

“자기야 보고싶었어.”

“그러면 부르지 그랬어, 왜 바보 같이 혼자 울고 있어.”

그러게. 나는 무슨 욕심으로 널 부르지 못하고 혼자 너를 그리고 있었을까. 울면서 웃음을 흘렸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았다.

“자기야, 나 이제 글 안 쓰려고.”

나는 노트북을 꼭 쥐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노트북을 산 아래로 던졌다. 엉망이 된, 대중이 원한 신작은 영영 세상에 공개되지 않길 바랐다.

“사랑해, 소영아.”

“나도 사랑해.”

나도 추락한 노트북을 따라 산 아래로 몸을 던졌다. 소영이도 내 손을 잡으며 눈을 감아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나만 느낄 수 있는 긴 입맞춤이 있었다.

“고마워, 고맙고 미안해.”

“치이, 술도 안 마셨으면서 또 미안하다고 한다.”

소영이가 배시시 미소 지었다. 나도 그녀를 따라 웃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머리에서부터 고통이 느껴졌다. 두근거리는 통증은 처음이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다. 입술을 타고 피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119를 찾는 것도 같았다.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소영이는 고요히 내게 무릎베개를 해주고 있었다. 그녀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게 마음에 들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느껴졌다. 환상이 아닌 것 같았다.

“쉬이.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날 거야.”

그녀는 나를 달래고 있었다. 무엇으로부터 나를 달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슬픈 것도 없는데. 어렵지 않게 끝을 상상했다. 사람의 죽음도 묻히는 소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도 묻힐 게 분명했다. 어쩌면 유명 작가의 자살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뉴스를 몇 번 장식할지도 몰랐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넘어갈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영영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다. 글을 못 쓰게 되었다. 바닥을 나뒹굴면서 손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는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되었다. 나만 보던 글로 가득 찬 데스크탑을 본다면 사람들은 내 글을 찾지 않을 터였다. 완벽했다. 내 이야기를 거부하는 세상에게 나는 기꺼이 내 이야기를 들려주길 거부했다. 둘의 의사가 맞아떨어지는 극적인 화합이었다.

화목제물

심리학과
20182118 서현성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
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3~25절

눈앞에 나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한껏 차려입은 한복으로 그
는 머리를 조아린다. 나의 눈앞에는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정성 들인 상이 놓여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의식을 치르고 있다. 의식의 과정이나 의미 따위 알지 못한다. 다만 그것이 으레 합의
되고 약속된 관습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리라.

의식이 다 끝나고 나서 아버지라는 것은 나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앞에 차려진 밥상을 마음껏 먹으
라고 한다. 나는 손가락을 들고 밥을 몇 숟갈 떠서 먹고 된장국도 몇 숟갈 떠서 마신다. 그 후 몇몇 나물
들, 가령 시금치나 고사리 같은 것을 집어먹고 손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실질적으로 몇 입 먹지는
않았다. 그저 반찬마다 한입씩 먹은 것뿐이다. 아버지라는 것은 만족했는지 상을 슬슬 치우기 시작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 아버지라는 것은 한 손에 물컵, 한 손에 치약이 묻힌 칫솔을 가져왔다. 나는 으레
그렇듯이 입을 벌리고 아버지라는 것은 내 입속에 칫솔을 넣고 이를 닦아주기 시작한다. 별 감흥 없이 이
빨 닦기는 이루어졌다. 그 후 아버지는 나의 입술에 컵을 댄 후 나는 천천히 컵 속에 담긴 물을 입에 머
금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입이 물로 찬 후 나는 입을 물로 행군 후 아버지가 가져온 나무통에 입속 물을
버렸다.

양치질이 끝난 후 이번엔 화장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사실 별거 없는 과정이다. 양 볼에 발려진 연지곤
지, 붉게 물든 입술과 눈과 눈썹 사이가 붉게 물든 곳을 한 번 더 색을 발라주는 게 전부다.

화장이 끝나고 아버지는 조심스레 손을 모은 후 머리 위의 썩은 칠보족두를 다시 한번 씌워준다. 그 후
입고 있는 새색시가 입을법한 한복의 옷매무새를 정돈해주었다.

그 후 나의 단발머리를 빗으로 천천히 빗기기 시작했다.

“오늘도 공양을 바치고 잘 대우해주었으니 우리에게 좋은 보답을 해주옵소서.”
저것은 그리 말했다,

그 후 방 안에 처음 보는 모녀 두 명이 들어왔다. 모녀의 딸로 보이는 아이는 온몸에 하얀 반점이 여기 저기 나 있고 열이 심하게 나는지 머리카락이 땀 때문에 이마에 달라붙었고 숨을 심하게 헐떡이며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위급한 상황의 아이를 어머니로 보이는 인간이 내게 데려와서는 무릎을 꿇게 했다.

나는 으레 하듯이 병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후 모녀 둘은 내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샘솟고 있다. 멋대로 내게 밥을 먹인 후 병자를 완치시켜달라고 멋대로 강매를 시켜놓고서는 멋대로 감사를 할 뿐인 자들에게 어찌 기분이 좋으란 말인가.

일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신고 있는 수혜를 벗긴 다음 갖고 온 물수건으로 발을 천천히 닦아주었다. 그렇게 발을 다 닦은 후 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다음 방을 나간다.

하기 싫다. 나는 저것이 나간 이후로 내가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주변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붉은 나무 단이 정사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단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 영역을 저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멋대로 부르면서는 함부로 이 영역을 벗어나 더러운 인간의 영역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있는 바닥보다 조금 더 높은 단 위에는 방석이 하나 있는데 심지어 그 방석에서 계속 정좌를 하는 게 심지어 바람직하다. 신의 영역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 흐트러진 모습이 없으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함부로 방석을 벗어나도 이내 방 안으로 저것은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한다.

저렇게 많은 밥상을 차려주고 있지만 사실 저것들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 간혹 체하거나 속이 안 좋은 날, 밥맛이 없는 날이 있어도 저 밥상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 어릴 적에 먹기 싫다고 조심스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것은 정색하더니 내 뺨을 한번 때렸다.

“넌 신이다. 인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인간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으니 다시 신으로 위치시켜주었다.”

그 말을 들은 후 어떤 날이든 저 밥상의 것은 억지로 먹게 되었다.

얼굴이 가려워도 멋대로 긁어서는 안 된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고 야단을 맞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화장을 지웠다고 야단을 맞기도 한다.

이 생활에 피로감을 계속해서 느끼고는 있지만, 한번은 멋대로 방 밖을 나가니 문밖에는 이미 경비병들이 세워져 있어 제자 당한 적이 있다. 방에는 창문도 없어서 문으로만 나갈 수 있는데 저렇게 경비가 있으니 가망이 없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단 아래의 바닥을 보니 붉은 피안화가 떨어져 있던 것이다. 저 꽃은 절대 저것이 갖고 온 것이 아니다. 저것은 이 방 자체가 신성하다며 절대 필요 없는 물건을 들고 오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들고 올 때면 꼭 나에게 보고를 한다. 그리고 갖고 온 물건은 반드시 회수한다. 한번도 물건을 잃고 회수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 정체불명의 꽃을 보면서 나는 저 꽃을 너무 집고 싶어졌다. 이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생소한 물건을 오랜만에 봤기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물론 저 꽃은 어릴 적에 본 적이 있기에 그 이름을 안다. 어릴 적에 신으로 선택받게 된 날 마지막 외출 때 나는 절에 가서 신이 되는 의식을 치렀다. 정확히는 신과 결혼하는 의식을 치른 것이다. 신의 새색시가 된 후 가마를 타고 절 밖을 나가고 있었는데 저 붉은 꽃이 피어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내 가마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 스님에게 저 꽃에 관해 물었다. 스님은 잠시 눈치를 본 후 조용히 저 꽃의 이름을 가르쳐주었다. 스님으로서는 살아있는 신에게 함부로 말을 거는 그것이 부담되기는 했겠지만 사실 스님도 내가 평범한 어린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나에게 대답해주었다. 어쩌면 어린 여자아이가 저렇게 살아있는 신이 된 것에 안쓰러워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바깥세상의 아름다운 것의 이름 정도는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 후로 바깥의 물건은 본 적이 없었는데 어째서 피안화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을까. 그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어가고 있을 무렵 방문을 누가 두들겼다.

저것이 다시 왔다. 맞다, 이제 곧 목욕시간이 되었기에 온 것이다. 머릿속에는 다급함이 일기 시작했다. 피안화를 저것에 들켜서 빼앗기기 싫다. 저것은 분명 피안화를 합의되지 않은 물건이라며 멋대로 불태울 게 뻔하다. 나는 달려가서 바닥에 내려간 후 피안화를 주웠다. 하지만 그 이후는 어떡할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무력할 뿐이었다. 나에게는 이 꽃을 지켜낼 힘조차 없다. 반항 정도야 하겠지만 결국 무력하게 꽃을 빼앗길 게 뻔하다. 그렇다고 이 빈방에 숨길 곳도 없다. 잘하면 옷 속에 숨길 수 있겠지만 하필 목욕 시간이라 옷도 소용이 없다.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끝나고 문이 천천히 열린다. 나는 피안화를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그저 이 꽃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이 남았다.

그렇게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어느샌가 홍살문이 있었다. 홍살문 주변에는 수많은 정승이 있었고 입구 옆에는 홍력을 입고 꿩 깃털 달린 주립을 쓴, 그리고 얼굴에는 하회탈을 쓰고 옆구리에는 환도를 찬 붉은 무사가 홍살문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바뀐 환경에 입이 벌어졌다. 잠시간 멍하니 서서 눈앞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홍살문 너머에는 환락가로 보이는 거리가 나왔다. 거리는 기와집들로 가득했고 거리의 도로 양옆으로 수많은 홍등이 줄을 섰다. 도로뿐만 아니라 건물의 기둥에도 붙어있고 창가에도 붙어있었다. 붉게 빛나는 도로, 홍등가였다.

시간은 밤이라서 그런지 홍등은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대낮과도 같이 환한 밤거리에 귀를 기울여보니 수많은 사람이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를 아무리 보아도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만히 서 있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나는 저

환락가 속을 거닐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들었다. 그 방의 바깥에 있는 이 풍경을 더 많이 깊이 음미하고 싶었다. 그래서 홍등가로 들어가기 위해 홍살문을 넘어서려 하는데 홍살문을 지키고 있던 무사가 내 앞을 막아섰다.

무사는 잠시간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내 키가 작았기에 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고 그로 인해 그의 가면에 그림자가 그늘져 훨씬 위압감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계속 나를 보다가 내 손에 들려있는 피안화를 보자 이내 품에서 가면 하나를 꺼냈다.

“무당탈”

이 가면을 쓰라는 것인가? 나는 천천히 그 가면을 받았다. 가면에는 내 얼굴에 그려진 것과 같은 연지곤지가 칠해져 있었다. 내가 가면을 쥐고 있자 무사는 가면을 얼굴에 끼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가면을 쓰자 그는 조용히 비켜주었다. 나는 환락가 속으로 조심히 걸어 들어갔다. 수많은 인파와 시끌벅적함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더군다나 그 인기척에 비해 사람 하나 없으니 더욱더 환락가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조금씩 마음이 풀리면서 점차 익숙해지자 홍등가는 아름답게 비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축제에 온 기분으로 나는 뛰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누군가에게 부딪치며 몸이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허허 젊은 처자가 기운차구먼!”

“허허 어디 놀지 못해 죽은 귀신에라도 씌었나!”

부딪쳤지만 그걸 즐겁게 받아쳐 주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한참을 달리면서 환락가를 살펴보니 길거리에 잡화를 파는 가게에서는 물건 판다며 소리치는 장사꾼들의 소리가 즐거웠다. 주막에 올려져 있는 국밥들을 관찰했다. 밥 먹으면서 찹찹대는 소리도 즐거웠다. 그 외에 하늘에 날려지는 연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즐거웠다.

그때 길을 가다가 어느 기생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기생집 안에 사람이 보였다. 각시탈을 쓰고 검은 기생복을 입고 너울 전모를 쓴, 입에는 담뱃대를 물고 고혹적인 눈빛으로 바깥을 바라보는 기생, 검은색 긴 생머리는 대단히 보드라워 보였다. 그녀의 양어깨 쪽의 옷은 반투명해서 어깨가 비춰 보였다.

그녀는 잠시 바깥을 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물론 가면을 쓰고 있어 눈이 마주친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면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손짓을 한다.

“귀한 손님이 오셨네.”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숨뭇치가 무거워.”

처음에는 당황했다.

“이불을 밟아버렸네.”

그렇게 계속해서 불연속적인 이야기를 기생은 계속했다. 이어짐 없는 대화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다음에는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상상이 가지 않아 오히려 재밌어졌다. 그리고 나도 그녀와 함께 대화하기 시작했다.

“모자에 등지가 텃네?”

“애벌레가 지붕 위를 기어 다니고 있어.”

“홍등에서 구름이 새어 나오고 있어.”

“모래 국밥.”

“의자 다리에 말이 앉아있어.”

“입안이 가려워서 긁었어.”

그러나 대화뿐만이 아니라 어느샌가 기생은 변해있었다. 그녀는 어느샌가 중학생 정도에 단발인 그녀는 세일러복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되어있었다. 그녀는 탈을 쓰고 있었지만, 탈의 종류가 바뀌어 있었다. 사실 교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마치 정보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고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와도 대화를 계속해나갔다.

“한옥 지붕에서 잠을 잤어.”

“발톱이 나한테 이빨을 드러냈어.”

“저 앞에 양반은 불을 떠먹고 있어.”

“새들이 나무를 입에 물고 날고 있어.”

“구름 속에 물고기들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에는 바니걸 모습을 한 여인이 나타나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도 탈을 쓰고 있고 머리에는 토끼 귀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시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한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세차게 흔드는 것 같다.

눈을 뜨니 다시 그 방이다. 눈앞에는 보기 싫은 것이 있다. 아버지라는 것. 그는 매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손을 올려 그만해도 된다고 하자 그는 걱정을 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나의 뺨을 후렸다.

“신으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더니 그의 손에는 아까 내가 주운 피안화가 있었다.

“아까 내가 손에 이것을 쥐고 있더구나.”

나는 저것의 손에 쥐어진 피안화를 빼앗으려 손을 내뻗었으나 저것은 가볍게 내 손을 피하더니 눈앞에서 피안화를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 가슴속에 절망이 차기 시작했다. 나는 그만두라고 울부짖었으나 저것은 계속해서 피안화를 찢어댔다. 그러더니 피안화는 어느샌가 다 찢겨 있었다. 나는 아연실색해서 땅에 떨어진 찢긴 피안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저것은 용납 안 했다. 피안화로 향하던 내 손을 낚아채더니 그것을 억지로 잡았다. 나는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안화에 닿으려 했으나 저것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 소통, 소통을 해보자. 소통해서 합의를 보자. 합의를 봐서 서로가 간극을 없애고 함께해보자.”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오르기 시작했다.

“너 따위와 소통할 건 없어. 너 따위와 합의 따위 보기 싫어. 영원히 너 따위의 것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받고 싶지도 않고 함께하고 싶지도 않고 간극을 없애고 싶지도 않아. 그저 영원히 너를 이해 못 하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나를 이해 못 하게 하고 싶어. 영원히 너와 찢겨서 소통 따위 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싶어.”

“그러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소통을....”

“내가 바치는 제물 따위로 흥정이 될 것 같아? 매일같이 누군가를 착취해서 가져온 그 밥상을 멋대로 내놓고는 감히 거래하려고 해? 거래해서 흥정하고 소통을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 해? 멋대로 거래가 가능한 상대라고 설정해놓고서는 거래할 수 있으니 그에 합당한 물품만 주면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이야. 합당한 제물만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멋대로 상정하고 말이야.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을 거야. 네가 아무리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해서 나를 통제권에 넣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도 넌 절대 나와 거래를 할 수 없을 거야. 화목은 신과 나 사이의 화목이야. 그 화목을 깨닫는 것은 오직 스스로만이 가능해. 세계가 나의 의도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신과 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야. 대속이란 없어. 안락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 구원과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떠넘기는 것이 아니야. ”

나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부으며 악을 썼다. 그러자 저것은 갑자기 방을 나가더니 한 손에는 밥그릇을, 한 손에는 숟가락을 가지고 왔다. 저것은 숟가락에 밥을 푼 후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한 손으로 내 입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나는 입을 최대한 다물고 온몸으로 발악했다. 그러나 이내 입을 열려던 손은 나의 복부를 강타했다. 고통이 온몸에 엄습하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 틈을 타 저것은 내 입을 손으로 비집고 들어가 열었다. 입속에 저것이 숟가락에 퍼진 밥을 넣으려 하기 시작했다. 나는 입속을 비집은 그것의 손을 있는 힘껏 물었다. 그러자 그것은 비명을 질렀다. 입속에는 그것의 손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을 못 이기고 입속에서 손을 뺐다.

나는 기분이 나빠서 입속에 고인 그것의 피를 뱉었다. 피는 신성한 제단에 먹칠을 가했고 그 상황을 본 그것은 머리에 핏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신 따위 다시 만들면 돼. 네가 싫다면 대타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러더니 저것은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가 공포를 지워버렸기에 나는 달려드는 그것의 칼을 손으로 막아내며 맞섰다. 하지만 나는 힘이 달렸다. 아무리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도 결국 힘이 밀려서 점차 칼은 나의 심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든 칼을 밀쳐내려 했으나 그런 소망과 달리 점점 칼은 조여오고 있었다.

결국, 칼은 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갑자기 온몸이 바람이 빠지듯 힘이 빠진다. 급속히 힘이 빠지자 나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며 기침을 할 때마다 심장의 피가 폐에 고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각혈을 하며 피는 또 한 번 바닥을 더럽힌다. 점점 의식이 없어진다. 무력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또 새로운 신을 모셔와야 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거래가 안 되는 신 따위 버릴 수밖에 없지.

이왕 죽인 거 아깝게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해보자. 인간들을 위해 죽었다고 신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겠군. 그래, 그것도 분명 그녀를 위한 행위겠지. 이렇게 인간을 배신하고 추악하게 죽었다는 사실보다 인간을 위해 자신을 신의 제물로 바쳤다는 숭고한 행위로 포장하는 것이 그녀를 위한 것이겠지. 더군다나 제물도 바쳤으니 그 제물에 합당한 보상도 분명 내려지겠지.

죽은 딸의 시체를 정리하기 위해 시체에 손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바뀐다.

홍등으로 가득 찬 환락가 속에 있었다. 수많은 기와집과 홍등이 거리에 빼곡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있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내 다시 투명해지는 듯했다. 사람들은 얼굴에 탈을 쓰고形形色색의 한복을 입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무당 탈을 쓰고 머리에 칠보족두를 쓴 단발의 탈을 쓴, 나의 딸이 서 있었다. 탈을 써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단발과 키, 체형 등은 딸과 똑같았다.

딸로 생각되는 그것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수많은 탈을 쓴 인파들이 멈춰서더니 모두 나를 응시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그것들은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땅속에서는 정승들이 튀어나온다. 탈을 쓴 사람들과 정승들은 나를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너무나 아파 비명을 질렀으나 그 비명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나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던 딸은 점차 다가오더니 똑같이 나를 물어뜯기 시작한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나를 물어뜯던 수많은 사람은 물어뜯은 나의 살갗을 바닥에 다시 뱉어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뱉듯이 말이다. 그렇게 점차 온몸의 살갗이 사라져가고 뼈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머리와 얼굴도 뜯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뼈도 부서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의식이 흐릿해져 간다.

그렇게 한바탕 피의 축제가 끝난 후 그것을 뜯어 물은 수많은 인파에 가게 속 다른 사람들이 손에 소금물이 담긴 통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양치질하듯 손가락에 소금물을 담근 후 그 손가락으로 입속 곳곳을 닦기 시작했다. 그 후 마지막으로 입속에 소금물을 머금은 후 그것을 뱉었다. 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들 평소와 같이 축제를 즐기며 활기차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잠시 모습을 보이던 탈을 쓴 사람들은 다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인파 속을 무당 탈을 쓴 새색시는 신나는 듯이 꺾충꺾충 뛰어 오르며 신의 거리를 누비기 시작한다.

사이코패스

사회복지학전공
20197059 강나운

등굣길이다.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올라가는 남자애들이 날 보고 지나가더니 얘기했다.

“이은아다.”

“헐 예쁘다..”

그 순간 난 발이 미끄러졌다. 넘어진 것이다. 무릎이 다 까졌다. 무릎에서 피가 고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어디서 본 얼굴이었다.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이름은 김혁우. 난 그 애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 그 애의 얼굴은 본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애는 앉아 내 무릎에 시선을 맞췄다. 그는 상처 그 근처를 손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약 발라야겠네. 바보같이 넘어지고.”

그 애는 보건실까지 날 데려다 주었다. 심장이 터져 버릴 거 같았다.

그 애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때였다. 내가 초등학교 때는 표정이 없었다. 감정 변화가 없어 아이들은 날 무서워했다. 그래서 한동안 따를 당했다. 친구가 없었다. 그런데 같은 반에 나처럼 항상 혼자 다니는 남자애가 있었다. 그 애는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음에도 사귀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애가 바로 오늘 마주친 김혁우였다. 그 애가 풍기는 신기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음에도 그 애가 무척 편하게 느껴졌다. 난 그 애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그 애는 내 인사를 듣고 내 눈을 0.3초 쳐다봤다. 그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가버렸다. 껄썩했다. 다시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 뒤로는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여자애들이 체육 시간에 나를 데리고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내게 온갖 욕을 했다.

“야. 왜 말을 안 해. 병어리야?”

“말을 하라고.”

“애 말 못하나봐. 개웃겨. 하하.”

“하하. 표정 변화 없는 것 봐. 무서워.”

“진짜 사이코패스인 거 아냐?”

“무섭다.”

“더러워.”

“사이코.”

난 다른 말보다 사이코란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난 내가 진짜 사이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김혁우가 나타났다.

“야. 애 좀 그만 괴롭혀.”

그러고는 그냥 갔다. 난 나중에 그 애에게 가서 물었다.

“왜 간섭해?”

“이건 간섭이 아니잖아.”

“간섭이거든?”

난 다짜고짜 짜증 났다. 넌 그 말에 대답했다.

“미안해.”

난 네게 짜증을 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왔다. 네가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자 난 말했다.

“야. 아깐 고마웠어.”

넌 뒤돌아봤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다. 거기서 난 네가 날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쿵쥔댔다. 처음으로 느낀 강렬한 감정이었다. 넌 말했다.

“아니야. 개네가 나쁜거지.”

다음 날 우리는 학교에서 만났다. 그 애는 내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할 말이 없어지자 난 김혁우에게 말했다.

“진짜 학교다니기 싫다.”

내 말에 그는 대답했다.

“왜?”

“학교 다니기 귀찮거든.”

너는 내 말에 대답했다.

“음… 확실히 학교가 지루하긴 하지.”

“응. 이 학교 그냥 짜고 싶어.”

“그럼 좋지.”

“우리 옥상 올라가자.”

“응.”

수업시간 5분 전인데 우리는 옥상에 갔다.

“앞으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나한테 말해.”

“알겠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같이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소꿉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중학교를 가면서 우린 조금씩 멀어졌다. 그 애가 여자친구를 사귀다는 소식 이후로는 완전히 끊겼다. 그러나 우린 같은 고등학교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그 애는 고등학생이 되며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다. 친구도 무척 많아지고 운동도 많이 한 것 같았다. 그 시기에 난 그 애에게 사랑에 빠졌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 애에게 마주칠 때마다 수줍게 인사했다. 또 집이 근처라서 같이 집에 가자고 했다. 우리는 매일 집까지 같이 갔다. 난 그 애를 볼 때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린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김혁우는 내게 고백을 했다. 편지를 주면서 말이다. 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울며 대답했다.

“좋아.”

그 애와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다.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이었다. 뭔가 그 애의 발걸음이 수상했다. 그 애는 뭔가 나의 전화도 차츰 덜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난 그 애의 집 뒤에서 숨어서 그 애를 미행하려고 했다. 그 애가 나와 전화가 끝난 뒤에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갔다. 20분 정도 말이다. 난 그 뒤를 몰래 쫓았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여자애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애는 대화하다가 김혁우를 끌어안았다.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둘이 어느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카페에서 둘이 무슨 얘길 하는지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란히 앉아서 몸을 밀착시키고 대화하고 있었다. 여자애는 자꾸 혁우의 손을 만지작 거렸다. 그러다가 한 두 번 그 둘이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 난 그걸 보자 하늘이 노래졌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에 저 여자애를 죽이는 영상이 몇 번 스쳤다. 그 둘을 포착하고 난 후 난 집에 혼자 돌아왔다. 두세 시간 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걸었던 부재중 전화에 전화한 것이다. 난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혁우가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우리 사이가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서 끔끔 앓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그에게 문자 온 것을 보았다.

‘뭐해?’

혁우의 문자였다.

‘그냥 있어.’

‘그렇구나.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난 바람에 대해 얘길 꺼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답장했다. .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러나 난 그 여자애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여자애와 혁우를 그만 만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바로 그 여자애를 죽이는 방법이 있었다. 난 별로 살인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후로 그 여자애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혁우가 나가는 것을 따라가서 그 여자애를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그 둘이 놀이터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봤다. 그리고도 혁우는 나를 만나 매번 사랑한다고 말했다. 난 그 말을 믿었다. 우리 둘은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갈라놓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여자애와 내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를 가까이서 들은 적 또한 있다. 아저씨처럼 코트를 입었다. 분장을 하고 그들이 앉아있는 벤치 뒤 우거진 수풀 뒤에서 말이다.

그 여자애가 말했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난 너밖에 없어.”

“그런데 왜이렇게 연락이 안돼? 바람 피거나 하는 거 아니지?”

그 여자애가 물었다.

“그럴 리가 있겠니.”

“그치. 난 널 정말 믿어.”

“나도야.”

“사랑해.”

그 여자애가 말했다. 둘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기절할 것만 같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난 그 여자애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 여러 가지가 떴다. 카페에도 가입해서 물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았다. 나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했다. 난 누구에게 물어봐야할지 고민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위장 자살이었다. 그 아이의 사물함에 편지를 넣는 것이다. 내용은 ‘죽고싶다. 내가 죽어도 행복하게 살아달라.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밝던 애가 갑자기 자살하면 이상해보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그 애를 나락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교사나 친구들이 안좋게 볼 것이다. 당연히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다. 또한 자연스레 우울한 분위기를 풍길 것이다. 그때 자살 편지를 가방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는 옥상에 불려서 옥상에서 밀쳐낼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그 애가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cctv가 복도 곳곳에 있었다. 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어딘지 학교를 둘러보았다.

난 여러 번 그 애의 반에 가서 그 애의 물건을 훑쳐다가 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 애는 별로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여전히 잘 지내는 듯 해보였다. 그 애의 친구들은 그 애가 사진 합성을 당했다면서 옹호해주었다. 사진 합성이 너무 티가 난다면 말이다. 정말 사진에는 합성한 티가 났다. 박진주의 얼굴과 배경 사이가 많이 일그러져 있었다. 사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합성의 티였다. 난 화가 났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진 합성을 만든 주범을 찾겠다는 얘기가 돌았다. 난 겁이 났다. 그래도 이런 소문이 돈 이상, 내 남자친구와 박진주는 조금 관계가 멀어졌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교 시간에 난 그 둘을 다시금 미행했다. 둘은 오늘도 그 여자애의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 여자애는 말했다.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산책하기 좋은 날씨야.”

“날도 풀렸는데 산책도 할래?”

“좋아.”

난 이 시점에서 김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혁우는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다.

“요즘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그래? 받아봐.”

“이 번호는 받아도 아무 말도 안한단 말이야.”

“이상하네.”

“봐볼래?”

김혁우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대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봐봐.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그러곤 김혁우는 전화를 끊었다.

“이게 좀 무서운 게 차단을 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

“이상하네.”

“응.”

나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저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 이어만 하기 때문이다. 난 남자친구를 소유하고 싶었다. 난 그럴 자격이 있었다. 박진주는 말했다.

“이상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럴까? 정말 신고해야겠다.”

난 그들이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더는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빠져나왔다.

다음날 학교였다. 담임 선생님은 나보고 교무실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난 교무실에 갔다. 교무실엔 사람들이 많았다. 담임선생님은 날 학교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카페는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은 내게 물었다.

“너 뭐 마실거니?”

“저 코코아요.”

“그래? 저희 코코아랑 카푸치노 주세요.”

선생님은 빵이 진열된 곳을 보셨다. 내게 물었다.

“너 마카롱 좋아하니?”

“네.”

“그리고 저희 초코케이크 하나 주세요.”

담임선생님은 엉뚱하게 초코케이크를 시키셨다.

그 모습에 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퐁.”

“우리 어디 앉을래?”

담임선생님이 물었다.

“전 상관 없어요.”

담임선생님은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갔다. 담임선생님은 말하셨다.

“여기 카페 어때?”

“괜찮아요.”

카페에서 음악이 나왔다.

“은아야. 너 저번에 공연 때 보니까 노래를 엄청 잘 부르더라.”

“감사합니다”

“응. 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참 멋있더라.”

“네.”

담임선생님은 내게 물었다.

“그래. 넌 근데 나중에 무슨 학과 갈 거니?”

난 대답했다.

“전 대학 생각 없어요.”

“그렇구나. 나도 고등학생때 그래서 자퇴했었어.”

“왜요?”

“그냥 재미가 없었거든.”

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3수로 대학교 지원했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윽고 대화는 본론에 도달했다. “나는 네가 진주 물건 훔친다는 걸 안단다.”

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날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달랐다.

“왜 그랬을까? 요즘 고민이 많은가보다.”

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말하셨다.

“어떤 고민일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주문하신 코코아랑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말하셨다.

“아. 나왔다.”

미소를 짓고 음료수를 들고와 앉으시는 선생님에게 난 물어봤다.

“선생님은 왜 절 비난하지 않으세요? 훔치고 그러는 전 별로지 않나요?”

담임 선생님은 말했다.

“아니야. 선생님은 네가 어떻게 다 좋고 아껴줄 거란다.”

난 물었다.

“왜요?”

“선생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난 네가 한 행동보다 훨씬 나쁜 짓들도 많이 했단다. 고작 그런 것들로 널 판단하고 싶지 않아. 네가 뭘 하든 넌 내 사랑스러운 제자니까.”

난 그 말에 내 고민거리들을 다 털어 놓고 싶어졌다.

“선생님 저 사실은요. 저 유치원 때 10살 차이 나는 친언니가 자살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 나갔던 거 같다.

그 날은 왠지 미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유는 모르겠었다. 그 다음날이 되었다. 난 김혁우와 박진주를 미행했다. 난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남인 것처럼 말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또 내가 있는 걸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타오르는 질투를 느꼈다. 이 질투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 둘

은 대화했다.

“요즘 이상한 번호로 오는 거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 잘했네.”

난 그 대화를 듣고 무척 화가 났다. 그 둘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돌아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어두운 골목에 고양이가 있는 걸 봤다. 그 고양이는 다리를 다친 거 같았다. 차에 치인 거 같아 보였다. 필통에서 커터칼을 꺼냈다. 고양이를 커터칼로 세게 찔렀다.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았다. 다시금 찔렀다. 킁킁거리며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지금은 살아있어도 몇 시간 후면 죽을 거 같았다. 난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다.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곳이었다. 아무도 나임을 모를 것이다. 난 커터칼을 가방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박진주가 그걸 보고 있었다. 입을 틀어막은 상태였다. 눈이 마주치자 덜덜 떨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거 같았다. 그녀는 소리 질렀다.

“사람 살려요. 살인마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난 그녀를 조용히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복부를 커터 칼로 찔렀다. 그녀는 쓰러졌다.

다음날 보니 그녀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친 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지목했. 나는 경찰서에 끌려갔다. 보호자로서 담임 선생님이 왔다. 어머니는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았다. 담임선생님은 차갑게 굳은 무표정 이었다. 내 손을 잡아주셨다.

“왜 그랬니.”

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경찰서는 처음이지?”

난 끄덕였다. 담임선생님은 내 표정을 보더니 말했다.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선생님은 나를 가볍게 등을 두드려 주셨다.

“괜찮아. 배고프지는 않니?”

난 여태 한 번도 안 울다가 그 말에 웬지 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담임 선생님은 말하셨다.

“먹을 것 좀 사올게.”

경찰들은 내가 지속적인 미행을 해왔음을 밝혔다. 또 내가 두 개의 핸드폰으로 혼자서 김혁우와 연락하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밝혔다.

한가을 밤의 꿈

일본학과

20171635 정주연

A는 도시에서 자라왔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밝은 도시 내에서 A는 항상 어두웠다. 넘쳐나는 입시학원,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즐비한 이 도시는 A에게 버겁게 다가왔다. A는 즐기고 싶어도 스케줄은 언제나 부모님이 짠 대로 ‘학교-학원-집’으로 끌려다니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A는 친구들과도 소통하기가 어려웠고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첫째였던 탓에 항상 이리저리 치인 채로 살아왔었다. 그런 A에게는 뭔가의 도전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였다. 그런 A의 유일한 취미는 독서였다. 어렸을 때부터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 보며 자신도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 10년간 간절히 바라왔던 ‘출판편집자’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님께 용기 내어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A야 똑바로 생각해. 네가 과연 그걸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훨씬 널 리고 널렸어. 엄마 생각에는 포기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엄마의 말에 A는 눈물을 흘렸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A는 결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대학교와 학과는 부모님이 말한 대로 넣었지만, 대학에서 복수 전공으로 ‘국어국문학’을 공부하며 지냈다. 그렇게 A는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A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A는 희망에 찼다. 부모님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출판사에서 공고가 올라오는 글을 보며 매번 지원했지만, A에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보밖에 없었다. 지속적인 불합격 통보에 지친 A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자그마한 출판사에 편집자로 취업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출판사 안에 편집 톨을 다룰 수 있는 건 오직 A 한 사람이었고 야근은 필수였으며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싫어 무작정 집을 떠난 A였기에 월세도 생활비도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결국 일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A는 계약기간인 1년만 버텨보자고 다짐했고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상사의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기간을 만료했다. 자신의 집을 다 챙긴 채 직접 회사 밖으로 걸어 나온 A는 후련했지만 개운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출판편집자를 하면서 행복했는지를. 그와 동시에 이 일을 계속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집으로 돌아온 A는 혼자 생각에 잠겼지만,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다다른 것은 다짐도 포기도 아닌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A는 여행이 자신에게 해답을 줄 거라고 믿으며 춘천행 기차를 예매했다. A는 웬지 모를 설렘에 들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으며, 자신을 괴롭히던 일도 상사도 없었다. 마음 편히 다녀올 여행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라며 A는 침대에 몸을 누였다.

-

B는 시골에서 자라왔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 가로등만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불빛인 곳에서 B는 빛이 났다. 그곳은 입시 공부를 할 학원도 없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B는 친구들을 모아 수다를 떨기도 하고 놀기도 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는 했다. 더군다나 B는 우등생이었다. 언제나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급위원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성실한 아이였다. 그런 B는 부모님께 항상 말하고는 했다.

“엄마 아빠, 나는 대학교 진학 안 할 거야.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

B의 말에 부모님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응원해 주었다. 동네 안에서도 B는 어른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시골 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찾아가 일을 돕고는 했었다. 설령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순경을 불러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런 B의 행동은 군에서 표창장을 받는 일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았던 B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B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또한, 틈틈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공부하기도 하며 고등학교 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런 B를 보며 친구들은 ‘괴물’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B는 그런 반응이 싫지 않았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한 끝에 B는 시험에 합격했다. 동네에는 현수막이 걸렸고 B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모두 B를 축하해 주었다. B는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동네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꽃길만 놓여있을 줄 알았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다. B는 지금 OO군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년 차 공무원이 되었고 동네에 진절머리가 났다.

공무원이 되자마자 태도를 바꾼 건 어른들이었다. 행정직을 맡고 있던 B였지만, 어른들의 부탁에 매번 불려 나가 외근을 하기 바빴다.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쌓여있는데, 매번 어른들은 편한 B에게 일을 맡겨왔다. 간혹 B가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면 B의 집에 찾아가 일을 부탁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3년이 지나니 자신을 예뻐하던 어른들이 악마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한 건 ‘연금’ 때문이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돈을 위해서라도 B는 어김없이 일어나 일을 하러 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처리하던 도중 한 동네 할머니의 부탁으로 나간 B는 전구를 갈아달라는 말에 한숨을 쉬고 만다. 일을 마친 B는 인사를 한 뒤 현관 밖으로 나가는 길에 들어서지는 안 되었던 말을 듣고야 말았다.

“B가 예전 같지 않네. 우리 세금 걷어서 돈 받는 거는 아는지 몰라.”

그 말에 B는 자신이 하는 일이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부탁한 대로 다 하고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칭찬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른들에게는 이건 배려가 아닌 당연히 도와야 할 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안 B는 시골이 한순간에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B는 고개를 저었다. 한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벗어날 자신은 없었다. 이미 자신은 도시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게 뻔했다. B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휴식이 필요했다. 평소와 다른 날을 보내면 이런 생각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휴가를 신청했다.

-

A는 창문에 쏟아지는 햇빛에 깼다. 그리고 불현듯 자신이 머무는 집이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햇살이 든 것에 초조해졌다. 기차 출발까지 1시간 반 남짓 남아 있었다

“아씨, 큰일 났다. 분명 알람을 맞췄는데 왜 이 시간에 일어난 거지?”

하지만 자책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A는 부랴부랴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여행에 들고 갈 짐들은 어제 챙겨두었던 덕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청량리역까지 가려면 적어도 버스나 지하철을 50분간 타야 했다. 하는 수 없이 A는 잠옷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세안을 마친 뒤 필수품을 가방에 욱여넣고 밖으로 나왔다. 분명 여유롭게 잡은 기차 시간이었는데 늦잠으로 인해 기차를 놓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 A는 여행을 즐겁게 보내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택시를 잡지 못하면 기차를 다시 예매해 줄지 못한 시작으로 여행에 올라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걸어서 5분이면 큰 도로가 위치한 곳에 살고 있던 A였기에 무사히 택시를 타고 역에 도착했다. 화요일 오후, 한산한 춘천행 기차 안에서 A는 무사히 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감기는 눈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A는 가평이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잠에서 깼다. 청량리역에서 봤던 높은 건물들이 아닌 산과 강이 있는 가평의 모습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편안해졌다. 창문에 지나가는 풍경을 보다 말고 춘천에 온 김에 닭갈비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닭갈비를 떠올리다 보니, 점심을 챙겨 먹지 못한 배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A는 내릴 남춘천역 근처에서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서 밥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뒤 다시금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남춘천역에서 내린 A는 닭갈비 집 간판을 보고 이끌려 들어갔지만, 1인분을 파는 닭갈비 집은 없었다. 또한, 내린 시간이 3시였기에 대부분의 가게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걸고 있었고 A는 어쩔 수 없이 지도상 근처에 있던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햄버거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배가 채워지니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보다는 아니었지만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춘천을 보니 새삼 신기하게 다가온 A였다. 서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의 공기는 신선했고 하늘도 좀 더 푸르러 보였다는 것이었다. 남은 감자튀김을 먹으며 목을 호텔까지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호텔로 향하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 풍물시장이라고 적힌 정류장을 보았지만, 버스가 20분 뒤에 온다는 알림을 보고 바로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호텔은 공지천 바로 앞에 위치한 터라 이곳에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걸으면서 춘천의 풍경을 눈에 담을 생각을 하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 보였다. 계속 걸던 A는 우연히 발견한 공원 길을 통해 걷기 시작했다. 그 공원에는 몇몇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하기도 했다.

‘아직 쌀쌀하지 않으니, 공원에서 노을 바라보며 맥주 한 캔 마시는 것도 좋겠다.’

사람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A는 생각했다. 다리를 건너 도착한 호텔에서는 좋은 방을 배정받았다. A의 방은 호수가 바로 보였다. 탁 트인 풍경을 보니 괜스레 벅차오름을 느꼈다. 자신의 방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 A였지만, 방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은 평소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

에 짐도 풀지 않고 다시금 밖으로 향했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자주 마시는 맥주를 사 들고 벤치에 털썩 앉아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맥주는 속 안까지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불과 2시간 전 점심으로 닭갈비를 못 먹은 건 아쉬웠지만, 서울과 이곳은 가까우니 조만간 친구를 데리고 여행을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 온 여행이었으나 탁 트인 전경과 맥주를 마시는 괜한 근심 걱정이 사라져 큰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 A의 뒤에서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

B는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B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춘천까지 직통으로 가는 편이 없었기에, 기차를 타고 역에서 시외버스를 거쳐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야만 했다. 굳이 춘천이라는 지역을 택한 건, 충북의 끝에 살고 있던 B였기에 남부 지방으로 여행은 자주 갔어도 강원권으로 여행을 떠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자신의 고향과 굉장히 먼 곳이었기에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택한 것이었다.

오전 5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간단한 준비를 마친 뒤 짐을 들고 역까지 향하는 첫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5시 58분 기차를 타고 역에 도착하고 7시 10분 춘천행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다. 여행 일정은 딱 차 있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었기에 설렘지만, 원하는 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다. 분명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뻘뻘하게 스케줄을 짠 건 B의 성격 때문이었다. 우선은 스케줄을 짜되, 여건이 안 되면 일정을 삭제하는 식으로 일상을 살아오던 B는 여행에 있어서도 이 성격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춘천에 도착하려면 3시간이나 가야 했기에 B는 버스 안에서 졸음을 청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터미널에 도착했다. B는 졸린 눈을 비비며 버스에서 내렸다. 짐칸에서 캐리어를 내린 뒤 터미널 보관소에 짐을 넣어 두었다. 그 뒤, 간단하게 밥을 해결하기 위해, 봐두었던 ‘춘천닭갈비빵’을 먹으러 향했다. 마음 같아서는 닭갈비를 먹고 싶었지만, 블로그를 찾아본 결과 2인분 이상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닭갈비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A는 강원대학교 정문까지 걸어가 닭갈비빵을 사 먹었다. 먹고 난 뒤에는 돌아갈 때 고향 친구들과 부모님의 선물로 사 들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에도 B는 설 틈 없이 움직였다. 춘천에 관광지도 많지만 그와 비례하게 카페와 맛집도 많다는 글을 봐서인지 관광보다는 먹거리에 비중을 두고 돌아다녔다. 빵을 먹고 나서 산책할 겸 크게 강원대학교 주변을 돌던 B는 강원대 후문에 위치한 분식점에서 닭꼬치를 먹고, 점심에는 법원 쪽으로 다시 돌아가 불맛이 많이 나는 차돌박이 짬뽕을 먹었다. 이후에는 디저트가 맛있다고 소문난 남춘천역 인근 카페에 가서 설 겸 아메리카노와 크로플을 시켜 먹으며 알차게 먹거리를 즐겼다. 사실 B는 신복읍에 위치한 고구마빵을 파는 곳도 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멀었던 탓에 쉽사리 리스트에서 지워버렸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B는 터미널로 돌아가 짐을 찾은 뒤 체크인을 하기 위해 공지천으로 향했다. 다행히

버스가 3분 뒤에 온다는 것을 보고 B는 쉽게 호텔로 들어갈 수 있었다. B의 방은 호수의 반대편이었다. 호수를 볼 수 없는 건 아쉬웠지만 나가면 실컷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별생각 않고 짐을 푼 뒤 침대에 누웠다. B는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걸었던 탓에 피로가 몰려들었고 자연스레 잠을 청했다.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다. 1시간 반가량을 자다가 깬 B는 해가 저 쏄쏄해지기 전 공지천 산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섰다.

호텔 밖에 나가보니 풋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옆 벤치에는 한 남자가 맥주를 마시며 공지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서 묘하게 동질감을 느낀 B는 옆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들고 나와 그에게 던지시 말을 걸었다.

-

“혹시,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A는 굉장히 당황했다. 혼자 여유롭게 생각에 잠겨있는 와중에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말을 버벅거렸고 B는 이를 보며 웃어 보였다.

“저랑 같은 처지이신 거 같아서요. 저도 혼자 여행 왔거든요. 생각 정리하려고 온 여행이었는데, 막상 와 보니 계속 먹기만 하더라고요. 아, 혼자 오셨으면 닭갈비도 아직 못 드셨겠네요?”

“아.. 네, 1인분은 안 팔더라고요.”

“저랑 저녁으로 닭갈비 드시러 가실래요? 때마침 노을도 거의 다 저서 밥 먹을 시간대인 거 같은데”

B는 A에게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숙소 주변은 한산했고 4~50대 아저씨들이 경기장에서 풋살을 하는 게 전부였다. 자신과 엇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A에게 말을 걸었을 때, 더더욱 확신이 들었다. 혼자 여행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묘하게 공통점이 보이는 그에게 관심이 갔던 B는 내친김에 저녁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반면,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음표투성이였다. 우선 처음 본 사람이라는 점이었고 무턱대고 자기 의견을 뱉는 B를 보면서 신천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대놓고 거절 할까도 했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면 굳이 공원에 신천지가 돌아다닐 거 같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무엇보다 닭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결국 A는 초면인 B와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으러 향했다.

A는 닭갈비 집에 도착할 때까지 B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신과 굉장히 비슷했다. A는 B의 말에 공감을 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줄 뿐이었다. 닭갈비

집은 B가 맛집으로 소문난 곳을 블로그에서 봤다며 데리고 왔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착석해서는 자연스럽게 닭갈비 2인분을 주문했다.

“아, 생각해 보니 제 이름을 얘기 안 했네요, 저는 B예요. 그쪽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A예요. 저희 이름도 되게 비슷하네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혹시 A씨는 어쩌다가 춘천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랑 회의감 때문에 도피하다시피 떠난 여행이에요. 정작,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은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먹을 거만 먹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A는 거침없이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B가 신기했다. 사실 A는 자기의 이야기를 남에게 잘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굳이 남에게 내 이야기를 해서 걱정시키는 것도 싫었고 자신이 힘든 일을 얘기하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 하지만, B는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고 이번 여행을 끝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탓일까. A는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B에게 얘기했다. 말하던 중에 닭갈비가 나와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볶으러 오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우려와 달리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여태까지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운한 느낌과 함께 B의 위로를 들으니 가슴이 쫘아졌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답답하고 힘드셨을 텐데, 여태까지 버티신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막상 말하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한 걸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네요.”

“에이, 얘기하고 후련함을 느끼셨다면 그걸로 된 거죠.”

닭갈비가 다 익어 먹어도 된다는 이모님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젓가락을 들었다. 그런 행동에 둘이 웃음이 터져 버리고 말았다. 저녁에 먹은 닭갈비는 와서 두 사람의 머릿속에 만나서 먹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온 A와 B는 담소를 나누며 길을 걸었다. B는 원하던 닭갈비를 먹어 만족스럽다는 생각과 동시에 맥주가 마시고 싶어졌다. 평소 즉흥적이지 않던 B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계획적이고 정형화된 삶을 살아오던 B는 이곳에서만만큼 틀에 맞추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

“A씨 호텔 앞 벤치에서 가볍게 맥주 한 캔 어때요?”

“좋은 거 같아요. 따뜻한 음식 먹었으니 시원한 거 먹고 잠들면 딱일 거 같아요.”

A와 B는 맥주를 사서 벤치에 앉았다. 맥주캔이 따지는 청량한 소리와 맥주가 맞닿는 소리가 들렸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B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 하루하루 늘어만 갔어요, 선행이라고 생각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로 치부되어 버리니까 제 할 일이 늘어 가더라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정말 명예롭게 생각했던 일이 돈으로 다시 또 연관 지어 생각하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일도 하기 싫은데 꾸준히 문의는 들어오고 처리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아까 갈 때는 어색해서 제 얘기를 했던 거라서 편해진 지금은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에는 둘 다 힘들었던 사람들이었네요 저희.”

“그러게요. 사람마다 제각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 같네요. 정말 힘들고 지쳤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짐을 덜고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가볍네요. B씨 덕분이에요.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응해 주셔서 감사하죠.”

춘천의 밤하늘은 캄캄했지만 그 덕에 별들이 더 잘 보였다. A와 B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별들이 자신들과 같다고. 어쩌면 그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맥주를 다 마시고 나서는 서로의 방으로 돌아간 A와 B는 창문 밖 풍경은 달랐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여행에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었다.

-

A와 B는 첫날을 끝으로 만나지 못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다. 그들 역시 한 번 만나고 말 사이라는 것을 어림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행 이후에 종종 그 시절의 추억만을 회상할 뿐 많은 변화를 꾀하지는 않았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평범한 현실에 이미 짜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A와 B는 현실에 안주하는 길을 택했다. 그게 비로소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였다. A는 디자인 직무 회사의 정규직으로, B는 작은 시골에서 노인분들의 행정을 도우며 사는 것을 택했다.

“석원씨, 여기 기존에 원했던 색감이랑 다른 거 같은데?”

“아 그건 밝기를 낮추는 게 텍스트가 더 잘 보일 거 같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바꿀까요?”

-

“수인씨, 오늘도 외근이에요? 고생하시네요.”

“에이, 저랑 비슷한 처지인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제 일인 걸요. 그럼 다녀올게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이를 한가을 밤의 꿈으로 여기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별다를 거

없이 똑같은 삶으로 보이겠지만 그들은 달라졌다. 그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변화였다. 그들은 삶 속에서 자그마한 변화를 이끄는 중이었다.

<비평 부문>

「비 오는 날」에 대한 새로운 고찰

국어국문학전공
20187004 고지윤

1. 서론

「비 오는 날」은 기존 문학사 연구에서 1950년대 전후문학의 관점으로 6.25 전쟁 이후 상황이 주는 우울과 허무주의를 나타낸다고 분석해왔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가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주제의식을 더욱 심화하는 요소로 보았다. 필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6.25 전후로 놓으면 주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과연 전후문학이라는 틀과 시대적 배경을 제외하고 작품을 분석한다면 다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우울을 새로운 요소로 좀 더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논의는 고착화되어 있던 기존의 연구를 벗어난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형식주의 연구 방법론과 심리주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배제하고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대사나 서술 기법 등을 통해 우울과 무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로 인한 인물들의 심리와 나아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자.

2. 본론

「비 오는 날」 줄거리

주인공 원구는 우연히 피란지 부산에서 절친한 친구 동옥을 만나게 되고 그와 그의 여동생의 상황을 알게 된다.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남매가 사는 집에 방문한 원구는 여동생 동옥이 다리를 심하게 절며 그런 동생을 동옥이 냉담하게 대하고 있음을 느낀다. 비가 와서 장사를 못하는 날마다 남매의 집을 찾으며 원구는 동옥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녀 또한 처음과 달리 친근감을 보인다. 며칠 뒤 동옥에게서 그가 하던 일을 그만뒀다는 것과 동옥이 자신 몰래 주인 노파에게 빌려준 돈을 떼였다는 것을 듣게 된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간 남매의 집에서 새 주인으로부터 동옥은 며칠째 소식이 없고 동옥 또한 원구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없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새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동옥을 팔아버렸을 거라는 생각에 분노하면서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한다.

2.1 형식주의 연구 방법론

먼저 형식주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작품을 분석해 보고 기존 연구사에 더해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우울과 무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비 오는 날」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제한적으로 한 인물의 심리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즉, ‘원구’라는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에 서술자가 존재하면서 원구의 눈을 통해 동옥 남매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

다.

서술 방식은 ‘원구’의 내면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접적인 사건 제시나 객관적인 인물 묘사보다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관찰에 의하여 그려진다.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대화를 간접 인용 방식으로 나타내어 작중 상황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것이다’, ‘-것이였다’와 같은 종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사건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듯이 보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나타난 것이다.¹⁾

어휘적인 면을 살펴보면, ‘음산한’, ‘곰팡이’, ‘꾸김살’, ‘우울한’, ‘굴속같이 침침했다’, ‘도깨비 집’, ‘주검’, ‘장마’, ‘회색’, ‘비명’, ‘오한’ 등의 어휘들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색조를 무겁고 어둡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미지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²⁾

정리하자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여 원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남매의 상황을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나타냈고 어둡고 우울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과 사건과 거리를 두는 문체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우울감을 그려냈다.

작품의 구성 방식은 평면적이고 그 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다.

발단: 원구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동욱 남매와 그들의 음산했던 생활 풍경이 생각남.

전개: 동욱을 만난 원구는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의 여동생과 만남.

위기: 동욱은 원구에게 동욱이가 초상화 그리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고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말을 전함.

절정: 동욱이가 초상화 그리는 일로 번 돈 일부를 주인 노파에게 빌려주었는데, 주인 노파가 하루아침에 도망가 동욱 남매는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함.

결말: 원구가 다시 남매의 집을 찾았을 때, 이미 남매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원구는 자책감에 빠져서 돌아옴.

구성 방식은 평면적이거나 구성 단계에서 사건을 겪으면서 점차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원구의 모습을 통해 작품은 주제의식을 전달하려고 한다.

주요 인물은 총 3명으로 원구, 동욱, 동욱이가 등장한다. 원구는 작품의 중심인물로 동욱과 동욱을 관찰하며 생기는 그의 심리와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난다. 자신의 여동생 동욱과 결혼할 용기가 없나는 동욱의

1) 김형수, 손창섭 소설의 문체연구: 「비오는날」을 중심으로, 『韓國文學研究』 3호, 경기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33, 7쪽.

2) 위의 글, 5쪽.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곱씹어 의미를 되새겨 보는 행동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를 평면적인 인물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결말에 동옥의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옥은 작품 속 주변 인물에 속하지만 평면적인 원구와 달리 입체적인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사정으로 동생을 데려와 같이 살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점차 동옥을 짐스럽게 여기고 그녀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옥은 원구와 둘이 있을 땐, 동옥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원구가 보는 앞에서 서슴지 않고 동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원구의 내면에 동옥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더욱 키우게 만든다.

동옥 역시 입체적 인물로 볼 수 있는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다. 하지만 원구를 만나면서 그에게는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음을 연다. 이는 원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옥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녀의 표정과 동옥의 말을 통해 모두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후반에 편지를 쓰고 주인에게 이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은 동옥이의 직접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은 개연성을 가지고 전개된다. 비 오는 날, 원구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작품은 그 뒤 벌어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계속해서 내리는 장맛비는 사건의 전개 방향과 인물의 심리를 암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인 낡은 목조 가구로 된 남매의 집을 묘사하는 부분은 작품의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된다. 남매의 행방을 모르는 열린 결말로 작품이 끝남으로써 원구의 자책감과 무력감은 심화된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비’가 작품의 주제를 상징한다는 기존의 분석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주목할 소재는 ‘술’이다. 작품에서 동옥의 내면을 드러내는 요소로 ‘술’을 마시는 장면과 그를 애주가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심인물인 원구에게는 부담과 우울을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무력감과 무의미를 이끄는 요소로 작용한다. 원구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것이 작품의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소재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2.2 심리주의 연구 방법론

앞서 형식주의 연구 방법론에서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작품이 주는 우울감과 무력감, 무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주의 방법론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인물들의 심리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로 시대적 배경을 제외하고 본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새로운 주제의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작품에서 원구는 동옥과 동옥에게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

술 취한 동옥은 다자꾸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투덕거리며, 동옥이년이 정말 가없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까워, 그런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 걸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동옥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 없이 동옥이와 결혼할 테야, 암 장담하구말구, 혼잣말처럼 그렇게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비 오는 날』, 295쪽)

이 부분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힘들어하는 친구의 푸념과 술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만난 원구에게는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약간의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 그런 원구는 종잡을 수 없는 동옥의 말에 영문도 모른 채 호응해 준다. 작품의 후반으로 갈수록 동옥은 원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커다란 적선으로 생각하고, 동옥과 결혼할 용기는 없는가?(...) 원구는 좀 전에 동옥이가 잠꼬대처럼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었다. (『비 오는 날』, 298쪽)

가끔 찾아와 동옥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다. (...) 동옥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수이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해 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 동옥은 그러한 동옥이가 측은해 못 견디겠노라 했다.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랑 동옥이와 결혼할 테야, 암 하구말구. (『비 오는 날』, 299쪽)

지속적으로 원구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동옥의 말은 자연스레 원구가 남매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걱정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남매의 행방이 묘연해진 순간, 그동안 서서히 쌓여왔던 부담감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더 큰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동옥이가 원구와 동옥이를 계속해서 연결 짓는 태도와 동옥의 생각이라 확인할 수 없는 동옥의 말들은 원구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구와 같이 부담감을 심어주어 읽는 내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게 만든다. 결말을 남매의 행방이 묘연하게 만듦으로써 앞서 느꼈던 감정들이 죄책감으로 바뀌어 작용하게 한다. 그 감정은 작품을 다 읽고 나서도 지속되는데, 여운이 짙게 남도록 하여 결론적으로 독자가 직접 허무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

다음으로는 시대적인 배경을 제외하고 작품을 살펴보자.

전후문학이라는 틀을 벗어나 작품을 본다면, 남매의 상황은 그저 ‘가난’이라는 키워드로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모습이다. 생계가 어렵다면, 동옥에게 동옥은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자신도 힘든데 가족이 신체적 장애를 가져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돈은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걸 전쟁과 시대적 배경을 제외하고 봐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옥이가 동옥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은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동옥이가 초상화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감춰져있던 동옥이의 마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한다. 이것이 극대화되는 장면이 바로 동옥이가 노파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과 노파가 도망가 집을 잃게 되는 부분이다.

이년아, 이만 환이면 구화로 얼마 줄 아니, 이백만 환이다, 이백만 환이야. ... 그래 내가 없으면 네년이 굶어죽지 않구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독력으로 살아? 동옥은 다시 생각해도 약에 바치는 모양이었다. (『비 오는 날』, 295쪽)

이렇듯 결국 ‘돈’이라는 요소가 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큰 이유에는 결국 돈의 부족, 돈의 결여가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작품을 분석한다면 기존 연구사에서 다

뤄왔던 주제의식과는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가져다준 인간의 무기력한 삶과 허무주의가 아닌 ‘가난이 가져온 비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구 역시 비슷한 처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매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체 자책으로 끝나는 결말이 그 주제를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

3. 결론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은 문학사에서 전후문학이라는 갈래로 구분되어 전쟁으로 폐허가 된 50년대 상황을 잘 나타냈다고 평가되어왔다. 등장인물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에 초점을 맞춰 작품의 주제인 우울과 허무주의를 해석해왔다. 필자는 형식주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작품을 분석하면서 우울과 무력감, 무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또한 심리주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대적 배경을 제외해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주제의식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작품을 꼼꼼히 분석하고 다른 시각으로 파악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김형수, 손창섭 소설의 문체연구: 「비오는날」을 중심으로, 『韓國文學研究』 3호, 경기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33.

2. 단행본

손창섭, 『비 오는 날』, 국문학세미나 발표 대상 작품집, 2021.

<시나리오 부문>

[시나리오 부문 우수상]

제목: 고장난 우산

경제학과
20163031 이윤희

#1 헤리의 집 근처 하천길

헤리는 길을 홀로 걷고 있다.
그녀는 올해에도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노래를 조용히 읊는다.

헤리 ...봄.. 바람 휘날리며... 돌이 걸어요..
(그러다 갑자기 헤리의 얼굴이 붉어진다)
돌이 걸긴 개뿔.. 선우 그 자식. 내 마음도 몰라주고.

뒤에서 준열이 헤리의 어깨를 친다.

준열 뭐? 선우? 너 또 선우 생각하냐? 으이구
헤리 남이사. 내가 뭘 생각하든 말든 신경 꺼.
(헤리는 머리가 아픈지 한 손으로 머리를 잡는다)
준열 (귀찮다는 표정으로 헤리를 바라본다)
5년이다. 5년. 넌 개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럴 거면 너도 서울로 가서 법대 다니든지.
(준열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점점 커진다)
헤리 법대는 아무나 가냐? 그리고 나 이제 개 안 좋아하거든?
준열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헤리의 신발만 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낸다)
나는 너가 이해가 안 가. 5년이면 질릴 때도 되지 않았어?
헤리 (준열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한다)
너가 뭘 알겠냐. 쌍문동 최고의 한량아. 야 너는 한 여자를 5일을 못 만나잖아.
준열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루만 지나도 지루하던데, 너는 대단하다, 참 대단해.

류준열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헤리의 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헤리는 준열의 말에 화가 났지만 애써 껌잡은 듯이 넘어가려고 심호흡을 했다.

#2 (과거) 쌍문고등학교의 운동장

교복을 입은 18살 헤리가 선우와 쌍문고등학교 운동장에 서 있다.
헤리는 사실 같은 반 반장 선우를 5년 동안 짝사랑했다.
배려심 있고, 착한 선우는 헤리에게도 다정했다. 헤리가 고백하기 전 그날까지는.

헤리 (손편지를 건네는 헤리의 손은 떨렸고, 헤리는 제대로 선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있잖아. 나는 너가 좋아. 내가 저번에 배구하다가 무릎에 피 났을 때도 나 업고 보건 실 까 지
가주고, 나 꼴등하고 다음 시험에는 나만 과외도 해줬잖아. 나는 정말 너가 좋아. 나랑 사귀면 안 될
까?
선우 뭐?
하. 그거 조금 도와줬다고 내가 널 좋아한다고 오해라도 한 거야?
헤리 응?..
선우 그게 너를 좋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
헤리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멍뚱멍뚱 선우의 입만 볼 뿐이다)
선우 그거 다 '보라'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야. 옆 반 보라. 내가 설마 너를 좋아했다고 생 각 하 는
건 아니지?
헤리 (겨우 울음을 참으며 말한다) 그래..
선우 야, 보라는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뭐냐? 예쁜 것도 아니야, 딱히 착한 것도 아 니 야 .
몸매가 좋길 하니, 성격이 좋길 하니. 다른 애들도 너 안 좋아할걸?”
헤리 (터져 버린 울음을 참기 위해 등을 돌린다)
선우 너 괜히 나한테 고백했다고 반 애들한테 알리지 마라.
나 착한 이미지에서 곤란해진다.
헤리 (선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집 방향으로 뛰어간다)

#3 집 앞 골목

헤리는 겨우 눈물을 그쳤다.

헤리 (속마음으로) 아, 어떡하지. 얼굴이 너무 부어서 집에 들어가면 눈치챌 텐데.
희동 (헤리의 뒤에서 말을 건다) 야, 너 뭐해?
헤리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희동 너 울었어?
헤리 아니. 누가 울었다 그래.
희동 근데 이건 뭐야...? 선우야 나랑 사겨줄래..? 풋..
헤리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야, 너 왜 남의 꺼 허락 없이 읽어!!!

하지만 희동이 매일 아침 우유를 먹어서일까 키가 한 뼘 커진 희동의 팔을 헤리는 쉽사리 잡지 못했다.

희동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애들아~ 헤리 울었대~ 선우가 찻나 봐~
헤리 (희동이를 쫓아가다가 돌멩이에 넘어졌다) 아 씨..

하여튼 내 인생 되는 게 없지.

헤리는 갑자기 주저앉아 더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헤리 맞잖아. 나는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지도 않은데.. 선우가 나를 좋 아 할
리가 없잖아. 나 혼자 좋아한 거잖아. 나는 왜 그랬을까?..

헤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골목의 아이들이 헤리에게로 다가간다.

정봉 헤리야, 왜 그래.. 희동이까 놀려서 화났어?

준열 야, 살다가 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너는 왜 사람을 놀리고 그러냐?

희동 (아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낀다)어.. 미안. 헤리야..

헤리 됐어.

헤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아이들의 반대편으로 뛰어간다.

아이들과 서서히 멀어진다.

#4 저수지

헤리는 조용한 저수지에 홀로 앉는다.

헤리 뭐? 보라? 보라 때문에 나한테 잘해줘? 그것도 5년씩이나? 말이 되냐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선우의 행동을 떠올린다)

아 내일부터 보라 얼굴 어떻게 보지?.. 왜 하필 매번 같은 반이냐고.

(일어나서 투덜대며 집으로 걸어간다)

차라리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 내가 운 거 아무도 모르게.

#5 리무진 안

오늘은 준열의 생일이다. 준열의 23번째 여자친구는 준열을 위해 레스토랑을 빌리고, 고급스러운 리무진을 준비했다.

준열 왜 리무진까지 타?

여자친구 오늘 하루밖에 없는 자기 생일이라 그렇지~

준열 (팔짱을 끼는 여자친구의 행동에 표정이 조금 일그러진다)

여자친구 오늘 스테이크는 어땠어? 바이올린 연주는?

준열 (기대의 찬 여자친구의 얼굴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뭐, 맛있었어. 바이올린도 좋고.

여자친구 뭐야~ 그런 반응은. 너가 원하면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라도 갈
까? 우리 아직 여행 가본 적 없잖아.

준열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친구 날짜가 뭐가 중요해. 너가 나한테 잘해 줬고, 내가 널 좋아하는걸?
 준열 그래?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편지 안 줘?
 여자친구 무슨 편지?
 준열 그냥 애정 편지 그런 거 있잖아.
 여자친구 누가 촌스럽게 요즘 그런 걸 써. 그 시간에 명품 샀 카드를 고르겠다.
 준열 (표정이 굳어지면서 여자친구의 팔짱을 뺀다)
 다른 연인들은 손수 만든 케이크도 주고 그러던데.
 여자친구 아 케이크 먹고 싶었어? 그럼 우리 프랑스로 갈까? 거기 내가 제일 맛있는
 케이크 집 알아!
 준열 아니. 맛있는 케이크 말고. 너가 만들어주고 그런 거 없냐고.
 여자친구 그런 걸 내가 왜 만들어? 그런 거 잘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내가 인건
 비 주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왜 만들지? 그런 여자들 다 유난 떠는 거야~ 어차피 전문가가
 만든 게 훨씬 맛있어.
 준열 (무언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본다)
 너도구나. 말이 안 통하는 거.

준열은 신호등 신호를 멈춘 리무진에서 문을 열고, 도로로 나온다.

여자친구 (다급한 목소리로) 오빠, 어디가!!

여자친구의 외침에도 준열은 천천히 리무진과 멀어진다.
 그리고 그 날밤, 준열은 카톡으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고한다.
 너무 쉬운 이별이었다.

#6 변화가의 길거리

준열은 오늘도 길거리를 거닌다.
 준열의 마음속은 항상 외롭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준열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매번 높아졌지만, 아직 원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준열은 오늘도 열심히 주변을 탐색한다.
 그가 대쉬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말 많은 공을 들인다는 것이다.
 오늘, 준열의 눈에 들어온 여자는 한 집에서 시끄럽게 혼나는 부잣집 딸이다.

부잣집 딸의 엄마 너 성적 안 되니까 캐나다 가라고!! 왜 말을 안 들어.
 부잣집 딸 (반항하는 눈빛으로)한국에서 개인전 하겠다니깐!

커지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담장 넘어 듣고 있는 준열의 얼굴에는 살며시 미소가 띠인다.
 준열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든다.

#7 번잡한 고속도로

부잣집 딸이 엄마에게 붙잡혀 강제로 차에 탑승했다. 딸을 바로 해외로 보내기 위함이다.

운전기사가 운전 중인 차 안에서 부잣집 딸과 엄마는 계속 싸운다.

세 사람이 탄 차의 앞에는 준열의 차가 달리고 있다.

부잣집 딸과 엄마의 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운전기사가 두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 잠깐 핸들에서 손을 뗀 사이에 준열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였다.

결국 두 차량은 부딪혔고, 4중 충돌이 되는 큰 사고로 번졌다.

운전기사가, 준열은 상처를 입어 응급실로 이동했다.

#8 준열이 있는 응급실

부잣집 딸과 엄마는 준열의 상태를 의사한테 듣고, 걱정스럽게 준열을 쳐다본다.

준열은 몸을 일으킨다.

준열 아이고, 착신이야.

부잣집 엄마 괜찮으세요? 어찌다 이렇게 큰 사고가..

준열 지금 괜찮게 생겼어요?

부잣집 엄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희는 잘못된 게 없어요. 운전기사와 합의하세요.

준열 나 다 들었는데.

부잣집 엄마 (흠칫 놀라며) 뭘요?

준열 운전기사가 두 사람 싸움 말리다가 운전대에서 손 놓은 거.

그러게 요즘 누가 오픈카를 타고 다녀요? 방음도 안 되는데.

부잣집 엄마 (화들짝 놀라며) 어머 죄송해요. 어.. 무엇을 원하세요?

준열 (부잣집 딸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나 나올 때까지 간호해줘.

부잣집 엄마 아니, 왜요?!

준열 그냥 어렸을 때 생각나서. 나도 해외 나가기 싫어서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는데 그때 누가 못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별 이유 없어.

부잣집 엄마 이게 뭘 소리야. 아니 그쪽 해외 나가는 거랑 내 딸이랑 뭘 상관이에요?

준열 동병상련. 역지사지. 뭐 이런 건가 보지.

암튼 간호 안 해주면 합의 안 해줘~

#9 병원 안, 준열의 방

한 달 동안 부잣집 딸에게 간호를 받고 있는 준열.

부잣집 딸 궁금한 게 있어요..

준열 뭘데요?

부잣집 딸 진짜 그냥 나 해외 안 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준열 글썄.

부잣집 딸 그 사고 전에도 내가 그쪽을 몇 번 본 것 같아서..

준열 알고 있구나? 그래. 나 너 좋아해서 거짓말한 거야.
부잣집 딸 뭐라고요?
준열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는데. 외국에 간다잖아.
 그래서 사고 좀 내고, 예전에 나도 외국 가기 싫었다고 거짓말했어.
부잣집 딸 나를 좋아해서요?
준열 응. 내가 잘못된 건가? 사랑하는 데 방법을 잘 몰라서.
부잣집 딸 (설레는 얼굴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준열 고마우면 나에게 사랑을 줘.

그녀는 준열의 24번째 여자친구가 되었다.

#10 준열의 고백, 다음날 병원 안

부잣집 딸 짜잔!
준열 (눈이 동그래지며)이게 뭐야?
부잣집 딸 곧 있으면 퇴원이라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준열 그림 그리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림을 선물로 받아보네.
부잣집 딸 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건데 3억 정도 할 걸?
준열 (실망한 표정으로) 돈이 중요한 가..
부잣집 딸 왜? 별로야? 탄 거로 줄까?
준열 아니야. 고마워.

고민하던 준열은 그날 밤에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다.

#11 준열의 집

헤리 류준팔!! 너 빨리 안 일어나? 오늘 '정하나'가 도와달라고 한 날이잖아.
준열 봉사 그거 꼭 해야 해?
헤리 봉사하자고 만나는 거냐? 봉사도 하는 겸, 하나 얼굴도 보는 거지.
 하나 얼굴 이쁘잖아. 연예인 되면서 자주 보지도 못했는데.
준열 (머리를 긁적이며) 예쁜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헤리 뭐래. 대한민국 대표하느 얼굴인데. 요새 정하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 없을 걸?
준열 음. 유명하긴 하더라. (준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한다)

#12 쌍문동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준열, 헤리, 하나는 복지관을 청소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하나 애들아 고마워. 일손 부족했는데.. 오랜만에 너희 얼굴도 보고 좋다.

헤리 이게 별거라고. 우리는 집 앞인데. 근데 출세하고도 고향 찾는 사람은 너밖에 없네. 남편이랑은 잘 지내는 거지?

하나 (당황한 표정으로)어.. 어! 그럼. 잘 지내지~”

준열 잘 지내면 됐다.

헤리 하나야 너는 어릴 때도 이쁘더니 지금도 이쁘고. 어릴 때 반에 장애아 잘 도와주더니 나 중에 이렇게 봉사도 하네. 너는 진짜 잘 큰 것 같아!

하나 너도 이쁘~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헤리 응?

하나 너도 예쁘다고. 너도 착해.

근데 그냥 너 주변에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헤리는 하나의 말에 생각에 잠긴다.

준열 근데 너 결혼은 왜 그렇게 일찍 한 거냐? 스타로도 잘 나가는데 23살에 결혼이라니..

헤리 저번에 말했잖아~ 정말 좋은 사람 있어서 빨리 결혼하는 거라고~

하나 어.. 그랬었지. 놓치기 싫어서 그랬지.

준열 다행이네. 여기 3명 중에 정상적으로 연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준열의 말에 헤리와 하나는 말이 없어진다.

헤리 너는 연애 사업 어떻게 돼가는데? 아직도 다 차고 다니냐?

준열 사귀다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지는 거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면서도 계속 사귀는 거. 그거 상대방한테 못 할 짓이다.

헤리 참나.. 연애도 잘 못 하면서.

준열 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준열 오늘은 신발 끈 안 풀어졌네?

헤리 아 방금 다시 묶었어.

하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지들만 몰라. 서로 관심 있는 거.’

헤리 근데 너.. 왜 그렇게 여자 많이 사귀고, 많이 헤어지는 거야?

준열 음.. 생각과 달라서.

헤리 무슨 생각?

준열 그냥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 신을 믿는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 나한텐 그래.

그 사람을 사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안 행복해지잖아.

그럼 난 연애를 끝내. 더 이상의 이유는 없으니까.

하나 (하나가 폰을 보고, 급히 일어서며)애들아, 나 빨리 가야될 것 같아.
헤리 어? 알겠어. 조심히 가.

#13 하나의 집

화가 난 하나의 남편은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하나를 때린다.

하나 으아!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는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다.

#14 쌍문동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갑자기 비가 내린다.

준열과 헤리는 급히 사회복지관에 있는 우산을 각자 꺼내든다. 우산은 모두 고장이 나있다.
각자 고장난 우산을 쓰고 복지관을 나간다. 비는 그치지 않는다.

준열 야 좀 붙어봐

헤리 왜? 어차피 고장났잖아.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우산의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겹쳐져서 비를 덜 맞는 것이 느껴졌다.
둘은 알게 되었다. 고장난 우산이라도 함께 있으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공모전 심사평

최우수상으로 선정한 <틈>은 울격적 긴장감, 주제 표현의 긴밀함, 시상 전개의 참신함 등을 보여주어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한 <레시파>는 전통적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느낌을 주면서, 평이한 언어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고, <바다가 비에 젖을지라도>는 착상이 기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긴 호흡을 잘 다스리고 있다. 장려상으로 선정한 <무꽃>은 전통적 운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면의 성찰을 도모한다. 또 다른 장려상 <이상한 세계>의 시적 화자는 관찰력이 뛰어나며, 이를 절제된 언어감각을 사용하여 독특한 시상을 전개한다. 신입생특별상으로 선정한 <나라는 존재>는 추상적 세계에 대한 익숙한 비유를 통해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있다. 신입생 답지 않은 성숙한 사유의 세계를 보여준다.

-시 부문 심사위원 김명준

2021년 문예창작공모전 소설 부문에서는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극대화된 인간 소외 현상,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절망감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모집되었다. 비정할 정도로 차가운 사회에서 절박하게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서 사람들이 겪는 꿈과 현실의 괴리, 그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통의 따뜻한 순간을 그려낸 작품들은,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제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되었다.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비 오는 날>은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내’가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해연이라는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간의 상처와 아픔을 서서히 치유 받는 순간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문제의식의 깊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빗방울을 손에 받는 장면의 세밀한 묘사나 그것을 통해 드러내는 인물의 외로움, 쓸쓸함 등 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인물 심리 묘사가 빼어난 작품이었다. ‘비’라는 소재의 상징성을 적절히 활용하되, 이것을 주인공의 상실감과 소통의 순간이라는 상반된 두 스펙트럼과 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구성의 유기성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갈등과 적대감이 고조되어 가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인간 사이의 진정한 아낌과 소통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상의 특징도 역시 이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도록 한 이유가 되었다.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A의 세계>는 ‘인육(人肉)을 먹는 사회’라는 독특한 발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카프카의 <변신>을 상기시키는 도입부를 거쳐, 이 소설에서는 인간성을 말살한 채 실적이냐 수량으로 환산되는 화폐적 가치가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된 사회의 속성에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간의 몸, 사제 간의 정(情)처럼 최후까지 돈의 논리와 거리가 있는 지점에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 가차 없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 대한 허구적 상상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속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까지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설이었다. 단, 서술자의 직접적 논평과 설명이 상황의 자연스러움에 방해가 되는 지점이 부분적으로 있었고, 결말이 중간 부분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우수상 수상작인 <사자는 밤에 운다>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랑에 가 닿지 못하는 주인공의 심리의 결이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또 대화나 서술이 적절한 비중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점도 소설 쓰기의 기본기를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다소 단순하고, 서두와 결말에서 사용된 소재들(사자, 바퀴벌레)이 본론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다.

장려상 수상작인 <별판>은 꿈, 사랑, 사회에의 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물의 일탈을 ‘별판’이라는 공간적 상징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그러나 너무 많은 주제들을 한 작품에 담으려다 보니, 꿈과 현실의 괴리나 사랑과 소통의 실패라는 각각의 개별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드러나지 않은 면이 있었다. 또다른 장려상 수상작인 <몽중몽(夢中夢)>은 창작을 위해 사랑을 저버린 인물의 후회와 그리움을 ‘환영’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주목되었으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극도의 절망감으로 이르는 길이 생략되어 서사적 감흥이 다소 떨어지는 인상이 있었다.

이외 <한가을 밤의 꿈>은 A와 B라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삶을 보여주며 이 두 인물이 춘천 여행을 통해 교차되는 순간을 그린 작품으로, 상황 설정의 참신성이 돋보였으나 인물의 삶을 서술자가 단순히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하는 부분이 많아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개연성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사이코패스>는 믿을 수 없는 화자를 설정하여 결말부의 반전 효과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점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소유욕 강한 주인공 겸 서술자의 내면을 그려내면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 의식이 모호한 인상을 주었다. <화목제물>은 신(神)으로 정해진 존재의 시점에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치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주제 의식의 깊이가 드러나는 소설이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서사적 상황 설정 역시 참신했으나,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게끔 하는 자유의지의 가치에 대한 주제 전달이 인물의 직접적 설명으로 처리되는 등, 자연스러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여겨졌다.

이처럼 2021년 문예창작공모전 응모작은 전반적으로 인간과 삶, 세계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서사화하는 다양한 방법과 입장을 두루 감각할 수 있게 하는 소설들이었다. 여전히 소설이라는 글쓰기를 통해 인간에 가 닿으려는 진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이 기분 좋은 희망이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과 문학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

-소설 부문 심사위원 서은혜

비평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간명하게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비평과 유사하게 인식되는 다른 글쓰기 방식과 비교해보도록 하자. 흔히 비평은 감상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이 더해진, 그러나 연구논문의 엄밀함은 덜어낸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비평이 단순히 읽기 쉽고 어렵고의 문제나 전문적인 분석 여부에 따라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비평의 본질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이해와 판단을 토대로 한 자기 진술, 자기 세계의 건설에 있다. 대상에 대한 가설과 해석이라는 점에서 연구논문과 유사할 수 있으나, 바로 이 점에서 비평은 논문과 달리 문학 장르의 하나로 취급된다.

이번 문예창작공모전 비평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한 <「비오는 날」에 대한 새로운 고찰>은 기존 연구의 시각을 탈피해 새로운 각도로 작품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에서의 꼼꼼한 ‘분석’에 그쳤을 뿐,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언어화한 부분을 분명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시대와 호흡하는 문제의식의 측면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지금 다시 「비오는 날」인가, 에 대한 자기만의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의미있는 비평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해둔다.

-비평 부문 심사위원 이승은

시나리오의 상영을 전제로 한 글쓰기이다. 대체로 2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관객에게 갈등과 사건을 제시하고, 미적 체험을 선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플롯과 선명한 인물 형상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문예창작공모전에 응모된 <고장난 우산>은 청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 명은 일편단심 짝사랑을 놓지 못하고, 또 다른 한 명은 편력적 연애를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 괴로워한다. 문제는 이렇게 두 인물을 구체적으로 설정해두고, 더 이상의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산 하나를 나눠쓰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이 두 청춘이 서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하지만 이 또한 모호하다. 플롯을 보완한다면 나름 괜찮은 소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시나리오 부문 심사위원 이승은

